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이유



내적 치유로의 초대

안토니 파란킬마릴 신부(VC:빈센티안 수도회)

감사를 드리며

먼저 사제의 삶을 통틀어, 특히 이 책을 쓰는 동안 변함없이 곁에서 저를 지탱해주신 아버지 하느님과 스승 예수님과 성령, 거룩한 삼위이시며 한분이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강연을 받아 적어 모아주신 줄리엘 물린드, 교정에 참여해주신 실비엣 주자, 성경과 신학적 지식들을 편집해주시고 교정에도 참여해주신 테레사 음바우니, 뛰어난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파멜라 만델라 이데니아 발사님, 모금과 편집, 그리고 책의 디자인을 맡아주신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무원 캐롤라인 카무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글’을 써 주신 메리 안젤리카 수녀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의 승인을 위해 추천해주신 비주 문제리 신부님, 그리고 이 책을 승인해주신 나이로비 대교구의 데이비드 카마누 보좌주교님께 특별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의 머리말을 써주신 동아프리카 빈센티안 공동체의 거룩한 성심 지부장 비주발리카람빌 신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주신 폴 푸쭈바 신부님과 지역공의회에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친절을 다해 협력해주셨던 요한 카따루 수사님, 조지 콜출리칼 수사님, 질슨 발리야카람빌 수사님, 기조 파따루 수사님, 자이미 파라타날 수사님, 다른 모든 부제님과 수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쓰는데 있어서 아이디어와 경험과 여러 후원을 통해 가장 많은 영감을 주신 저의 형제 사제 조니 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빈센티안 복음화 사업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팀원들과 영적 파트너들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선하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당신 이름을 위해 보여준 봉사에 대한 커다란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히브 6,10).

*저는 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정보들을 제공해준 다양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들에는 저널, 서적, 인터넷과 더불어 다른 다양한 자료들도 포함됩니다. 이 책에 공헌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라도 영혼들의 구원과 하느님의 더 크신 영광만을 위해 나아가도록 합시다. “나는 야훼,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돌리지 않는다.”(이사 42,8). 주님께서 축복과 보상을 충만히 내려주시길 빕니다.(룻 2,12;지혜 7,7)

봉헌

저를 아프리카 땅으로 인도해주신
아프리카의 여왕이신 성모님께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택하신 저의 부모님
P.T. 데바씨 파란킬마릴, 뜨레시아쿠띠 데바씨 파란킬마릴께
2014년 12월 28일에 있을 결혼 60주년을 축하드리며

빈센티안 공동체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주신
모든 케냐 사람들에게

이 책을 봉헌합니다.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모든 인류의 아버지, 이 책을 집어든 모든 이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책을 읽는 이는 누구나 생명의 처음이자 마지막 원천이신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결심을 내리도록 이끌어 주소서. 그들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고 자신들의 삶을 아드님 발치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게 하소서. 성령께서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의 영혼 안에서 활동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머리말

주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께 지금 즉시 돌아서십시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로마 7,15) 이는 비단 바오로 사도의 울부짖음일 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울부짖음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는 행동조차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 합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화를 내고 싶지 않지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화가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 내내 산만함과 혀된 망상의 피해자가 됩니다. 원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는 열렬한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원수를 앞에 둘 때면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술에 끓어떨어져 성령의 궁전인 몸을 망치고 싶지 않지만 술만 보면 술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상태로 살아가고 싶지 않지만,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증오하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육욕의 죄로 제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지만 육욕과 정욕에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를 판단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다른 이를 재고 판단하며 저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해버립니다. 맞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어 말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로마 7,24). 바오로 사도는 수정처럼 맑은 답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서십시오.”(로마 7,25 참조)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이유! 내면의 치유로 초대」는 모든 독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내면에 자리하는 고통스러운 상처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상처로 치유 받고 새로 태어나도록 촉구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진심어린 노력과 함께 영적이고도 실천적인 시도들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들을 향한 저자의 진실 된 사랑과 관심의 결과물입니다. 내면의 상처와 과거의 쓰라린 기억이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날마다 마주하면서 겪게 된 저자의 사목적, 영적 경험의 총체적인 요약이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안토니 신부님은 아프리카, 미국, 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나라에 훌륭한 선교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바쁜 스케줄에도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을 향한 현신과 사랑으로 이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이유!」라는 책을 현실에서 마주하도록 힘써주신 안토니 신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은 우리 삶 속에 있는 내면의 상처와 고통의 기억들로부터 치유되기 위해 우리를 예수님께로 돌아서도록 초대합니다. 안토니 신부님은 자신의 첫 번째 책 「버림받지 않은 당신」이 정말 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진 이후에 또 다른 놀라운 저서인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이유! 내면의 치유로 초대」를 내놓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이유! 내면의 치유로 초대」라는 이 책의 제목은 독자의 마음에 수많은 질문을 자아내게 하고, 이는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상처를 마주하게 하며 우리 삶 속에서 오는 질문들의 해답이신 예수님이로 돌아서게 해줄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인식하고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도록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내면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고자 삶 안에서 많은 것들을 시도해왔던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사로잡는 우울증과 스트레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도막, 흡연, 약물, 알코올, 섹스 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습을 통해 이들은 점점 우울감, 실망, 죄의식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사람의 상처 입은 인간존재라고 가정해본다면, 어떠한 위로의 말도, 그 어떤 의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일시적인 기쁨도 버림받음, 외로움, 욕정, 우울감, 두려움, 불안, 의심, 열등감, 우월감, 슬픔 등의 내면의 상처를 치료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기다려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 모두의 짐을 짊어지시며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어서 당신의 거룩한 상처들을 응시하도록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오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음과 같은 말씀을 초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진중하게 읽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여러분이 아니게 될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수천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고와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에(이사 53,3-4)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에(1테살 5,23)

예수님께서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기 때문에(시편 147,3)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불안을 쫓아주시기 때문에(1베드 5,7)

예수님께서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루카 4,18)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 죄를 치유받기 때문에(야고 5,16)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로마 5,8)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짓눌린 모든 이를 고쳐주시기 때문에(사도 10,38)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기 때문에(시편 23,3)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주 발리카람빌 신부(빈센티안 수도회)

동아프리카 거룩한 성심 지부장.

목차

1장: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서도록 이끄십니다	1
2장: 내적 상처와 치유의 예	19
3장: 내적 상처 식별하기	44
4장: 내적 상처로 인한 위험	59
분노	61
낮은 자존감	65
절망	71
비탄	74
동료 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박	80
5장: 아프리카가 간직한 내면의 상처	85
거부	85
욕정	99
두려움	109
6장: 아프리카의 정령	119
주술행위	122
약물남용	135
알코올 중독	141
흡연	147
7장: 내적 치유를 받는 방법	150
8장: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168

감사의 글

세상에는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 육적, 사회적 도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자궁 내에서의 수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인간이 성장해나가는 복합적인 단계들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매일의 삶 안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시련과 고통과 부정적인 태도는 우리 자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분노, 절망, 두려움, 낮은 자존감, 욕정, 용서하지 못함 등이 이러한 문제들에 속하지요. 이 모든 것들이 내면의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영적이고 육적인 영향을 끼치는 내면의 상처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시며 치유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이유! 내면의 치유로 초대」는 인간이 짊어진 다양한 종류의 내면의 상처를 상세하게 다룹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고, 사랑과 연민이 충만하시어 모든 내면의 상처의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안토니 신부님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신부님은 내면의 상처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과 성경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결책들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서도록 인도해주는 성경 말씀에서만 주어집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인간 안에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이 죄악에 물든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상처들은 건강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인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내면의 상처들을 치유하시는 힘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로 돌아서도록 권유하는 이유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용서, 자존감을 가지는 방법, 자기를 인식하는 능력,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 자기 자신과 하느님,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감각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데 도움을 얻습니다.

안젤리카 수녀, FSGS
케냐 교과과정 개발부처 차장

들어가는 말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이유! 내적 치유로 초대」는 부서지고 깨어진 영혼을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힘으로 돌아서게 하기 위한 작고 미약한 노력입니다. 이 책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서도록 이끄십니다.’라는 첫 장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1코린 12,3).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아니시면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께 돌아서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본성, 권능, 영향에 대해 배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내면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상처 입은 이와 그 치유에 대한 예시들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나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1베드 5,9) 이 예시들은 우리 삶의 다양한 단계에서 주어집니다. 완전히 실패한 이들, 하지만 무너졌음에도 포기하지 않은 이들, 쓰러졌지만 이후에 다시 일어 선 이들, 하느님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들로부터 우리는 배움을 얻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내적의 상처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섬으로써 우리는 몸과 혼과 영 전부를 온전히 치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1코린 10,11) 내적 상처에 대한 식별은 주님께 적절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두통이 있는 사람이 위장약을 먹으면 낫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병의 증상만 치료할 뿐, 원인은 치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내적 상처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섬으로써 우리는 몸과 혼과 영 전부를 온전히 치유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장의 단락마다 특별히 수록되어있는 생생한 예시들은 내적 상처가 보여주는 증상과 원인들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벌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저를 잊으신 건가요? 사람들이 저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누구도 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벌하고자 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고(이사 53,4-5 참조),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겠습니까?(2코린 5,21 참조) 우리를 벌하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운 죄입니다. “너희의 죄악이 이런 질서를 어지럽혔고 너희의 범죄가 너희 선익을 가로막았다.”(예레 5,25)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이들 모두가 새로운 생

명을 얻습니다(이사 43,18-19 참조). 분노, 낮은 자존감, 절망, 비탄, 동료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박 등, 내면의 상처가 가지는 위험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상처들은 우리 삶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며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싸움이 인간이 아니라 악령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에페 6,10-17). 물질적 또는 이 세상의 계획으로는 악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 이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의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속된 세상에서 살아갈지언정, 속된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투 무기는 속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 덕분에 어떠한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일어서는 모든 오만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시킵니다.”(2코린 10,3-5) 아프리카에 만연한 주술행위, 알코올 중독, 흡연, 약물 남용의 뒤에는 악령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쉽사리 이러한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행실 때문에 저희 하느님에게 돌아가지 못한다. 그들 안에 창녀기가 있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호세 5,4). 이것이 바로 이 악습들을 그토록 증오하는 이들이 동시에 이 악습들에 중독되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악습에서 벗어나고자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약을 사용하고 전문 상담을 찾으며 회복센터에 머물고 주술사를 찾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들을 불좋는 자들의 고통이 크기에”(시편 16,4)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이 책은 하느님의 백성, 특히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는 하느님의 백성에게 완전한 치유에 이르는 길을 드러내 보여주려는 겸손한 노력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 돌아서는 것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치유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당부말씀

이 책은 내적 치유의 실제 경험과 예수님께로 돌아섬에서 오는 실제 결과물을 보여줄 목적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은 (개인적인 경험과 다른 자료들로부터 인용한) 이야기와 증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과 증언들이 각 장의 내용과 깊은 연관성이 없을지라도, 각 이야기와 증언들이 이 책을 읽는 누군가에게 저마다의 방식으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각 장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들과 증언들은 본문의 내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야기와 증언들만 따로 뽑아내어 읽어도 무관하며 이를 지나쳐서 본문에만 집중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책의 메시지에 집중해주시고 작은 실수들은 넘어가 주시길, 그리고 다음 개정판에서 수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움주시길 호의를 담아 요청 드립니다. 부디 책을 읽으시는 동안 축복과 보호를 받으시길...

1장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서도록 이끄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흄승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한 선구자로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서도록 한 세례자 요한은(루카 3,1-21)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약한 이에게 힘을, 두려움에 빠진 이에게 용기를, 기도하는 이에게 은총을 주시고, 구하는 이에게 지혜를, 교사들에게는 지식을 주시며, 모든 믿는 이들을 성별하십니다. “…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1코린 12,3)

성령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명료하게 듣는다면, 이는 예언자의 영감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지혜는) 그들을 놀라운 길로 이끌었다. 낮에는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고 밤에는 별빛이 되어 주었다. 또 그들을 흥해 너머로 데려가고 깊은 물을 가로질러 인도하였다”(지혜 10,17-18).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께 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영을 가득히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느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달리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지혜가 누구의 선물인지 아는 것부터가 예지의 덕분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호소하고 간청하며 마음을 다하여 아뢰었다”(지혜 8,21). “당신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지혜 9,17). 세상에는 그저 물질적 부유함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부유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모든 것을 이루는 지혜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는가?”(지혜 8,5).

- 수업내용을 이해하길 바랍니까?
- 옳고 그름을 제대로 구별해내길 원합니까?
- 리더가 되고자 합니까?
- 빛을 청산하길 원합니까?
- 치유받길 원하십니까?
- 아름다워지길 바라십니까?
- 시력을 되찾길 원하십니까?

오직 한 가지 답이 있을 뿐입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 나에게 예지가 주어지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나에게 왔다. 나는 지혜를 왕홀과 왕좌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 않았다. 온 세상의 금도 지혜와 마주하면 한 줌의 모래이고 온도 지혜 앞에서는 진흙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는 지혜를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사랑하고 빛보다 지혜를 갖기를 선호하였다. 지혜에서 끊임없이 광채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혜와 함께 좋은 것이 다 나에게 왔다. 지혜의 손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이 들려 있었다”(지혜 7,7-11).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평화와 기쁨을 얻기 위해 너무나도 다양하

고 많은 것을 시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먹는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먹을수록 더욱 허기지고 더 자주 화를 내며 더 큰 공허함을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부도덕한 성관계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증오와 우울함뿐입니다. 암논과 타마르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2사무 13,13-14), 욕정은 증오로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술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하지만 곧 중독되고 술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친구들을 찾아 그들을 진흙구덩이로 끌어당깁니다. ‘당신과 가까운 친구들이 당신을 속이고 멋대로 조종했지요. 그러고는 당신의 발이 진흙에 빠져 들자 그들은 등을 돌려 버렸지요’(예레 38,22). 어떤 이들은 운동과 오락에서 기쁨을 찾지만, 자신이 무능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며 심지어 버림 받았다는 기분이 듭니다. 이 모든 이들이 언제나 기쁨과 평화를 얻고자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얻질 못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삶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바람 또는 불, 비둘기 혹은 어떤 힘의 형태가 아니라, 말하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한 분의 위격이십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행하는 사목활동 안에 드러나시는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시며, 당신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알게 되는 분, 질서와 생명을 낳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창세 1,2). 성령께서는 배우지 못한 사람, 고아, 가난한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배척받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성령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좋아하기에 성령의 중요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적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청할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자 하시는 성령만이 우리에게 내적 평화와 기쁨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1요한 5,19)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일에 더 많이 관여할수록, 사람들은 더 좌절하게 됩니다.

한 아버지와 자녀이야기

이 아버지는 성당(가톨릭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만 해. 성당은 게으른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 아버지는 심지어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의 네 살배기 아들이 뭔가가 안에 들어갔는지 굿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지만 의사들은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밤낮으로 울어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을 믿지 않고 사람과 의사의 힘에만 의지하는군요. 봐요, 의사들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아이는 계속 아파하잖아요! 제발, 예수님께 치유를 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침내, 이 부부는 아들의 울음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상담을 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밤에 잠도 못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감추는 자는 성공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끊어 버리는 이는 자비를 얻는다”(잠언 28,13). 우리는 이 아버지에게 피정에 참여해 진심어린 고해성사를 하도록 권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

버지가 결심을 한 바로 그 순간에 집에 있던 아들은 울음을 멈추었고 아들의 귀에서는 검은 물체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물체는 아들이 노는 동안 귀에 들어갔던 조그마한 씨앗이었습니다(시편 32,3-5). 이 이야기는 부모의 고해성사가 자녀와 가족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고백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해주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숨겨진 이유를 드러내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새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나무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잘린다 해도 웁이 트고 쌍이 그치지 않습니다. 뿐리가 땅속에서 늙는다 해도 그 그루터기가 흙 속에서 죽는다 해도 물기를 느끼면 쌍이 트고 묘목처럼 가지를 뻗습니다.”
-욥기 14,7-9

위의 성경말씀처럼, 성령께서는 절망에 빠진 이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삶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생명의 물의 원천이신 성령께 돌아서기만 한다면, 새로운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평화를 얻는 길은 바로 성부와 성자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조력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행했던 내적 치유 피정에서 한번은, 마지막 날에 피정 참가자들이 고해성사와 상담을 했음에도 여전히 피곤해하고 뭔가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령께 도움을 청했고, 다음의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분께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시어, 넓은 계곡 한 가운데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께서는 나를 그 뼈들 사이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 넓은 계곡 바닥에는 뼈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것들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주하느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썬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에제 37,1-6)” 저는 이 말씀이 피정에 참가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정확히 해당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 생명을 주시는 새 숨결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숨결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땅이 아직 꿀을 갖추지 못하고 어둠이 심연을 덮고 있으며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을 때(창세 1,2),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야말로 부서지고 혼란스러운 우리 삶에 새로운 생명과 의미,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요한 6,63;7,37).

그때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들은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

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 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예제 37,11-14)

파정참가자들은 이 성경말씀 안에 묘사된 것처럼 마르고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을 끌어올리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로마 5,5 참조).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직장이나 돈, 혹은 배우자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재야 말로 가장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다른 직장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성령이 필요하신가요?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와서 수년 동안 직장이 없었고 이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었노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특별한 기도를 하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한 달 동안 매일 아홉 번의 ‘생각하소서, 성모여(성 베르나르도의 성모찬가)’와 함께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읽길 권했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여성은 안정된 직장을 구했고 우리에게 와서 자신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3주 뒤, 이 여성은 다시 우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저는 특별한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난 직업이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단다. 그런데 너는 적어도 네가 원하던 직장을 구했잖니.”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신부님. 사실 지금 저의 삶이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원하던 직장은 얻었지만, 직장 동료들이 저를 힘들게 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이 직장을 얻기 전엔 밤에 잠도 잘 잤어요. 그런데 지금은 직장에서의 문제들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발 제가 다른 직장을 얻을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여기서 계속 일하다가는 전 미쳐버릴거예요.”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에게 한 성경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뱃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루카 11,9-13). 저는 이 젊은 여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직장이 아니라 성령이심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가면서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모든 것을 이루는 지혜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는가?”(지혜 8,5)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움없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만을 간직하게 될 뿐입니다. 슬기(지혜), 통달(지식, 깨달음), 의견, 지식, 굳셈(용기), 효경,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경외(두려워함)은 성령께서 베푸시는 7가지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충만한 주님의 영은 만물을 총괄하는 존재로서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아시기”(지혜 1,7)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젊은 여성에게 육적인 아버지와 하느님 아버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해주었습니다. 육적인 아버지에게 빵을 달라고 하면 빵을 주고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줍니다. 하지만 아빠(Abba) 아버지께 빵을 청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성령

을 주실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청한다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다시금 성령을 받으라 명하실 것입니다. 평생의 배우자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먼저 영원한 조력자이자 배우자인 성령을 받아들이라 격려하실 것입니다. 루카복음은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루카 11,13). 이 성경말씀에 따르면, 당신의 지혜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께 청하는 당신 자녀들에게 그저 빵이 아니라 빵의 원천을, 그저 마실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을 내어 주십니다. 곧,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빵을 청할 때, 그저 빵이 아닌 살아있는 빵(요한 6,48 참조)을, 그리고 마실 물을 청하는 자녀들에게 그저 물이 아닌 유일하며 영원한 생명수이신 성령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 하실 것이다.”(요한 15,26)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를 통해 기뻐합니다(갈라 5,22-23). 성령의 열매를 막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젊은 여성에게 매일 그녀 자신과 그녀의 회사, 사무실, 사무실 동료 그리고 가족들에게 성령이 내리시길 기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녀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후에 이 여성은 자신의 직장 동료들 거의 모두를 피정에 데려왔고, 그녀의 회사에서는 크나큰 변화가 일었습니다. 그들 안에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성령께 기도를 바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매일의 일과가 된 것입니다(사도 17,28).

어느 호주인 이야기

호주에서 16년 이상 살아온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둘 다 아주 열심히 일했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자신들만의 집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전세만 전전할 뿐이었습니다. 부부가 돈을 모아놓았을 때마다 부모님 혹은 자녀들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고, 집을 장만할 돈을 저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부를 위해 기도하던 중, 이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삼가 안식일을 짓밟지 않고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일을 벌이지 않는다면 네가 안식일을 기쁨이라 부르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부른다면 네가 길을 떠나는 것과 네 일만 찾는 것을 삼가며 말하는 것을 삼가고 안식일을 존중한다면 너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나는 네가 세상 높은 곳 위를 달리게 하며 네 조상 야곱의 상속 재산으로 먹게 해 주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이사 58,13-14). 우리는 질문을 통해 이 부부가 돈을 더 벌기 위해 주말에도 일을 하느라 주일미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부부에게 하느님 은총의 풍요로움과 보살핌이 부족한 이유인 것입니다. 분명히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주일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대죄로 가르치고 있음에도, 이 부부는 전례와 성사생활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보살핌 없이 자신들에게 필요 한 것을 사고 또 지으려 했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 주지 않으시면 그 지키는 이의 파수가 헛되리라. 일찍 일어남도 늦게 자리에 들도 고난의 빵을 먹음도 너희에게 헛되리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는 잘 때에 그만큼을 주신다.”(시편 127,1-2). 누구든지 성령께 자신의 삶을 열어드리는 이는 자신 안에 숨겨진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울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왕들입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성령에 의해 기름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일부다처, 우상숭배, 간음과 살인이라는 대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성령께서 자신을 떠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1사무 16,14). 성령의 부재 속에 살아가는 것은 으르렁거리는 사자(1베드 5,8)를 초대하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울이 몰락했을 때와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을 때, 하느님께 기도를 바쳤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당신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께서 거두지 마소서”(시편 51,12-13). 저는 다윗 왕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확신합니다. “오! 주님, 저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별로서 저를 이 권능의 왕좌에서 끌어내려주소서. 하지만 부디 저에게서 이제껏 저를 이끌어주신 성령만은 거두지 마소서.” 이는 다윗이 자신의 왕좌보다 성령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이를 배웠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 나에게 예지가 주어지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나에게 왔다. 나는 지혜를 왕홀과 왕좌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 않았다. 온 세상의 금도 지혜와 마주하면 한 줌의 모래이고 은도 지혜 앞에서는 진흙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는 지혜를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사랑하고 빛보다 지혜를 갖기를 선호하였다. 지혜에서 끊임없이 광채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혜와 함께 좋은 것이 다 나에게 왔다. 지혜의 손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이 들려 있었다.”

-지혜 7,7-11

다윗 왕은 자신의 왕위가 성령의 도유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 대한 깊은 경외가 있었기에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왕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때에 바쳐질 수 있는 기도인 시편을 짓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주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성령께서 현존하시도록 하느님 앞에서 모든 악을 끊어버리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직업이나 돈, 그 어떤 물질적인 것들보다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바로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이나 직장, 시험이나 면접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요한 14,26)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목마르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살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살았고 이를 반복했지만 더욱 공허하고 더 목말라질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요한 4,11).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 전합니다.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께서는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요한 7,37-38)”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로마 11,29).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술과 젖을 사라.”(이사 55,1) ‘물가로 오너라.’라는 말씀은 ‘성령께로 오너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술과 젖’은 모든 형태의 무질서한 열정과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속세의 욕망이 일으키는 갈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른 땅에 물을, 메마른 곳에 시냇물을 부어 주리라. 너의 후손들에게 나의 영을, 너의 새싹들에게 나의 복을 부어 주리라”(이사 44,3).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소서.”(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라는 기도는 공허한 여홍과 잘못된 우정관계를 청산하도록 도와주는 의미 깊은 기도입니다. 성체성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계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성령으로 목마름을 끝내기 위해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다는 것

한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 딸은 37살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느님께서 제 딸을 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딸을 위해 어떤 속죄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함께 기도를 시작했고 시편 136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의 제 목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행하신 업적”입니다. 시편저자는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이렇게 화답합니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 시편은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의 자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보라고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삶 자체가 하느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36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 그녀 주위의 사람들은 그녀에게 결코 결혼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으며, 심지어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갖지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다정한 남편과 세 자녀를 주셨고, 37살 된 딸이 첫 자식이라 말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이죠. “당신의 결혼과 하느님께서 주신 자녀들에 대해 한번이라도 주님께 감사드린 적이 있었나요?”라고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머니에게 결혼생활에 대한 감사미사를 세 번 봉헌하라고 권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흔적들 안에 계시는 하느님

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난하고 굶주리며 무지하다고 느끼십니까?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이사 55,1-2). “네 입을 한껏 벌려라, 내가 채워 주리라.”(시편 81,11) 이 말씀들은 가난하고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는 이들을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가난하고 무지했지만(1코린 1,26), 성령께서 그들을 지혜롭고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성령께서는 그를 왕으로 성별하셨습니다.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힌두교 여성이 피정에 참여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읽고 쓰는 것도 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는 그녀에게 치유의 힘을 주셨습니다. 하루는 어떤 신부님이 이 여성의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픈 사람을 보게 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그저 그 아픈 이곁에서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울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여성은 예수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고 자신의 울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울음이 바로 이 여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초라하고 무지한 여인은 이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아, 내게 가까이 오너라. 내 배움의 집에 와서 묵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도 지혜 없이 지내며 너희 영혼은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느냐? 나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였다. ‘돈 없이 지혜를 차지하여라.’ 너희 목에 명예를 씌우고 너희 영혼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여라.”(집회 51,23-26)

많이 지치셨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그분의 자비를 기다려라. 빗나가지 마라. 넘어질까 두렵다”(집회 2,7). 한 신부님이 중요한 피정을 지도한 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신부님은 자신이 피정을 이끌기 위한 하느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신부님은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행한 어떤 잘못이든 뉘우치기 위해 앓아서 기도했습니다. 이 신부님은 성경을 펴서 예레미야서 12장 5절을 읽었습니다. “네가 사람들과 달리기를 하다가 먼저 지쳤다면 어찌 말들과 겨루겠느냐? 네가 안전한 땅에만 의지한다면 요르단의 울창한 숲 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 성경구절을 신부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는 더 큰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더 큰 싸움과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를 하여라. 네가 더 큰 피정을 맡게 되면 너는 그 피정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것이냐?” 모든 강력한 사목활동들이 악마에게는 위협입니다. 지금 이 신부님은 자신의 사목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도 아래서 한 영혼이 구원을 체험했을 때 이 신부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감명을 받고 기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신부님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집회서 2장 1-2절을 읽게 하셨습니다. “얘야, 주님을 섬기려 나아갈 때 너 자신을 시련에 대비 시켜라. 네 마음을 바로잡고 확고히 다지며 재난이 닥칠 때 허둥대지 마라.” 성령께 우리 마음을 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죄의 악습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십니까?

한 소년이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고 불평했습니다. 소년은 기도할 때 조차도 죄스런 생각이 계속 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음란한 생각들이 소년의 마음을 지배했고 소년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 소년에게 매일 적어도 30분간 정말 열렬한 마음으로 자신 안에 성령께서 가득 차시길 기도하라고 권했습니다. “나에게 오너라, 나를 원하는 이들아. 와서 내 열매를 배불리 먹어라. 나를 기억함은 꿀보다 달고 나를 차지함은 꿀송이보다 달다. 나를 먹는 이들은 더욱 배고프고 나를 마시는 이들은 더욱 목마르리라. 나에게 순종하는 이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은 죄를 짓지 않으리라”(집회 24,19-22).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 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로마 8,14-15).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악습을 극복해냅니다.(하까 2,5b 참조)

악취

어떤 부모가 자신의 딸을 데려왔습니다. 이 소녀는 몸에서 나는 악취로 곤란해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딸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병원을 다녔고 피부 전문의에게 가서 악취를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혈액검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절망에 빠진 이 소녀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약과 치료가 다 실패하자, 이 딸아이의 부모는 딸을 구원해줄 사람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딸아이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뺨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1코린 11,28-30).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난 후 곧바로 이 딸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성수를 가져와 소녀에게 뿐렸고, 소녀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곧 이 딸아이는 자신이 동성애적 성향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 소녀는 수녀원이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여자 기숙사에서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기숙사에서 동성애를 행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도 수녀원의 평일 미사에서 복사를 섰습니다. 이 소녀는 심지어 영성체도 하였고, 점차 몸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최후의 만찬에서 유다가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는 뺨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동시에 사탄이 그의 안으로 들어가 곧 어둠 속으로 나아간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딸아이가 범한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몸에서 나는 악취가 하느님의 별이 아닌 소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네 악행이 너를 별하고 네 배반인 너를 징계할 것이다. 주 너의 하느님을 저버린 것이 얼마나 나쁘고 쓰라린지 보고 깨달아라. 나에 대한 두려움이 너에게 없구나. 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예레 2,19). 이 소녀는 자신이 행한 잘못이 대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끊고 흐느끼며 참회를 했습니다. 그 즉시, 소녀는 치유가 되었고 몸에서 나던 악취가 사라졌습니다. 진실을 드러내시고 소녀를 참회와 치유로 이끄신 분은 다름 아닌 성령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티카(Thika)에 있는 피정센터에서 기도모임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기도모임 장소와 기도모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판을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림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시의회에 돈을 지불하고 승인을 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는 도둑들이 너무 많아서 알림판을 설치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남아 있을지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성령께 기도하던 중에 우리는 성령께서 영감을 불어넣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시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던 컨테이너를 알림판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그 컨테이너를 피정센터로 향하는 길가에 두었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피정센터의 이름과 다른 여러 세부사항이 적혀있었기에 누구도 이 창고를 훔쳐가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점차적으로 티카에 있는 빈센티안 피정 센터(Vincentian Retreat Centre)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단어 하나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다양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즈루빠벨 유다 총독과 예수아 대사제와 모든 백성들의 영을 일으키셔서 주님의 집을 짓도록 이끄셨는지 알고 있습니다.(하까 1,12-15)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히브 12,25). 예수님의 사도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르셨습니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사도 13,2).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이르셨습니다.**”(사도 11,12).

몹시도 이혼하고자 했던 여인

하루는 한 여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이제 지쳤어요. 제 남편은 신앙도 없거니와 매일 술에 취해 살아가고 있어요. 평화로운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제발 제가 이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여인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이 성경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거기에 떨어지고 뒷을 놓는 자는 자신이 거기에 걸리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그런데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리라”(집회 27,26-27). 다른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네가 한 그대로 너도 당하고 너의 행실이 네 머리 위로 돌아가리라**”(오바 1,15). 제가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천주교 신자입니까?”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그이는 신자가 아니에요, 신부님. 그게 문제인거 같아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신건가요?**”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좋은 친구였어요.**” 저는 또 물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결혼 전에 남편이 비신자라는 사실에 대해 주의를 주셨나요?**” 그녀는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사제도 그것에 대해 주의를 주었나요?**” 그녀는 역시 그랬다며 답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당시에 자신이 성당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던 신자였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본당사제의 도움을 청하려 갔지만 신부님은 그 관계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도 당신이 짊어지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신부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저도 제 남자친구를 짊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이를 사랑하니까요.**” 그때 신부님은 그녀에게 이

성경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네 영광을 남에게 넘겨주지 말고 네 특권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지 마라”(바룩 4,3). 천주교 신자로서 가지는 영광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천주교 신자로서 가지는 특권은 바로 칠성사입니다. 비신자와의 결혼을 위해서 이 영광과 특권을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다니 2,43; 집회 26,19; 토빗 4,12; 지혜 11,16; 이사 42,8) 이 여인은 자신이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몇 년 후, 이 여인은 이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여인에게 이혼을 택하기 보다는 남편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길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아내 된 이는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남편 된 이는 아내를 구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1코린 7,16)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감에 따라 우리는 이 여인에게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사도신경”을 매일 열 번씩 바치며 기도하라고 권했습니다. 몇 달 후 이 여인의 남편은 피정에 참여했으며 예비자 교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만일 남편이 당신을 차갑게 대하거나 회사의 상사가 당신에게 탐욕스러운 눈길을 보낸다면, 또는 당신이 사람들에게 부정함을 느끼고 사람들의 본성이 거칠고 괴팍해진다면, 이는 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당신에게 자신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에제 36,25-27). 한 인간의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뿐 이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피정센터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선교회 소속 신부님 한분이 어떻게 하면 자신이 파견된 나라에 피정센터를 세울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그 나라는 너무 많은 법과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부님은 말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곳은 죄를 범할 자유가 넘쳐납니다. 이로 인해 생겨난 법과 제도들이 선한 의지를 실천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곳에 4년 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신부님을 위한 메시지로서 우리가 받은 성경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코헬 3,1-3)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신부님. 신부님은 지금 피정센터를 짓기 위해 파견 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쌓기 위해 파견되셨습니다. 신부님이 씨앗을 뿌리기 위해 파견되셨다면, 거두려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파종을 위해 파견되셨다면, 수확하려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은 신부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며, 이는 수년 후에 하느님께서 또 다른 이를 보내시어 수확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구도 파종과 수확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급히 수확하려 하거나 파

종을 게을리 합니다. 선교사들은 어떤 장소에서는 파종을 위해 파견되고, 또 다른 장소에서는 수학을 위해 파견되곤 합니다. 공평하신 하느님께서는 심는 이는 누구나 수학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학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요한 4,38). ‘하느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봉사하였고 지금도 봉사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 준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히브 6,10). 성령께 여쭙는 이는 누구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빠(Abba) 하느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빼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로마 8,14-17). 성령께서는 모든 고아들의 친구이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아빠 하느님께서 고아들을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돌보시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성령께서는 아빠 하느님의 사랑으로 고통 받는 이를 지탱해주십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어떻게 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로 내세워 탐스러운 땅, 못 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속 재산을 너에게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나는 너희가 나를 ‘저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따르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예레 3,19).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로마 8,26) 우리는 성령을 힘이시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나약한 이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기도하는 이를 격려하십니다. 사도들이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었음을 떠올리십시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용기와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나아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시편을 노래 불렀습니다. 사도들은 또한 왕들과 통치자들, 그리고 관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은 권력도 힘도 아닌, 곧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즈카 4,6).

아이를 가질 수 없던 부부 이야기

우리는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한지 14년이 되었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병원진단 결과, 두 사람 모두 정상이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부를 위해 기도하던 중, 성경말씀을 받았습니다. “얘야, 네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네 죄를 상쇄

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네가 재난을 당할 때 네가 기억되리니 네 죄가 따뜻한 날 서리처럼 녹아내리리라.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와 같고 자기 어머니를 화나게 하는 자는 주님께 저주를 받는다.”(집회 3,12-16) 부부 중 아내는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아픈 아버지를 돌보아야 하는 딸의 의무를 저버리고 인도의 케랄라에서 바레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우리는 그녀에게 세상을 떠난 그녀의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9번의 연미사를 봉헌하고 회개하며 기도 하라고 권했습니다. 이후 이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세 자녀의 어머니로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어 힘을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행하지 마십시오

많은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이 자신이 맡은 사목과 사도직에 실패하는 이유는 성령을 목말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루카 24,49). 성령을 상징하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사목을 하는데 있어서 권한이 신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이야말로 아래에서 오는 권한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사도 1,8 참조). 교사는 참된 가르침을 주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변하는 사람은 참된 대변인이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은 참된 지도자이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독하는 이는 참된 감독자이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제는 참된 조력자이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담가는 참된 상담가이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느 직업이나 사목활동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함께 할 때,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1코린 12,11).

성령께서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비신자이든 이민족이든 노예든지, 성령을 반갑게 맞이하는 이는 누구나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께서는 공정하시고 언제든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사도 10,44-45).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 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요한 4,9-10

“그런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그날에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

어 주리라”(요엘 3,1-2).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너무나도 겸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다른 민족 사람들을 채우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축복하셨으며 노예들에게도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목말라하는 이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께서는 필리포스에게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던 수레로 가까이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 53장 7-8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시는 필리포스에게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 성경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포스가 그 성경말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때, 내시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 즉시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자마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낚아채듯 데려가셨습니다(사도 8,26-40 참조). 베드로 사도는 코르넬리우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 카이사리아로 파견되었습니다. 코르넬리우스는 다른 민족 사람이고 백인대장이었으며 의롭고 많은 자선을 베풀던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사도 10,10-16).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사도 10,34-35).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관대와 소박, 그리고 겸손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겸손하고 온화하며 경건한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에페 4,30).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 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 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느님의 교회 곧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사도 20,28). “사자나 천사가 아니라 그분의 얼굴이 그들을 구해 내셨다.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동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지난 세월 모든 날에 그들을 들어 업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영을 거역하고 괴롭혔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들의 적이 되시어 몸소 그들과 싸우셨다”(이사 63,9-10). 하나님아스와 사파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성령을 슬프게 해드렸고 둘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어찌자고 그대들은 서로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오? ...”(사도 5,1-11)

경제적인 어려움과 낙태

저는 어떤 한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는 경제적 어려움과 낙태 사이에 연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엄청난 은행대출과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벌어들이는 모든 돈들이 대출과 빚을 갚는데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가끔씩 자살충동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부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환시를 보았는데, 같은 날, 꼭 닮은 모습으로 태어난 듯 보이는 네 명의 작은 아기들이 있었고, 이 아기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부부는 대답했습니다. “한 명입니다.” 우리는 이 부부에게 우리가 본 환시에 나왔던 네 명의 꼭 닮은 아기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부부는 이제껏 네 번의 낙태를 행했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유는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아기들을 키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이 아기들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과 생명을 주시고 삶을 지탱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온갖 보화로 가득한 천국을 여시어 그 보화들을 당신 자녀들에게 주시는데, 이는 언제나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가지는 것에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보화들에게 대해서도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아들들은 주님의 선물이요 몸의 소생은 그분의 상급이다”(시편 127,3).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이다. 아, 네가 내 계명들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너의 평화가 강물처럼, 너의 의로움이 바다 물결처럼 넘실거렸을 것을. 네 후손들이 모래처럼, 네 몸의 소생들이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을. 그들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았을 것을’”(이사 48,17-19). 성령께서는 이 부부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술을 끊기 힘드십니까?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로마 8,8), 왜냐하면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이는 결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영과 성령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에페 5,18). 세례자 요한은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어머니 태종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루카 1,15).

성령께서는 저절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성령 안에서 충만히 살아가신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요한 7,38-39).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오순절 위층 방에 모여 단식과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온화하고 세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렬한 사랑으로 초대를 드릴 때까지 우리 삶으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루카 11,13).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 나에게 예지가 주어지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나에게 왔다. 나는 지혜를 왕홀과 왕좌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 않았다. 온 세상의 금도 지혜와 마주하면 한 줌의 모래이고 은도 지혜 앞에서는 진흙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는 지혜를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사랑하고 빛보다 지혜를 갖기를 선호하였다. 지혜에서 끊임 없이 광채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혜와 함께 좋은 것이 다 나에게 왔다. 지혜의 손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이 들려 있었다”(지혜 7,7-11).

“성령께서는 온화하고 세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렬한 사랑으로 초대를 드릴 때까지
우리 삶으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하는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은 성령을 향한 불타는 목마름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느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달리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지혜가 누구의 선물인지 아는 것부터가 예지의 덕분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호소하고 간청하며 마음을 다하여 아뢰었다”(지혜 8,21).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

1. 지은 모든 죄에 대해 회개하기 (마르 1,15)
2. 죄와 사탄을 단호히 거부하기 (야고 4,7-8)
3.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사도 10,44)
4.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기 (로마 10,9)
5. 성령을 뜨겁게 갈망하기 (1베드 2,2; 요한 7,37)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사도 2,38).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1 베드 2,2).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사도 10,44).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사도 2,4).

기도합시다:

“아빠(Abba) 하느님! 저의 전 존재가 성령 안에서 충만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허락하소서.”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

어느 선교회의 수녀님들이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방문에서 기도를 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도 없고 직원들에게 줄 급여도 없을 정도로 큰 손실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교회 수녀님들은 간신히 연명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 기도하며 병원을 축복을 하는 와중에 이 성경말씀을 받았습니다. “죽음에 사로잡힌 이들을 구해 내고 학살에 걸려드는 이들을 빼내어라. ‘이봐, 우리는 그걸 몰랐어.’ 하고 네가 말하여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알아보시지 않느냐? 영혼을 지켜보시는 분께서 아시고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신다.”(잠언 24,11-12). 우리는 수녀님들에게 이 병원에서 낙태수술이 행해졌는지 물었습니다. 수녀님들은 이곳이 가톨릭 병원이라 낙태수술은 결단코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로 일하고 있는 수녀님 역시, “어느 누가 이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행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행하는 사람을 바로 해고하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녀님은 이 병원이 낙태와 관련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경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낙태가 이 모든 문제를 가져왔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낙태는 무죄한 이의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후에 우리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3일 뒤에 이 병원의 수녀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수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정말 죄송합니다. 알아보니깐 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말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저희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낙태수술을 해오고 있었어요. 때로는 자신들의 개인진료실에서 낙태수술을 추천했고 이를 비밀스럽게 행했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없을 때 수술을 했었고, 병원진료기록에 남기지도 않았더라고요. 이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낙태수술을 하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 우리는 수녀님들에게 특정 신부님을 모셔서

모든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해 33번(예수님의 지상생활을 의미하는)의 연미사를 봉헌하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두 달이 지났을 즈음, 수녀님들은 병원의 의료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 재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는 환자의 수도 점점 증가했고 병원 전체가 평온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태가 숨은 장애를 가져오는 대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성령의 배우자, 성모 마리아

“여기, 저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부디 예수께로 돌아서서 주님의 조건없는 사랑을 받고 그분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받으십시오!”

흔란스러워하는 마리아의 질문에 가브리엘 대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자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루카 1,35). 이 장면 이후의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성모님께서 의심하거나 약해지거나 반박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깊은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아주 침착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머니께서는 칠고(성모님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았던 일곱 가지 슬픔과 고통)의 창에 꿰찔리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강인함은 바로 성모님의 배우자,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성령의 모든 열매(갈라 5,21-22)를 간직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의 여인이셨습니다. 성모님이야말로 성령께서 어떻게 한 인간을 온전히 변화시키실 수 있는지에 대한 최고 모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 두려움에 떨며 흩어졌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도록 “위층 방”(사도 1,14)으로 인도하신 분이 성모님이십니다. 오순절 사건은 성모님께서 함께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모님께서 교회의 어머니라 불리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단 하나의 열쇠가 바로 가톨릭교회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성령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느님의 교회 곧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사도 20,28). 성령께서 가시는 곳은 그 배우자인 성모님께서도 따라가실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묵시록은 말합니다. “그들은 동정을 지킨 사람들로서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린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입니다”(묵시 14,4).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죽음까지 따라갈 수 있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성령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으셨습니다.

성령과 묵주기도

묵주기도는 성경말씀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우리가 복음에서 보듯이 (루카 1,33-34),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 성모님에게 인사를 건네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채워주심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서도록 만든 세례자 요한은 그의 아버지 즈 카르야에게 내렸던 예언(루카 1,15)이 충만히 실현됨으로써 어머니의 태종에 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묵주기도의 내용은 바로 성령의 드러나심입니다. 묵주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묵상은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왜냐하면 묵주기도는 그 자체로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루카 1,28; 1,33; 1,34).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요한 6,63). 또한 묵주기도는 육화부터 부활까지 성모님과 함께 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묵주기도의 신비들(환희, 빛, 고통, 영광)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서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묵주기도를 하도록 권하고 성모님께서 자신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주시길 기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전의 성령입니다”라는 말씀은 실제로 성령의 배우자가 되신 성모님의 삶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성모님께서는 그저 한명의 위인이 아닌 성령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공경합니다. 성령께서 성모님 안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성모님을 덮으셔서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듯이(루카 1,35) 저에게 오시어 저를 덮어주소서. 저를 온전히 지배하시어 저를 이끄소서.”

오! 성령이시여, 저희와 동행해주소서

성령께서는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의 근본 원인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상처입은 치유자로 인도하시어 치유 받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돌려세우시어 영원히 지속될 주님의 나라라는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성령의 부산물(상처의 치유)을 청할 것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당신으로 가득 채우소서!

2장 내적 상처와 치유의 예

“조상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생긴 내면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악행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녀사냥, 이교도 예식, 악마숭배, 각종 미신행위, 간음과 간통 등 부정한 성관계, 성폭력 등.”

죄로 인해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스트레스와 분노, 고통으로 마음이 부서지시는가요? 상처입고 구속당하는 느낌이 드시는가요? 예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시편 147,3) 이는 성경에 쓰여 진 대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시편 51,19 참조).

2장에서 우리는 내면의 상처와 치유의 예들을 통해 우리 내면에 축적되어온 다양한 상처들로 인한 삶의 다양한 단계들에 대해 알아 볼 것입니다. 삼손과 사울, 그리고 엘리와 유다의 삶을 예로 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내면의 상처들을 드러내고 전개시켜 나가는지 고찰해 나갈 것입니다.

조상이야기

이전 세대가 범한 죄들이 현재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미래의 세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창세 4,23-24 참조). 우리는 원죄가 조상으로부터 전래되어진 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죄는 오히려 죽음, 질병, 윤리적인 나약함 등(로마 5,12-17; 1코린 15,21-22 참조) 우리의 본성에 더 관계되는 것입니다(시편 51,5; 애페 2,3 참조). 조상으로부터 전래되어진 죄는 죄 그자체가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물리/유전적 질병들, 트라우마, 우울증과 분노와 같은 감정적 문제, 영적 문제, 약물중독, 성적학대, 강간, 낙태, 근친상간, 사랑 없는 결혼, 억울함, 증오, 살인, 자살 등 그 죄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고 다른 많은 신들을 섭겼던 때의 솔로몬 왕을 떠올려보십시오(1열왕 11,4-11 참조). 솔로몬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왕국은 찢어져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대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그 죄의 영향이 미칠 것이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탄 예언자가 다윗 왕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보십시오. 나탄 예언자는 다윗이 하느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적들에게 영원히 고통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2사무 12,9-10). 설상가상으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 다윗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2사무 12,13-14). 우리 주 예수님이에서도 땅에 쏟아진 예언자들과 무죄한 이들의 피의 값이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마태 23,29-36; 루카 11,47-51).

“모든 죄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 때문에 고통, 질병, 악습으로 향하는 성향, 중독, 무지, 자살 등의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인적인 죄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 때문에 고통, 질병, 악습으로 향하는 성향, 중독, 무지, 자살 등의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상속되어지는’ 육체적 질병과 마찬가지로 ‘상속되어지는’ 영적인 질병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조상의 죄로 인한 영향으로 둘러싸인 상황을 비관해선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흠 없고 티 없는 어린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고 가르칩니다(1베드 1,18-19).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대가 없이 팔려 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이사 52,3). 이 또한 흠 없고 티 없는 어린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써 이루어 진 것입니다(이사 53,7).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속량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무상으로 의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고 우리 주님의 피로써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느님을 적대했지만 하느님께서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1코린 6,20).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돌아서서 우리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부정한 삶을 이미 갚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의 고귀한 피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온 가계도 안으로 흘러들어 왔음을 자랑스러워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바오로 사도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받는 일이 없기 때문”(로마 8,1)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힘을 주십니다(요한 1,12).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악행으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상들의 자녀로 남아 있을지는 순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예루살렘의 거리(조상의 죄를 나타내는 장소로서)를 둘러보게 하셨습니다. 이는 천사들이 단 한명의 의로운 사람이라도 찾아낸다면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간음한 여인들을 포함해 많은 형태의 죄를 지은 이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족보를 정화하시고 예수님의 가계도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족보로 초대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족보 안의 모든 세대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예루살렘의 거리(조상의 죄를 나타내는 장소로서)를 둘러보게 하셨습니다. 이는 천사들이 단 한명의 의롭고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도 찾아낸다면 예루살렘의 죄를 용서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거리마다 쏘다니며 살펴보고 알아보아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는
지 광장마다 찾아보아라. 올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찾는 이가 있어 내가 그곳을
용서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예레미야 5,1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옛 폐허들을 복구하고 오랫동안 황폐한 곳들
을 다시 일으키리라. 폐허가 된 도시들, 대대로 황폐한 곳들을 새로 세우리라”
(이사 61,4) 여러분은 한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주님께서 찾고 계신 의롭게 행
동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까?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령의 영감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부모됨의 의미

진실 된 가족으로 이끌어주는 세 가지 유형의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 안에 있는 남편의 영과 아내의 영은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마음과 마음)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 관계는 육체적인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마태 19,4-6)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머무를 때 일어나는 육체적 관계의 결실은 자녀들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혼인관계 혹은 연인사이에서 영적이고 감정적인 관계는 찾지 않고 오직 육체적 관계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의 결과로 사회 안에 미혼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많은 이유들이 쓰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 사랑은 이기적이고 조건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결혼생활과 완벽한 가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결혼생활이든 예외 없이 삶이라는 도로 위에 파여진 구덩이나 뚜껑 열린 맨홀을 지나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고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결혼생활은 실제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한 사람이 자신과 자라온 환경이 너무나도 다른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은 여성들에게 능력 없는 남자에게는 관대하게 대해선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에페 4,32)라는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많은 여성들은 만약 자신이 좋은 직장이 있고 부유하며 자립할 수가 있다면 게으르고 가난하며 술에 취하고 일자리가 없는 남편과 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모든 아이들이 아버지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에게서 아버지를 앗아가는 것은 한 세대를 향한 죄악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혼을 단호히 배격하시고(말라 2,16), 예수님께서도 이혼이 사람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마태 19,8) 오게 된 것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별거 중인 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로마 3,23) 우리는 반드시 모두를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번이라도(마태 18,22) 용서해야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자기정당성과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증오의 죄입니다. 이 혼은 위선으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성경말씀도 모르고 하느님의 힘도 모르기 때문에(마태 22,29)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결혼생활을 구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히브 13,5).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느님의 계획을 여러분 스스로가 막을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예레 29,11) 계획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결혼하게 되었다면, 배우자에게 하느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구원해야 한다(1코린 7,16)는 바오로 사도의 말은 지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어느 한사람이라도 잃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어떤 이들은 지금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 이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울타리 너머에 있는 풀들이 더 생기 있고 예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울타리 안쪽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풀들에 정성껏 물을 준다면, 또는 여러분 자신의 밭에 더 많은 잔디를 심는다면, 울타리 안쪽의 풀들이 더욱 싱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간단히 지금의 배우자를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갈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더 많은 문제만 양산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녀를 위해 더 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주님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이라는 자녀에게 필요한 부모를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위해 이동해 나가는 것이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길 바라시는 것입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은 두 날개를 펼쳐서 공중에서도 완벽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한쪽 날개를 다치게 되면, 새는 날지 못합니다. 땅에서 이동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시는 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생활의 두 날개입니다. 한쪽 날개가 상처입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결혼생활은 마비되고 무력해집니다. 결혼생활이 도달해야하는 중요한 의미의 높이까지 솟구치지 못할뿐더러,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결혼이 한 부모 가정으로 남겨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마도,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를 맺었던 남자가 여성의 임신사실을 깨닫고 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사생아로 남겨지고, 어머니가 아직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 없이, 그저 육적인 사랑으로 인해 태어나 자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사회부적응자로 성장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결코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간음의 소생들은 크지 못하고 부정한 잠자리에서 생긴 자식들은 망하고 만다. 오래 산다 하여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결국은 나이가 많음도 그들에게는 영예롭지 못하다. 일찍 죽는다 하여도 희망이 없고 심판날에 아무 위안도 받지 못할 것이다.”(지혜 3,16-18)

우리는 자주 한 아이가 한 부모 가정에서 겪게 되는 복합적인 상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이상적인 핵가족의 실패로 인해, 부모들이 새로운 삶의 상황에 순응하기 위해 변화해 나갈 때, 아이들은 또한 자신들이 한때 알았던(혹은 알지 못했던) 부모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들의 부모와의 관계가 변화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버림받기에 고통 받습니다. 이러한 버림받음의 체험은 부모와의 사별보다 훨씬 더 큰 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음의 체험은 화해에 대한 희망과 이 화해가 일어날 만큼 충분히 가치 있지 못한 존재임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안고 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편부모를 돋기 위해 너무나도 빠르게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책임을 짊어집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더 빨리 유년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자신들의 탓이라 생각하며 그에 따른 결과로 어른들이 폐허로 만들어버린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무를 짊어지게 되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이 거짓된 전제에서부터 시작하기에 좀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데서 오는 실패의 감정에 압도당할 때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의 결혼생활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노력하고 또 노력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1베드 5,8). 악마는 이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류로 남아있습니다. 악마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보이지만, 진짜 으르렁대는 사자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이시며 다윗의 뿌리이신(묵시 5,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초대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 입구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묵시 3,20).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들어오시도록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요한 10,10).

임신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는 길은 사랑 또는 욕정, 이 두 가지 길 뿐입니다. 임신의 순간에 부모가 가지게 되는 마음가짐(사랑 또는 욕정)과 정신적인 상태(두려움, 증오, 슬픔, 만취 등)는 태어날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수많은 감정적 상호작용들이 이 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가 가지는 육체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 상태는 이제 막 임태되어진 아기의 행복에 영향을 줍니다. 이는 성경말씀대로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요한 3,6). 아이들은 혈통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요한 1,13) 부모가 자녀에게 진실 된 사랑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부모들은 진실 되고 성숙한 마음가짐과 자녀를 가지겠다는 동의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고(1요한 4,8),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혈통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에게서 난 아이는 누구든지 하느님의 본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본성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갈라 5,22-23). 영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부부는 자신들의 결합에 하느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실 된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이 사랑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부터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만 합니다. 이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동참하는 결합에 들어가기에 앞서, 부부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하느님께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주시길 간청해야 합니다. 천지창조 이전부터 여러분의 남편/아내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면, 여러분은 육욕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배우자와 결합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부부가 함께 나이 들어가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토빗 8,4-7)

토비야와 사라의 이야기를 보면, 이 두 사람이 그 시대의 전통에 따라 얼마나 정의롭고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토빗 7,9-13) 이는 부부가 될 여러분이 성당에서의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될 때에라야 비로소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가 효력을 가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이전에는 결코 육체적이고 성적인 결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결혼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과 도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혼인은 보이지 않은 하느님의 은총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사입니다. 성사는 하느님의 은총이 성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흘러들어오는 경로입니다. 혼인 외적인 관계는 어느 것이라도 하느님의 은총이 흘러들어오는 경로를 막아버립니다.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합법적인 결혼, 곧 혼인성사 안에서의 결합을 통해 잉태되어지는 아이들입니다.

대부분의 시대에 부모들이 이 마음가짐과 정신적인 상태를 적절히 유지해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 안의 악한 것들을 선한 것들로 바꾸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려 왔습니다. 이 어머니와 세 자녀들은 몇 일째 한 끼도 먹지 못했고 다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직장도 없거니와 집세도 밀려있었고 아이들 학비는커녕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보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남편이 없었고 그 어떤 남성들도 이 여성과 결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악의 길로 어리석게 된 자들 자기들의 죄로 괴로움을 겪었다”(시편 107,17). 생각해보십시오. 이 어머니는 아주 열심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물론 성윤리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어머니는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머니 자신과 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어머니에게 왜 자꾸만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게 되는지 질문을 하자, 이 어머니는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 희망했기 때문이라 답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런 생활 안에서 어떻게 자신을 하느님의 뜻(하느님의 계명)을 잘 헤아리고 종교생활(예비자교리, 세례성사, 영성체, 견진성사, 혼인성사)을 잘 이행해온 충실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자녀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오로 사도는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스스로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대는 자신을 유다인이라고 부르면서 율법에 의지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며, 율법을 배워 하느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줄 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눈먼 이들의 인도자이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의 빛이라고 확신하며,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진수를 터득하였으므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이며 철없는 자들의 선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르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니?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그대는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그대는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혐오한다고 하면서 왜 그대는 신전 물건을 훔칩니다니?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그대는 율법을 어겨 하느님을 모욕합니까?”(로마 2,17-23).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중대한 내적 상처를 간직하게 될 수 있습니다.

- 혼인 없이 태어난 아이들
- 미혼모의 아이들
- 증오와 만취 상태에서 임태된 아이들
-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들
- 성매매로 태어난 아이들
- 어머니가 아직 학업 중인 상태(고등학교)에서 태어난 아이들
-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
- 혼외자와의 간음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
- 일부다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갈라 5,19-21).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시간에 항상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세속적이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예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루카 1,5-17), 사무엘 예언자(1사무 1,20-28),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루카 1,26-31)께서 그 예가 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불행하게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아기들을 통해 당신의 전능하신 구원사업을 펼치십니다(루카 7,28; 1사무 3,19-21; 루카 1,32-33 참조).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이름을 지어 주셨듯(이사 49,1),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께 선택되었다는 사실(에페 1,4)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들의 은밀한 죄악이 자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버지들의 은밀한 죄악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한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소년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탄자니아의 수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부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유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한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활동 과잉의) 6 살된 자녀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신부님, 이 아이는 제 유일한 자식인데, 주님께서 이 아이

를 통해 저에게 별을 주시나 봐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사들은 제 아이가 치료될 수 없다고 말해요.”라고 말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하던 중에,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불경한 아버지를 비난한다. 그 아버지 탓에 자신들 이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다”(집회 41,7). 남편은 외진 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 곳에서 많은 어린 소녀들을 고용했습니다. 이 남편은 소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들에게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이 외진 곳에서 저지른 남편의 죄가 자신의 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픈 채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부정한 잠자리에서 생겨난 자식들은 재판 때에 부모가 저지른 죄악의 증인이 된다.”(지혜 4,6) “간음의 소생들은 크지 못하고 부정한 잠자리에서 생긴 자식들은 망하고 만다.”(지혜 3,16) 저는 이 부부에게 회개를 권했고 다음의 말씀을 한 달 동안 매일 10번씩 반복해서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내 원수야, 나를 두고 기뻐하지 마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둠 속에 앉아 있어도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미카 7,8)

이후에 이 부부는 자신들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학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태 안에서

내면의 상처들은 아기가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며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왜 이리도 부끄러움이 많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원인을 찾다보니 이 소녀의 어머니가 대학에 다닌 시절 이 소녀를 임신했던 때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임신사실을 숨기기 위해 혈령한 옷만 입고 걸음걸이를 바꾼 채 학업을 계속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의 수치감이 태중에 있던 아기에게 전달이 되었고 딸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병적인 분노를 보내며 성장해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의 어머니가 이 남자를 임신했을 때, 부부는 자신들이 아직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낙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부부의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부모가 자신이 태어나길 원치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부모에 대한 조절할 수 없는 분노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모세 이야기

성경이 들려주는 모세의 이야기(탈출 1,16-22)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모세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자들이 해산할 때, 밑을 보고 사내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명을 내렸을 때 잉태되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했기에 파라오가 명한대로 하지 않고 사내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산파들을 잘 돌보아주시고 그들의 집안을 일으키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해서 강대해졌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임신 사실을 숨겼습니다. 만약 잉태된 아기가 사내아이라면 이집트인들이 아기를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

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파라오가 내린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분노, 긴장, 걱정, 불필요한 스트레스 등 거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모세가 잘생긴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을 때까지 세 달간 숨겨서 키웠다는 사실(탈출 2,2-3)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모세의 어머니가 세운 구출 계획은 왕골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는 것 이었습니다. 아기 모세가 경험해야 했던 그 트라우마가, 어둡고 냄새나는 상자에 훌로 남겨진 채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젖을 먹지도 못하는 그때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파라오의 딸이 울고 있는 히브리 사내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탈출 2,6). 안타깝게도 모세는 두려움과 함께 다른 많은 내면의 상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자신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데도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도 않을뿐더러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 대한 의심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하느님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고 청했습니다. 모세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도 그러하듯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자신의 입과 혀가 무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과의 말씨를 과정 안에서 모세는 자신의 형 아론이 모세 자신이 혼자서 떠맡아야 할 이 임무에 참여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도록 했습니다(탈출 4,1-17 참조).

모세는 분노조절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딸에게 입양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어머니의 젖이 필요한 갓난아기였고, 파라오의 딸은 모세에게 젖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파라오의 딸은 어미가 아기에게 젖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니의 가슴 안에서 아기가 느끼는 사랑과 보살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파라오의 딸은 차선책을 택했고 히브리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대신에 모세에게 젖을 주도록 하였고 그에 대한 삶을 지불했습니다(탈출 2,9). 사실 이 히브리 여인은 모세의 친어머니였고, 모세의 친어머니는 진즉에 이 사실을 모세에게 들려주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파라오 딸의 아들로 지내는 동안 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모세가 자란 뒤, 자기 동포들이 있는데로 갔다가 그들이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충분히 성장한 모세는 한 이집트인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모세는 그 이집트인을 때려죽이고서 모래 속에 묻어 감추었습니다(탈출 2,11-12). 모세는 분노로 인해 사람을 죽였고 도망을 쳤습니다.

모세가 아직 아이였을 때, 내면의 상처가 점점 커져가는 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 내면의 상처들 중 일부가 악영향을 미쳐 모세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를 어머니 벳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랑하셨으며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그를 지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파라오의 딸이 모세가 히브리 아기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 후에도 이집트인들이 모세를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편안하게 살았으며 그 어떤 제재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곳을 드나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민족 여인과의 혼인을 강하게 거부하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민수 12,1)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찾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임무를 주시기 위해 그를 부

르셨을 때, 모세의 잘못을 장애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나약함(내면의 상처들)을 장애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와 같은 나약 함들을 우리의 장점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세상을 향한 당신 사랑을 위해 사용되어질 가치 있는 도구로 만드실 수 있으시며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곧, 우리가 하느님 체험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반드시 제거 되어야 하는 것. 모세에게는 병적인 분노)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의 의지에 온전히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머니의 태 안에서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들

지금까지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너무 집중해 왔고, 긍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가지는 선한 감정들 또한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식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바이올린을 아주 잘 켜는 4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바이올린 켜는 것을 지켜보고 듣는 이는 누구나 할 말을 잃고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이 소년의 어머니는 음악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의 아버지는 이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동안 자주 직접 바이올린을 연주해 들려주곤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음악, 특히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바이올린에 숙달된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임신을 해서 볼록 튀어나온 아내의 배 바로 앞에서 멈추지 않고 연주를 했습니다. 성녀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인사말을 듣자마자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종의 아기(세례자 요한)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현존하심에 응답하기 위해 아기 요한은 즐거워 뛰어놀 수밖에 없었습니다(루카 1,44). 무엇보다도 세례자 요한은 어머니의 태종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가득 찼습니다(루카 1,14).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말라 3,23) 주님께서 보내신 구약성경의 불의 예언자 엘리야의 역할로 뽑혔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닦기 위해 하느님의 사자로 파견되었던 엘리야 예언자(말라키 3,1-2)의 영과 힘으로 가득 찬 체 태어났습니다.

자살의 감정

“그분께서는 깊은 바다와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시고 그 술책을 꿰뚫어 보신다. 사실 지금 히 높으신 분께서는 온갖 통찰력을 갖추시고 시대의 표징을 살피신다. 그분께서는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을 알려 주시고 숨겨진 일들의 자취를 드러내 보이신다. 어떤 생각도 그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분 앞에는 말 한마디도 숨길 수 없다”(집회 42,18-20).

“신부님, 제 딸이 계속 자살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제 딸은 살고 있다는 느낌이 없고, 버림받았다는 기분과 허무함만을 느끼고 있어요. 도대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이상한 감정들을 덜어내 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딸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잠깐 동안만 나아질 뿐 금세 이전과 똑같아져요.” 이 소녀를 위해 기도를 하면서 저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뱃속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머니는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라고 말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날에 남자친구가 저를 버렸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고 저보고 자살하라고... 저랑은 끝났다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저와 제 아기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죠. 왜 살아야하지? 저는 부모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생각했죠. 로프를 가져다가 나무 위에 묶었어요. 그리고 로프에 목을 매었죠. 그런데 나뭇가지가 부러졌고 저는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요. 길 가던 착한 사람이 저를 병원에 데려다줬고 제가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줬어요. 그때 이후로 전 한 번도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딸을 낳았고 최선을 다해 길렀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할 때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까?”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네...”라며 답했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용서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어머님을 자유롭게 하시도록, 어머님과 딸이 하느님의 거룩한 자비로 치유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머니의 감정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 저를 엎으셨습니다. 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조물들은 경이로울 뿐. 제 영혼이 이를 잘 압니다.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제가 땅 깊은 곳에서 짜일 때 제 뼈대는 당신께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태아일 때 당신 두 눈이 보셨고 이미 정해진 날 가운데 아직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당신 책에 그 모든 것이 쓰였습니다”(시편 139,13-16). “그러나 당신은 저를 어머니 배 속에서 이끌어 내신 분 어머니 젖가슴에 저를 평화로이 안겨 주신 분. 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시편 22,10-11) 기도를 통해 소녀는 거부당함의 감정과 자살하고자 하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출산의 때

방금 전 우리는 한 어머니의 감정이 어떻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영향을 주는지 보았습니다. 비슷하게도, 한 아버지의 감정들 또한 태아에게 영향을 줍니다. 아버지 또한 임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한 피정에서 어느 젊은 여성의 내면의 치유 시간동안 자신이 보게된 환시에 관해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환시에서 이 젊은 여성은 아기가 눕혀져 있는 아기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이 아기를 보자마자 이 남성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은 처음에 이 환시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했지만, 이내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언제나 거리감을 느껴 왔고, 자신이 아버지 가까이에 가기 쉽지 않았음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신을 인지했습니다. 곧 이 젊은 여성의 부모님이 아들을 강하게 원했었다는 사실과, 이 여성의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세 명의 딸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의 부모님은 아들을 갖고자 다시 한 번 임신을 시도했지만, 이 여성은 임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아들을 원했던 아버지는 너무나도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딸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실망감을 드러내며 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딸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아버지로부터 거절의 감정을 느껴오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내면의 치유시간 동안 모든 부당한 것들(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이 젊은 여성의 자신의 아버지와 힘든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가지는 거부의 감정을 치유받았고 아버지와의 관계 또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둘러싸고 있는 사건들을 보도록 합시다.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즈다르야는 주님의 천사가 전해준 하느님의 메시지에 의심을 품었기에 병어리가 되었습니다(루카

1,20). 세례자 요한이 태어난 후, 즈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아기의 이름을 쓰고 난 뒤에야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하느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이웃은 모두 두려움에 흡싸였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 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습니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이 아기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입니다(루카 1,63-66). 이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루카 1,80). 적당한 때에 세례자 요한은 유다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마태 3,1-3; 루카 3,3-4).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그 길을 곧게 내어야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러한 역할은 이미 수년 전에 그의 아버지 즈카르야가 말했던 것입니다. 즈카르야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 같은 말씀을 예언했던 것입니다(루카 1,67.76-77).

새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부모의 첫 번째 거부는 아기의 미래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부모가 내어 보이는 사랑의 몸짓이야말로 아기에게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아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 하나의 소통수단은 바로 사랑 가득한 손길로 아기를 안고 쓰다듬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은행에서 근무하는 34살의 한 여성은 결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말했습니다. “저는 남자들에게 어떠한 감정도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만약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 결혼은 실패할거예요. 제가 남자들을 경멸하거든요.” 이 여성의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유명한 상담가에게 상담도 보내보았습니다. 상담도 아무런 소용이 없자 마침내 이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 여성을 위해 성경을 펼쳤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이 저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저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희 아버지시고 예로부터 당신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이사 63,16). 저는 이 여성에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이 여성은 아버지와의 관계는 지극히 정상이라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를 이어가며 이 여성의 딸과 한 명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네 번째 딸이었고 아들은 가족의 막내였습니다. 이 여성과 막내 동생은 겨우 한 살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 여성의 부모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고, 이 여성의 네 번째 딸로 태어났을 때 부모로부터 거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 명의 딸이 있는 가정에서 기대하고 있던 아들이 아닌 딸이었기에 이 여성은 간접적으로 거부감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부는 그녀 안에서 자기혐오로 발달하게 되었고, 이 여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딸이 아닌 아들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의 태어난 순간부터 증오의 영이 이 여성 안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여성은 모유수유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가 이 여성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을 임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성에게 하느님께서 우리의 유아기 때 우리가 잊어버린 사랑과 관심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어머니이심을 설명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실 수 있으십니다. “너희가 그 위로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리라.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가슴에서 젖을 먹어 흡족해지리라. 주님

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민족들의 영화를 넘쳐흐르는 시내처럼 끌어들이리라.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안겨 다니며 무릎 위에서 귀염을 받으리라.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이사 66,11-13). 지금 이 여성은 결혼을 했고 네 명의 자녀를 둔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유아기와 유년시절

사람은 유아기와 유년시절에 부모들 자신이 아기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계속해서 필요로 합니다. 또한 부모는 아이가 기도생활을 살아가는데 책임이 있고 부모의 지속적인 기도는 아이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이 시기는 아이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삶의 기본적인 근본 원칙들이 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그 어느 순간에도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부당하고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모유수유를 하는 동안 어머니와 아기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가 형성됩니다. 이 유대는 아기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그리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합니다. 아기가 젖물림을 거부당했을 때,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모유는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육하기 위한 필수적인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유는 소아기 질병을 예방하는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신체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러한 필수적인 인간적 요구들이 거부당하게 되면, 이 필수적 요구들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혐오에 빠진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필요로 하던 유아기 때, 동생이 태어나는 바람에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이 소녀는 자라서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으려 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애가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애가의 저자는 유아기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채 성장한 이들을 빚을 잊은 황금과 변해버린 순금으로, 그리고 거리 모퉁이마다 흘어져 있는 거룩한 돌들(버림받고 굽주리고 죽임당한 아이들)로 묘사합니다. 또한 애가의 저자는 금으로나 값은 매길 수 있던, 너무나도 소중한 시온의 아들들이 질그릇처럼 여겨져 뭉개지고 더 이상 복구되지 못하는 상황을 전해줍니다. 애가의 저자는 백성을 딸이자 젖먹이 딸린 어미에 비유를 하는데, 이 어미는 사막의 타조처럼 매정해 자녀에게 젖을 물리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젖먹이는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어린 것들은 뺑을 달라고 애원하지만 그 누구도 이들에게 뺑 한 조각 주는 이가 없습니다.

사무엘 예언자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주님께 청을 드려 얻었기에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내가 주님께 청을 드려 얻었다”라는 뜻)이라 짓습니다(1사무 1,20). 남편 엘카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주년 제사와 서원을 드리러 올라가는데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남아서 아이를 돌보고자 했습니다. 아이가 젖을 뗄 때라야 한나는 아이를 데려가 주님께 보이고 자신의 아이를 영원히 떠나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한나의 이 아름다운 결정은 남편인 엘카나의 동의

를 얻었고 한나는 집에 남아 아이가 젖을 뺄 때까지 아이를 보살폈습니다(1사무 1,21-28). 한나는 자신의 태 안에 열린 첫 번째 열매(첫 아들)를 통해 이 희생을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한평생 나지르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민수 6,2; 1사무 1,11 참조). 이렇듯 사무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랑하는 법과 하느님을 공경하는 법을 교육받았고 ‘하느님의 총애’를 받고 무력무력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1사무 2,26).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의 유년시절사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유년시절에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루카 2,40)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하지 못한 부부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주 싸우고 다투는 부부
- 가끔씩이라도 별거를 하는 부부
- 서로에게 무관심한 부부
-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부
- 부부 중 한쪽이라도 결혼생활을 이어가길 원치 않는 부부
- 서로 외도를 하는 부부
-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부부
- 자녀의 학교등록금 지불을 거부하는 부부
- 자녀의 ‘친부’문제가 거론되어지는 부부
- 어느 한쪽이라도 자녀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부부
- 친인척과 다투고 논쟁하는 부부

(1코린 7,14-16 참조)

결혼생활 안에서의 문제들은 어린 나이의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녀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구별을 하지 못하는 아직 어린 때에, 부부가 남편과 아내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자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작고 어린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언어는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서로를 증오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준다면, 자녀의 영혼 안에 증오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이고 자녀는 두려움과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이혼이야기를 한다면, 자녀들은 깊은 불안정함의 감정 속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내면의 상처들은 건강하지 못한 결혼생활 안에서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들입니다.

결혼생활 안에서

때로 우리가 삶에서 받아 온 상처들은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 결혼생활에 헌신하고 있는 순간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은 한 몸이 되고 각자가 살아온 삶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 관대한 여인이 아주 구두쇠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여인도 점차적으로 구두쇠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남편이 관대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친근함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의 악습을 닦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언젠가 남편이 알코르중독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상담

을 하는 동안 우리는 이 아내가 결혼 직후부터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지만 아내에게는 파티에서 즐길 때만 술을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남편이 집을 비울 때면 아내는 어김없이 술을 마셨고 곧 중독이 되었습니다. 이내 아내는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상담 중에 이 아내는 자신의 가족 중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자신이 술꾼이 되었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결혼은 강력한 유대를 형성하기에, 서로가 주는 영향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 여성의 자신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다면, 이 여성은 결혼 이 후에도 그 사이가 계속 좋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은 삶의 연장이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 이상 그 상처는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성의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이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 대신 시어머니와의 관계 안에서 그 상처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혹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들 역시 태 중에 있는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소년은 이유도 없이 자신의 친척들을 증오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소년이 가진 증오가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 심어졌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어머니는 자신을 근거 없이 비난했던 모든 친인척들을 향한 깊은 증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가족이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이사를 가야했지만 아내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이사를 가는 곳이 살기에 훨씬 좋고, 남편의 새로운 직장도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아내로부터 남편이 자신에게 그 어떤 보살핌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했을 때조차 남편이 아닌 이웃들이 이 여성의 병원에 데려다주고 간호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오로지 자신의 직장과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을 따라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면 그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결국 자신이 완전히 고립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에게 관심과 보살핌을 주는 이웃들의 곁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내는 결혼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 고통받아왔고 불안정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예시: 삼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영혼을 고무시키는 구약성경의 영웅들을 찬미하는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많은 인물들 중에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와 같은 인물들은 여기에 언급되는 것이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라합, 입타, 삼손과 같은 인물들은 흔히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이 찬사를 받는 이유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판관, 삼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관기 13장은 우리에게 삼손의 출생을 둘러싼 배경을 소개해줍니다. 삼손은 마노아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 아기의 출생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수행할 임무와 삶의 방식 또한 전해주게 됩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하느님께 봉헌되어진 나자르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필리스티아인의 손에서 이스라

엘 백성을 구해내기 시작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판관 13,5). 마노아는 이 임무가 너 무도 걱정이 되어서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기를 청하기까지 했습니다(판관 13,12).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습니다. 아이는 자라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판관 13,24-25). 그렇기에 우리는 삼손이 가지는 출생의 배경과 아이일 때 하느님께 받은 축복을 고려해, 삼손의 삶이 하느님께 신실한 이의 삶들처럼 빛날 것이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삼손이 주님의 백성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어야 한다는 자신의 임무를 온 마음으로 받아 안고 등장했음에도 그의 삶은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 가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된 삼손은 자신이 주님께 특별히 봉헌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에 삼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어떤 필리스티아 여인을 보고는 푸 빠져버려서 자신의 부모님에게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해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삼손은 이를 반대하는 부모에게 뻔뻔함으로 응수하며 자신이 원하는 여인은 이 여자뿐이니 아버지로 하여금 이 여인을 데려와 달라고 청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이스라엘 민족의 원칙을 거스른다는 사실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은 이때부터 창녀의 집을 드나드는 탐욕스러운 생활을 이어나갔고(판관 16,1), 비록 시작 때부터 들릴라가 가진 의도를 알 수 있었음에도 삼손은 들릴라에게 푸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삼손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중요시 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어린시절에 받았던 가르침대로도, 나지르인으로서도 살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모의 노력에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삼손은 더 이상 자신이 하는 일을 부모에게 보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판관 14,6.9). 한 때, 삼손은 홀로 길을 걸어가면서 사자의 시체에서 손으로 꿀을 퍼서 먹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성들에 대한 삼손의 나약함은 비밀을 지키는데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투에서 얻게 된 승리는 이러한 자신의 나약함에 크게 기인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에게 배신을 당하는 두 가지 경우들(판관 14,17;16,17) 모두, 삼손에게 커다란 분노를 일으킵니다(판관 14,19;16,28.30).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망친 모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홀로 싸우게 되더라도 적들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군대를 이끌지 않았고 홀로 적들을 맞섰으며, 그렇기에 삼손의 승리는 오로지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우리에게 하느님께 힘과 당신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필요한 신념의 요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승리를 베풀셨습니다” -판관 15,18

하느님께서는 삼손으로 하여금 필리스티아인들의 시대에 스무 해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판관 15,20.31). 자신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삼손은 하느님께 부르짖었고, 믿음 안에서 진실로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삼손은 죽음의 순간에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 무찔렀던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보다 더 많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목숨을 앗아갔던 것입니다(판관 16,30). 이 안타까운 젊은 기도 안에서 삼손이 자신을 5번이나 언급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삼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삼손의 생애는 그자체로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했었기 때문입니다(판관 21,25). 아이러니한 것은 삼손이 자신의 눈에 옳다고 생각했기에 행했던 이 모든 불순종의 행위들로 인해 하느님께서는 삼손의 적들이 삼손의 눈을 뽑아버리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나약함으로 육적인 죄를 범하였지만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삼손이 도움을 부르짖을 때마다 언제나 응답해주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육적인 죄를 범하였지만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삼손이 도움을 부르짖을 때마다 언제나 응답해주셨습니다. 이는 삼손이 나약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느님께 봉헌한 삶에 있어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삼손은 신성을 모독하고 육체의 충동에 빠졌지만, 그때마다 뉘우쳤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결론지울 수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느님을 믿지 않는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싸움을 시작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삼손이 육체적으로 강인한 만큼 영적으로도 강인했다면, 이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나약한 인간을 택하여 당신의 거룩한 계획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놀라운 예시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한 때에도, 당신의 계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잊었다 할지라도 당신의 계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에제 16,60)

두 번째 예시: 사울 왕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아닌 어떻게 끝맺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속담으로 그 인생이 요약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시작은 좋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성공적 수단들을 통해 존경할 만한 인물들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삶의 본보기로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을 허물어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하는 질문은 보통 “좋게 시작한 삶들이 어떻게 통제를 벗어나 소용돌이 칠 수 있는가?”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엉망으로 되어 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인물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특정한 임무를 맡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시로 사울 왕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주었던 예언이 성취됨으로써(신명 17,14-15)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고 자신들을 대신해 모든 결정을 내려줄 크고 힘세며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1사무 8,20). 이들의 왕은 사무엘 예언자가 경고한대로 사람들을 통치함에 있어 주인인체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권한과 막중한 책임을 가질 운명이었습니다(1사무 8,10-18). 사무엘은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언짢았지만, 하느님의 지시대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1사무 8,6-7). 사울과 사무엘의 첫 번째 만남에서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귀들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줄 선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만남에서 사울은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을 드러냅니다(사무 9,21). 마침내,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며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1사무 10,1).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후 그에게 일어날 표징들을 미리 말해주었습니다(1사무 10,2-7). 이 표징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울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1사무 10,6).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울의 삼촌이 사울에게 도대체 어디에 있었냐고 질문했을 때, 사울은 자신이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침묵했습니다(1사무 10,16). 이것이 사울의 겸손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침묵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한데 모아 사울이 임금으로 뽑혔음을 발표하는 때에도 되풀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몸을 짐짝사이에 숨겼기 때문입니다(1사무 10,20-22). 사울은 백성들에 앞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임금으로 뽑혔다는 사실을 사무엘 예언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이 영예와 권력을 바라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울은 자신이 임금으로 뽑혔다는 사실을 반박하거나 거절하고 이 사실로부터 도망칠 권리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쉽은 지도자에게 결단을 내릴 것과 자신을 둘러싼 영예가 자신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직무 때문인지를 구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도자는 결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이 몰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에 이어질 내용에서는 하느님께 선택되어져 기름부음을 받은 사울이 자신의 삶을 망쳐버리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 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울이 걸려 넘어진 그 걸림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자기 연민

사울이 사람들 가운데 섰을 때, 그는 신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1사무 10,23-24). 사울은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었고, 시작도 좋았습니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느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주신 용사들도 사울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불량한 자들이 사울을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1사무 10,26-27). 사울은 이러한 모욕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울은 분명 상처받았습니다! 사울 안에 자리잡은 이 상처는 그의 2년간의 통치기간 동안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염되었습니다. 한 달 후, 사울은 왕권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암몬 사람들과 싸워 이겼으며 길갈에서 왕정을 새롭게 다졌습니다(1사무 11,14-15). 자신을 업신여긴 이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울은 겸손한 자세로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웠고 자신의 지도력을 견고히 했습니다(1사무 11,12-13). 사울은 백성들과 함께 위대한 승리를 일궈내었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하느님의 기쁨이 아닌) 백성들의 기쁨만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 하느님이 아닌 사람의 비위를 맞춤

사울의 선천적인 것처럼 보이는 겸손함은 백성들이 필리스티아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위되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저마다 굴이나 덤불이나 바위틈, 또는 구덩이나 웅덩이를 찾아 몸을 숨겼습니다(1사무 13,5-6). 군사들은 모두 사울의 뒤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었고,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이례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길갈에

오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은 사울 곁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사울은 번제물을 바쳤고(1사무 13,9) 이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한심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이 순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1사무 13,11-12). 하지만 사울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자신이 행한 불순종으로 인해 비난을 듣게 되었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왕국이 더 이상 서있지 못할 것이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에, 주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어, 당신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1사무 13,11-12). 이 일 이후에 사울이 저지르는 모든 실수들은 제 눈에 옳은 것만을 찾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데서 오는 결과들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갈라 1,10).

3. 동료의 압박

사울이 자신의 실수로 인해 처하게 될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느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그가 하느님께 돌아섰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 체면치레를 할지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준비도 되어있지 않으면서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사력에 맞서기 위해 전투를 서둘렀습니다(1사무 13,15-22). 사울이 가진 결점은 날마다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는 사울이 이스라엘 군사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할 때에도 드러나고 있고 결국 이 맹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느님께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1사무 14, 24-35), 사울은 너무도 뼈碜하여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사울 자신을 통해 사라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울은 제단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제단 위에서 동물들을 잡게 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 번 사람들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은 더 많은 필리스티아인들의 피를 흘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1사무 14,36).

4. 자기 정당화

이 불행한 사건 중에서도 최악은 바로 사울이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리품들이 하느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1사무 15,10-13.26).

사울이 이 모든 악행의 근원에 대해 알고 있었을 지가 궁금하다면, 저는 “그가 알고 있었다”라고 답하겠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군사들이 두려워서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 주었음을 사무엘 앞에서 시인했습니다(1사무 15,24). 사울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까? 네.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에게 요청했지 하느님께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1사무 15,25).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사울을 그 자리에서 바로 당장 끌어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순간들에서도, 사울은 다윗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과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될 것만 두려워했습니다(1사무 18,8-9.15-16.30).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처 때문에, 왕권이 사람이 아닌 하느님에서 온다는 사실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자신의 통치기간 대부분을 다윗을 시기하는데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1사무 18,29). 통치 말기에 사울 왕은 백성에게 봉사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가진 운명 또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더 많은 시간과 힘과 재산을 자신이 거두었던 성공에서 오게 된 것들을 굳건히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다윗을 시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울은 결국, 다윗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인해 자신의 군대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무너지도록 했고, 요나단을 포함해 자신의 모든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점쟁이를 찾아가는 더 큰 불순종을 행했고 이는 사울이 단지 하느님께서 이미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셨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는데 그치게 했으며(1사무 28,17-19), 그 어떤 점쟁이도 이를 뒤바꾸지 못했습니다. 약속이 보장되었던 사울의 생애는 수치스럽게 막을 내렸습니다(1사무 31,4-10). 사울 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적으로 가지게 되는 내면의 상처가 자기 정당화로 이어져,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계획하신 당신의 목적과 이를 위해 우리에게 부여하신 직무(기름부음)로부터 우리를 멀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시: 엘리

엘리의 나약함과 잘못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하느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시고 직무를 맡기신 엘리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수행을 실패하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엘리가 가진 나약함과 잘못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엘리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기록들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로마 15,4).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주를 잘 하고 있다가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사제이자 판관이었던 엘리(1사무 2,12~)를 떠올려봅시다. 엘리는 하느님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높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느님께 선택되어진 사제로서의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고, 최고의 사법적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엘리는 하느님의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기에,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엘리는 하느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임명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가정을 다스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가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평화와 안락함을 원했고 자신의 자녀들이 행하는 악습과 욕정을 고쳐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제지하거나 벌하는 대신에, 자녀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녀교육이라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책무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이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하느님께서 관대하게 맡겨주신 자녀를 다스리는 책무에 대하여 엘리가 알지 못했을 것이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1사무 2,22-24). 엘리는 단순히 자신의 책무로부터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유는 엘리가 자신의 책무로 인해 자녀들의 뜻을 거스르고 자녀들에게 벌을 내리게 될 것과 이로 인해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해왔던 자녀들을 부정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1사무 2,25). 엘리는 이로 인해 자신의 집안에 일어나게 될 결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자신의 자녀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렇게 엘리는 자신의 자녀들이 하느님의 백성을 섬기고 삶의 의무를 지켜나가도록 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등한시했던 것입니다(1사무 2,12-17).

자녀를 바로잡는 일의 실패

이미 우리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이의 아버지가 되도록 뽑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아버지로서) 자기 자식들과 뒤에 올 자기 집안에 명령을 내려 그들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도록 명받았습니다(창세 18,19). 엘리는 사무엘이 하느님을 공경하도록 하는 일에는 정말 훌륭했지만, 정작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휘둘리고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의 삶은 악행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느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느님의 법이 가지는 거룩함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자녀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직무를 평범한 일로 전락시켰습니다. 비록 하느님의 제단과 그곳에서 행해지는 봉사의 거룩함에 익숙해지면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자녀들은 이에 대한 거룩함과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악인 것은 이들의 아버지인 엘리가 권위에 대한 존경만을 원하는 자녀들을 바로잡지 않았고, 제단에서의 봉사를 경시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느님께 부정한 제사를 바치도록 내버려 둔 엘리

성인이 되어가면서 엘리의 자녀들은 회의론과 반항의 끔찍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거룩한 직무에 절대적으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자신의 자녀들이 하느님의 제단에서 사제로서 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이 상징적인 봉사의 엄숙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직무를 사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말입니다(1사무 2,16). 주님의 제물을 업신여기는 이들의 행동은 주님께 대한 봉헌이 가지는 거룩함과 엄숙함을 잊게 하고 백성들이 주님께 올리는 봉헌을 질색하도록 만들었습니다(1사무 2,17). 만남의 천막은 이들의 행위로 인해 끊임없이 더럽혀졌습니다. 백성들은 소위 사제라 불리는 이들의 악행에 크게 분노하였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 올라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이 더 대담하게 죄를 짓게 되면서, 하느님께서 특별히 성별하신 그 거룩한 직무는 악한 이들의 죄로 인해 멸시받고 경멸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도덕함, 부패, 우상숭배가 지속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거룩한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행하는 이러저러한 잘못을 눈감아주었고, 자녀들의 죄에 무감각해져서 자녀들이 엘리로 하여금 더 이상 자녀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못 본 체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엘리에게 몰려와 자신의 아들들이 저지른 폭력적인 악행들에 대해 불평했을 때, 엘리는 이로 인해 너무 비통하고 아팠으며 대사제로서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도록 했고, 엘리의 자녀들은 이제 그 누구도 돌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슬픔을 보았지만 이 슬픔은 자녀들의 굳어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1사무 2,25). 이와 같은 엘리의 가벼운 경고는 자녀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고 자녀들이 악행으로부터 돌아서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을 정의로 다스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사제직무를

박탈당하고 별을 받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대중적인 망신과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 자신이 가진 가장 성스러운 지위로 자신의 아들들의 뒤를 봐주었습니다. 엘리가 하느님께 봉사하는 직무에서 아들들에게 허용했던 부패는 진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스라엘의 판관 엘리가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이 일에 관여하시어 엘리의 집안을 위해 주신 당신의 약속을 거두어들이셔야만 했습니다(1사무 2,30).

하느님보다 자신의 자녀들을 더 사랑한 엘리

엘리는 자녀들을 향한 눈먼 애정으로 인해 상처받았습니다. 엘리는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해드기 보다는 자녀들의 명성을 보호하는데 더 열정적이었으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자신의 직무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기보다 자신의 자녀들을 기쁘게 하기를 더 원했습니다. 엘리는 먼저 온화한 조치를 통해 자녀들의 악행을 제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통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수단들을 통해 자녀들의 악행을 제지해야만 했습니다. 죄를 꾸짖지 않고 죄인에 대해 정의를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해 엘리는 이스라엘이 순결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엘리는 더 이상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엘리가 늙고 몸이 무거웠다는 사실(1사무 4,18)을 고려해 볼 때,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행해 온 방종과 사치에 관여를 했거나 적어도 이를 승인해줬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하느님께 봉사하는 사제의 직무에 전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선을 일궈내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해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자신이 맡은 직무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의 악행을 관대히 여김으로써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 간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분노로부터 자신의 아들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족들이 거의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 하늘이 제공해 준 그 뜻을 무시하고 경멸했을 때, 그리고 하느님을 수치스럽게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히브 6,6). 엘리는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에 자녀를 바로잡고 그들을 올바로 훈육하는데 실패하는 것이 부모가 늙었을 때, 자녀로부터 거부와 반항, 그리고 불순종, 무례함과 다른 많은 상처를 얻게 될 것이라 가르칩니다.

우리는 회개의 힘이 어떻게 우리가 내적 치유를 받도록 이끄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유다가 악한 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선하신 주님께 돌아섰을 경우에 대한 상상을 시도해 볼 것입니다.

유다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섰더라면

회개를 통해 내적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중 한 사람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다수가 갈릴래아 출신인 반면, 유다 이스카리옷은 유일하게 유다지방 출신입니다. 유다는 스스로 몇 가지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는데, “배신자”(루카 6,16),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마태 10,4; 마르 3,19),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요한 17,12), “제 갈 곳으로 가버린” 자(사도 1,25) 등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도로 뽑힌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호칭들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 정답은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를 뽑아 세우시는 사건 안에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열 두 사도를 뽑아 세우신 후,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는데,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마르 3,20).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불잡으러 나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했습니다(마르 3,21-22).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도로 뽑히자마자 유다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이 독특한 사도단의 한 사람으로 뽑혔다는 것,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떼 지어 몰려오는 커다란 군중을 끌어들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잠재적인 정치권력과 영향력, 그리고 부를 보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무리에 끼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열 두 사도의 일원이 된 유다는,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요한 13,29). 하지만 유다는 결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께 보인 지극한 사랑과 감사와 경배를 낭비로 여기며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있는 척을 했습니다. 둘째로, 유다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했던 도둑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불행한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는 매정하고 탐욕으로 가득찬 인물이었습니다(요한 12,3-6). 유다는 내면의 회개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될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처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번에 걸쳐 당신이 배반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보는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유다의 행동에 충격을 받지 않아야만 합니다(시편 41,10; 요한 13,18).

예수님의 말씀은 베타니아에서 있었던 향유사건이 일어난 후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유다는 협상을 하기 위해 종교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마태 26,14-16) 유다는 예수님의 질책을 들었고, 점점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전망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손실을 줄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반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요한 6,70). 우리는 사탄이 한 주 동안 두 번이나 유다에게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루카 22,3; 요한 13,27). 유다는 사탄이 원한다면 언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는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요한 13,2). 예수님께서 사형을 선고받을 때,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며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겼음을 받아들이고는 자신이 받았던 은전 서른 닳을 돌려주었습니다(마태 27,3-4). 슬픈 사실은 유다가 자신의 고백과 잘못에 대한 배상을 잘못된 사람들(동료 범죄자들!!)에게 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절망하며 가서 자신의 목을 매었습니다(마태 27,5). 유다가 자비로우신 스승 예수님께로 향했었더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마태 18,14).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오른쪽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를 구원하셨다면, 유다 또한 구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매일의 순간 진리를 접해온 사람이 어떻게 그 진리

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유다는 진리를 더 자주 들었기에, 더 많이 거부하고 그 마음이 더욱 완고해졌습니다. 유다의 마음은 완고해졌고 그는 더 이상 (주 예수님 그 자체이신)‘말씀’의 비판과 성령에 대한 확신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내면은 사탄이 살아가기 아주 좋은 거주지가 될 정도로 완고해졌던 것입니다. 유다의 돈에 대한 사랑은 질투로, 분노로, 그리고 배신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또한 절망과 자살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영원한 보상을 위한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유다를 이러한 배반과 자기패배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유다가 회개했다면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아들 압살롬과 싸우는 다윗을 누가 봐도 확실한 패배에서 구원하시고 승리로 이끌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뉘우쳤으며, 그의 마음이 주님을 섬기는 쪽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느님께서는 요나를 지중해 깊은 곳에서 건져내시어 그를 니네베로 보내셨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갈라 6,9). 유다와 같은 이들을 돌보는 일이 바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섬길 숨과 힘을 주시는 한 주님에 대한 믿음에 충실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유다를 이러한 배반과 자기패배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유다가 회개했다면 말입니다”

3장 내적의 상처 식별하기

육체적 상처들은 그 상처가 드러내는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 또한 그 상처가 드러내는 징후들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징후들은 이렇습니다.-악한 생각들, 과격한 언행, 후회, 용서하지 못함, 분노, 외로움, 의심, 적의, 증오와 불신 등.

“내적 상처들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또는 행동하지 않음을 통해 성장해 나갑니다. 육체적인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는다면, 이는 몸과 영혼의 분리, 곧 죽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치유되지 못한 내면의 상처들은 육체적이고 영성적이며 감정적인 속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적 상처는 우리의 기를 꺾고(잠언 15,13), 불의를 일삼게 합니다(시편 37,1). 이 내면의 상처들은 삶이 우리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탄의 영에 우리를 묶는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낙심으로 인한 상처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의 영혼에는 양깊음의 영이 들려붙어 모든 것에서 복수를 찾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내적 상처들을 식별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느님의 말씀

읽음을 통해 이해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성경을 펴 놓고, 곰곰이 생각을”(다니엘 9,2)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잠언 4,7). 그리스도교 문학들(성경을 포함하는)이 비록 인간적인 열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 대부분은 분명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쓰여 진 것들입니다. 그것이 열망에 의해서이든 아니면 영감에 의해서이든, 이러한 그리스도교 문학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군가는 이미 우리와 같은 시련을 겪었고 이를 이겨냈다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줍니다(1코린 10,13).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시련을 감내하며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격려해준다면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 계시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치유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어 내면의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 활동하시는 성령의 작품인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야만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야 말로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한은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기에 사람 속을 깨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고 전합니다(히브 4,12). 요한은 첫째 서한을 통해서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1요한 4,1). **현명한 장군**이라면 상처 입은 병사를 격전지의 최전선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가공할 만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영혼을 간직한 채 전투에 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는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됩니다(3요한 1,2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백성은 무지로 인해 쓰러집니다. 성경과 영적인 독서로부터 깨달음을 얻길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영적 서적들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상처들을 식별하고 치유의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 결혼은 미뤄지게 하시는가요?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신부님, 전 이제 36살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저랑 결혼해 줄 하느님을 경외하는 남자를 찾지 못하겠어요. 주님께서는 왜 제 결혼을 계속 미루시는 걸까요?” 저는 이 여성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여성은 답했습니다. “네가 6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는 제 친구와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 남자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이 남자의 대학등록금도 제가 해결해줬고 다른 도움도 많이 줬거든요. 이 남자가 저를 이렇게 가지고 놀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여전히 저는 그 남자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정황을 들어보니, 자매님의 결혼을 미루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이 아니라 용서를 미루고 있는 자매님 자신인 것 같군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마르 11,24-25).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2베드 3,9).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2코린 6,2).” 용서야 말로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적 상처들이 보이는 징후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우리가(“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위업은 너무나 훌륭하고”(집회 39,16)),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자신을 온전하고 흠 없이 지키는 것입니다(1테살 5,23). 지혜

서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서 만물을 존재하라고 창조하셨음을 듣습니다(지혜 1,14 참조). 시편저자는 모든 만물을 오묘하고 경이롭게 창조하신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릅니다(시편 139,14). 집회서는 하느님의 모든 업적이 너무나 아름다우며 찬란하게 보인다고 말합니다(집회 42,22).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곳 지상에서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 자신을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채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깨끗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지상의 삶을 마치고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이 지상에서부터 하느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것이 너무 많은 영향들로 인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향들은 우리가 자라온 환경의 본래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 현재 우리를 둘러싼 환경일 수도 있으며, 삶이라는 여행 안에서 우리가 지나온 경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 안에서 부정적이고 부적합한 행동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그저 막 생겼다고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보통 마음이나 지능 속에, 혹은 기억이나 영혼 깊은 곳에 분명히 이러한 모습들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모습들은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들로 인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대화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과정 안에서, 그리고 사물을 다루는데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일상적인 대화법이나 관계를 맺는 방법, 사물을 다루는 방법들 안에서 버릇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련한 아내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남편과 이런 남편으로 인해 비참하고 학대받는 삶을 살게 되는 불쌍한 아내, 그리고 자기연민에 빠져 술독에 빠져 사는 남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들만 보면 화를 내는 어머니와, 자신에게 맡겨진 조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삼촌,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욕하는 십대들은 어떻습니까? 믿고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낙제를 받아 분노하고 있는 학생과 수년전 자신을 해고했던 노인을 폭행하는 사람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 언제나 술에 취해있던 어머니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60세 과부도 있습니다. 18세 때 집을 나온 이 과부는 자신의 어머니가 술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내면의 상처가 보여주는 표징들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상처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불안함과 괴로움: 이따금씩 찾아오는 불안함과 괴로움을 자주 느끼게 될 때.
- 짜증: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계속 짜증이 날 때.
- 이해심 부족: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와 요구를 할 때.
- 지나간 일에 지나치게 민감함: 지나간 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일들로 화를 내거나 불필요하게 비난할 때.
- 용서하지 않음: 타인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고 심지어 자신에게 그 어떤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악의를 가지게 될 때.
- 사랑받기를 거부함: 사랑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 사랑을 거부할 때.
- 급격한 분노의 표출: 쉽게 비난하고 갑자기 화를 내거나 증오하며 분노를 표출 할 때. 나에

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비난할 때.

- 하느님의 탓을 함: 자신의 실수, 어려움들을 하느님의 탓으로 돌리고 하느님을 증오하게 될 때.
- 자기혐오: 자신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이 자신 때문이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 쉽게 좌절함: 삶의 작은 불편이나 책임에 쉽게 좌절하게 될 때.
- 현실도피: 폭식, 음주, 흡연, 시끄러운 음악, 야한 동영상 등을 이용해 도피나 현실을 잊고 자하는 경향을 가질 때.
- 타인을 상처입힘: 타인에게 날카로운 말로 상처 입히는 습관을 가질 때.
- 보복의 충동: 자기혐오, 분노, 용서하지 못함 등,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들로 인해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되는 이들에게 쉽사리 보복을 하려 할 때.
- 무책임한 행동: 자신의 삶을 거의 돌보지 않을 때. 이러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 않은 순간에 자기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파괴하는 행동을 합니다.
- 타인을 향한 비이성적 기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참고 견디지 못할 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타인의 실수를 참아주지 못합니다.
- 완벽주의: 오로지 높은 실적이나 성과만 추구하게 될 때.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든 부모님이나 상사가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거부의 감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향하는 과도한 성과를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 절망감: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차단당했다고 느껴질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절망감의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 꿈속에서만 살아감: 감정적인 상처들로 인해 받는 고통은 삶의 의미와 목적, 삶의 행복을 찾기 위해 주어진 자신의 삶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회피는 우리 자신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목적대로 창조하신 우리 자신의 진가를 알아보기 보다는 학업, 경력, 또는 재정적인 성공에 집착하도록 합니다.
- 강박장애: 강박장애는 종종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감정적인 상처들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강박장애는 특히 자기를 혐오하고 자신에 대해 적의를 가지거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집니다.
- 하느님, 자기 자신, 타인을 향한 적대감: 감정들에 매여서 하느님, 타인, 심지어 자신에게까지 적대감을 드러낼 때. 이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막아주지 않은 하느님께 대한 비통함, 자신에게 잘못을 했고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신랄함, 자신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자신을 향하는 적대감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충족되지 못한 욕구로 인한 상처들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로 인한 상처들은 우리 삶에 많은 위협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어린 시절에 생기며 다음의 예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딱히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에 물건을 사게 될 때.
- 하루 종일 폰만 만지작거리게 될 때.
-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도저히 만족을 하지 못하는 때.

●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로 인한 상처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충족되지 못한 욕구로 인한 상처들이 바로 젊은이들이 그토록 빨리 사랑에 빠지지만 결혼은 하지 않으려는 이유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끝나는 사랑이 커다란 내면의 상처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이들은 그 어떤 관계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능력이 비뚤어진 탓에 서로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관계를 끝맺습니다. 주거지나 직장을 너무나 자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자신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는 이들이 마음 속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지 않는 한, 그 어느 곳에도 정착 하지도, 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사회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자신들의 영혼에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하느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내면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해주시길 기도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삶 안에서 충족되지 못한 수많은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신의 고귀한 피로 우리를 정화해주시는 예수님께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내적의 상처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집회서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말은 만사의 시작이고 모든 행동에는 계획이 앞선다.”(집회 37,16) 마음이 부정한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대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성인의 가르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야고 1,15).

바오로사도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아무도 하느님의 은총을 놓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하나라도 솟아나 혼란을 일으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히브 12,15). 저자는 쓴 열매(상처)와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 센 마음은 마지막에 불행을 겪고 위험을 즐기는 자는 그 위험으로 망하리라. 고집 센 마음은 고생으로 짓눌리고 죄인은 죄악에 죄악을 쌓으리라”(집회 3,26-27).

누군가는 회개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자신을 억누를 수 없으며 죄를 지었어도 자신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께서 분노에 더디실 뿐 언제든 징벌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집회 5,3-4 참조). 어떤 이들은 오만하게 말을 내뱉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게으르고 부주의하게 행동합니다. 자신의 집 안에서 사자처럼 굴고 종들을 닦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집회 4,29-30 참조). 과음, 흡연, 약물복용, 자위, 손톱 물어뜯기, 껌을 과하게 씹거나 과식하기, 하루 종일 헤드폰을 벗지 않거나 불필요한 자가치료에 몰두하기, 피부 할퀴기 등이 내면의 상처로부터 야기된 나쁜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잘못 만났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장, 혹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수업을 듣거나 규명되지 않은 질병을 앓고 끝없는 가난 등과 같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사도는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1테살 5,16-18 참조).

(참조: 더 많은 내적 상처가 보이는 징후들에 대해서는 이 책의 240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안토니 파란키마릴(Antony Parankimalil) 신부님이 쓴 ‘You are not rejected’ 128페이지를 읽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여러 행동들은 내면의 상처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적 상처들의 유형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어린 시절에, 혹은 갓 성인이 되어서 크게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 지나치게 큰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 어떤 일이나 들은 것에 대해 과하게 반응하십니까?
- 과거에 받은 상처에 대한 기억이 계속 되풀이 되십니까?
- 지나간 사건을 생각하는 것이 자신을 여전히 힘들게 합니까?
-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용서를 청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 겉잡을 수 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 삶의 불행을 탓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까?
- 끊임없이 분노의 감정을 느끼십니까?
-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언제나 비판적입니까?
- 내면의 문제와 씨름하느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셨습니까?
- 성인이 되기까지 그 누군가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까?
- 자주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고 그로 인해 좌절하게 됩니까?
- 끊임없이 스킨십을 요구합니까?
- 간섭받고자 하는, 혹은 전혀 간섭을 받지 않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 상대방으로부터 못마땅함이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받아들여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 중에 한번이라도 “예”라고 답을 했다면, 자신에게 솔직해져서 치유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두통이 있는지, 배가 아픈지, 코감기인지, 내향성 발톱 때문인지 등,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도 명확하게 모른 채 병원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이 사람은 의사에게 명확한 처방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면의 상처 또한 이와 같습니다. 내적 치유를 구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다수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원인을 살펴보는 작업을 주저합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 받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솔직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작업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가능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내적 상처가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1.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의 모든 것을 리스트로 작성해보십시오. 여전히 원망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여겨지는 항목들을 분류하십시오. 이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것들,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은 사람이나 사건들 또한 포함합니다. 실수를 덮거나 그저 괜찮다는 말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물거리며 넘어가려하지 말고 제대로 직면하십시오! 이러한 과정을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로 적어서 미사에 참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깊이 후회할 만한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 후회하고 있는 일들의 목록을 작성해 봅시다. 이때 자기증오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특정한 사건으로 예수님을 초대해드리고 그분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3. 과거에 지나치게 당황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자기혐오의 공통된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실수들의 목록을 작성해보십시오. 이 목록은 여러분이 비밀스럽게 마음속에 짊어진 증오를 해방하고 자신을 용서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곧바로 뿌리로 내려가서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생긴 이유를 펼쳐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연에서의 감염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감염 또한 어둠 속에서 깊은 채로 남겨두면 더욱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상처들이 더 이상 깊지 않도록 밝게 드러내어 그 깊은 마음과 감정들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 상처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들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한 성령의 활동을 막게 될 것입니다. “나, 바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너의 악행들을 씻어 주는 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이사 43,25).

결혼을 못하는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이야기

한 기업가가 적절한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자신의 딸들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이 한평생 하느님을 섬겨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일을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주일 미사도 빠짐없이 참석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신부님, 하느님께서는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가 열심한 가톨릭 신자이고 또 그에게서 외적인 잘못을 찾을 수 없었기에, 우리는 진실로 기도했고 이 아버지의 삶과 연관된 말라키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분께서 더 이상 제물을 굽어보지도 않으시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으신다고 주님의 제단을 눈물과 통곡과 탄식으로 덮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찌 이 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네가 배신한 깊은 시절의 네 아내와 너 사이의 증인이 바로 주님이 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고 너와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이다. 한 분이신 그분께서 그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몸과 영이 그분의 것이다. 한 분이신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인정받는 후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 목숨을 소중히 여겨 젊은 시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정녕 나는 아내를 내쫓는 짓을 싫어한다. —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그는 제 옷을 폭력으로 뒤덮는 자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그러므로 너희는 제 목숨을 소중히 여겨 배신하지 마라.” 우리는 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내가 있었고 아내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습니까?” 이 아버지는 “네”하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내를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는, “우린 둘 다 학생이었고, 아내와의 관계는 젊은 시절의 실수였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 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4-6). 이 아버지는 자신의 젊었을 적 아내와 자녀들을 완전히 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에게, 젊은 시절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을 잘 돌보아 준다면 주님께서 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조언해주었습니다. “정의와 공정을 실천함이 주님께서는 제물보다 낫다”(잠언 21,3)라는 말씀처럼 하느님께서는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내면의 치유를 얻는 비결

1. 하느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지 않으셨음을 믿는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셨고 실망하셨다는 생각이 담긴 죄책감과 부끄러움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몸에 상처가 나서 치료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세균을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할 때, 상처와 함께 생기게 된 죄책감, 부끄러움, 두려움들은 치유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심을 깨닫는 것이 내면의 치유를 받기 위한 토대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시거나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짚어지고 있는 집들을 돌보아 주시리라는 신뢰와 함께 그 집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부끄러움이라는 집을 짚어지고 있으면 내면의 치유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집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치유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감정을 위한 치유를 충만히 받고자 한다면, 하느님께서 나 자신에게 화가 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라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화되었다는 하느님의 말씀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이사 43,18-25).

2. 하느님께서 나를 향해 오실 준비가 되셨음을 믿는다.

내면의 치유를 받는 또 다른 비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인식, 특히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치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히브 13,5;로마 8,30-32;탈출 15,26;요한 14,1). 우리는 반드시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 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탓을 결코 하느님께 돌려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저 우리의 마음과 감정들 안으로 흘러 들어오시는 하느님의 치유하시는 힘을 가로막는 영적인 벽을 세우는데 봉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허

용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라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하는 분이시며 결코 우리를 적대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받아들여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주길 원하십니다. 치유를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하느님의 빛 앞에 드러내도록 합시다. 상처를 어둠 속에 방치한다면,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처가 감염된 채로 밴드를 붙이면서 그것이 건조해져 치유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상처가 악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드러내어 깨끗이 씻고 감염을 예방해서 상처가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를 내맡겨 드려야 합니다(1베드 5,7 참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셨으며, 오직 우리가 당신께 그 모든 걱정거리를 내어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듯,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가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별 받은 자, 하느님께 매 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분이 으스러지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주님께서 징벌을 받으셨고 그분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습니다(이사 53,4-5 참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슬픔, 괴로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3. 감사하는 마음이 용서로 이어진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흡송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상처로서 우리를 치유해주셨기 때문입니다(1베드 2,24;탈출 23,25).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은 우리가 베푸는 용서로 이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진 슬픔을 스스로 짊어지고자 한다면,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옮겨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주셨는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본다면, 주님께서 사랑을 가득 담아 무상으로 베풀어주신 선물에 감사를 드리지 않기란 불가능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신 것들을 이용하고자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해보십시오.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를 향한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쵸한 11,35-36 참조).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키워나가는 것은 내면의 치유를 받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1테살 5,18;필리 4,19). 감사가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에 감사를 드리게 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느님께 신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거절과 거부당함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커다란 비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을 보게 될 때면, 결코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 거부당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합니다(콜로 3,15).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음의 결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한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로마 1,21 참조).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않으며 복수하기 일쑤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타인을 향한 모든 종류의 혐오스러운 감정들이 쉽게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마음의 건강에도, 하느님께서 우리 상처와 아픔에 내려주고자 하시는 치유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능력에도 독일뿐입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잣대로 심판합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돌보아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그대로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됩니다. 레오 클리포드 신부님(Rev Fr. Leo Clifford)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제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부디 저에게 한 가지만 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길 청합니다.”

4.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돌아선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하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시작하십시오. 나무 위에서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는 새들, 바람이 얼굴을 훑으며 내는 휘파람소리, 바람에 바스락대는 나무들, 자녀의 귀여운 미소가 작고 사소한 것들 중 하나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아주 드물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음과 동시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깨닫게 된다면, 또한 주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얻게 된 이 값비싼 선물에 감사한다면, 자연스럽고 쉽게, 그리고 기꺼이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로 퍼져가는 사랑의 전염입니다. 마음속에 감사함이 흘러넘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숨김없이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받은 수많은 축복에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로부터 진실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돌아선다면 말입니다.

5.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해주신 약속들을 향한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있는 하느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될 때,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만큼 큰 평화와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들을 꽉 부여잡게 만듭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도구로 사용해서 인간을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진실하시고 선과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가진 최대의 관심사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는 삶의 모든 걱정들 안에서도 하느님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께 신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두려움과 버림받음, 그리고 실망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요한 10,10).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드러내신 모든 것을 믿는다면, 사탄은 우리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야고 4,7-8:시편 119,105).

6. 악마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악마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악마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요한 8,44 참조). 만약 여러분이 벼림받음이나 배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관심사항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매순간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분노하고 계신다고 느끼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초조해하고 하느님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사람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낙담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하는 시간과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화가 나셨고 실망하셨다고 생각하길 원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화가 나셨다는 생각으로 인해 힘들어해왔다면, 이제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눈길을 주고 계시며,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계시며, 여전히 사랑스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떠올리려 노력하십시오. 몸 전체의 긴장을 풀면서 이를 느끼십시오. 그래야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떠올렸다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서 그분께서 실제로 얼마나 우리를 호의 가득한 희망의 눈으로 바라봐주시는지를 깨달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언제나 우리를 회개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탄의 간계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할 때라야, 상상력은 강력하고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생각은 내면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정면으로, 솔직하게, 그 어떤 부인도 없이 마주하길 권해드립니다. 주님께 자신의 상처와 아픔들을 내어드리기로 결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더 이상 과거의 사건에 매여 있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과거의 사건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가지는 상처와 분노의 이유들만 더 추가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깨에 온 세상을 짊어지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역시 기꺼이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1베드 2,24). 예수님께서는 저 깊은 바다에서 제자들을 위협하는 폭풍우를 잠재우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 삶의 폭풍우를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악마와 악령들은 우리의 상처를 악화시키기 위해 부지런히도 움직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악마와 악령들은 이를 완수하기 위해 우리가 행한 잘못들, 그리고 우리에게 행해진 일들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계속 떠올리게 합니다. 악마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향해 분노와 증오를 가져야 하는 이유를, 그리고 우리가 이 분노와 증오를 거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 애씁니다. 악마는 우리를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도 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가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를 떠올리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악마의 목표는 우리의 상처를 악화시켜 골아터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치유보다 증오를 바라는 마음은 대단히 큰 유혹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보통 그 상처를 치유 받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올바로 만드시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미움과 복수의 감정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로 치유 받고자 하는 마음과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복수의 감정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에 대한 별과 고통을 더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스스로 치유 받고 싶고 삶에서 행해온 실수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십니까? 용서받길 원하고 지난 잘못들에서 해방되길 바란다면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 하십시오. 우리에게 분노와 증오를 산 이들을 놓아주고, 대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는 것들을 주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말입니다.

7.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다.

자신에게 잘못한 이들에 대한 비난을 멈추십시오.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무언가, 혹은 행하고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영적인 감옥에 가두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행해진 것들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반응들입니다. 영적인 빗장 너머로 우리를 가두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분노, 미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함입니다.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들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 비난할 누군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행해진 것들에 대한 책임은 가지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뿌리내리도록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할 때까지, 영적인 치유는 차단된 채로 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난은 우리 삶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치유하시는 힘을 그저 가로막을 뿐입니다. 비난하고자하는 마음은 치유의 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서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이전에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영적인 감옥에 가두는 것은 성폭행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사람이 이에 대응하는 방식, 곧 성폭행 이후에 오는 증오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사탄에게 활동할 거점을 마련해주는 행위입니다. ‘만일 이랬다면’이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감옥에 붙잡고 영적인 고통을 줄 뿐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이가 회개하지 않고 그 잘못을 다른 이들에게도 계속 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엇 때문에 관심을 가집니까?

사탄에게 있는 가장 큰 비밀은 사탄이 사람에게 죄의식을 일으켜서 그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가로막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결코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감정은 내면의 치유과정을 가로막는 가장 확실한 장애물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치유해주고자 하는 분(주 예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합니다. 하느님께 거리를 둔 채로는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치유의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사랑과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바로 사도가 설명하듯,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2티모 1,7)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이들에게 참된 안식을 베풀시는 당신께로 오라고 요청하십니다(마태 11,28-29). 하지만 사탄은 이를 어떻게 막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며 화를 내시는 하느님을 떠올리도록 만들면서 말이죠. 이는 실제로 우리가 인지하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국 내면의 치유과정을 가로막는 온갖 종류의 영적인 문제들만 끌어안게 됩니다.

8. 삶의 총체적인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린다.

우리는 상처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치유로 이끄시는 성령의 치유하시는 힘과 그 빛을 가로막는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처 입은 감정을 치유하실 준비가 되셨고, 또 그렇게 하실 열망하십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온화하시어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강제 하실 수도,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만이 감정의 벽들을 무너뜨릴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세워놓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벽들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벽들은 우리에게 행해진 것들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반응들입니다. 우리가 분노, 신랄함 또는 원한 등의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악마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빛이 상처에 도달하는 것을 가로막는 벽을 상처 주위에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해진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책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저 벽이 생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성령의 치유활동을 가로막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필요와 두려움에 대해 투명해질(솔직해질)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령께서 내어주시는 치유의 힘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투명함(솔직함)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를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네가 상처입은 감정을 치유하고자 내 치유의 빛을 원한다면, 너는 반드시 투명해져야 한다... 빛은 통과하기 위해 투명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9. 자기 자신에게 조건 없는 용서를 베풀기로 결심한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하느님께 있어 우리는 고귀한 피로 씻기어 과거의 잘못들로부터 깨끗해진 이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치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계속해서 스스로를 질책한다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혀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흠 없고 티 없는 어린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1베드 1,18-19). 감정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책감과 자기비난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들이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것이 감정적 상처로부터 치유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시편 107장 20절에서 보듯이, 하느님의 말씀 또한 치유하십니다: “당신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낫게 하시고 구령에서 구해 내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요한 15,3).

10. 자신의 고난에 대해 사제와 이야기를 나눈다.

또 다른 도움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제와 그것을 함께 나누는 행위 안에는 놀라운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의 간절한 기도가 큰 힘을 내기에, 우리의 병이 낫기 위해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충고합니다(야고 5,16).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상처와 나약함들에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세마니 동산에서 비탄에 빠져 계실 때, 아빠(Abba)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 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도울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시편 103,20 참조). 본당 사제가 그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11. 우리를 상처 입히는 이들에게 자비로워진다.

우리 각자의 상황 안에서 자비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이 또는 우리를 상처하는 이들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마태 5,7). 진실로 자비를 얻고자 한다면, 자신이 다른 이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자비로웠는지 어땠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비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 자비롭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비와 용서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마태 18,35 참조).

우리는 그것이 언제든 어디에서든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비통함의 뿌리가 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적의는 무언가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을 범한 이에 대한 비난과 심지어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비난은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비난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 안에 분노와 적의, 그리고 불관용(unforgiveness, 용서하지 못함)을 키우게 됩니다. 아무런 요구도 조건도 없이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입니다(요한 15,12 참조). 적의와 불관용에게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주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증오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사단과 악한 영들이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로 이득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에페 4,26-27

우리는 상처를 통해 뿌리 내리게 된 영이 어떠한 것인가, 그 영들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악마들은 트라우마나 모욕과 같은 통로를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충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악마들이 물리쳐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감정적인 상처들은 용서를 베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 미움, 적의, 부정적 비난, 쉬운 비판, 살인과 같은 악한 영들에게 손을 내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영들이 부지런히 일하며 우리의 상처를 악화시키고 치유를 막기 때문입니다.

12.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연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의 빛이며 빛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결코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내면의 상처가 지니는 어둠 안에 빛을 비추시도록 예수님을 초대해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히브리 13,8). 주님께서는 알파요 오메가시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분(묵시 1,8)이시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시편 139).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억들 모든 곳에 초대해드린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면의 치유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우리 마음의 입구를 활짝 열어야만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배꼽을 가린 채 목욕을 할 수 없다”(진정으로 깨끗해지고 싶다면 몸에 걸친 모든 것을 벗어야 한다). 마음을 열어 예수님께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치유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탈출 15,26).

삶의 마지막에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여인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날이 가까웠으니 네가 한 그대로 너도 당하고 너의 행실이 네 머리 위로 돌아가리라”(오바 1,15). 어느 중년의 여인이 저에게 삶의 마지막 시기를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나이 많고 아픈 과부에게 방문해주길 부탁했습니다. 이 중년여인은 말했습니다. “신부님, 이 할머니는 과부이고 자식이 없어요.” 이 늙고 병들어 고통 받고 있는 할머니를 방문해서 기도를 하던 중에, 저는 이 할머니 옆에 서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의 환시를 보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라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친구의 남자친구가 제 친구보다 저를 더 사랑했기에 저는 친구가 우는 것을 보았지만 친구를 외면했어요. 그 두 사람은 이미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었지만, 그 사람이 제 친구를 버리자마자 저는 이 남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애걸하는 이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고 그에게 너를 저주할 빌미를 주지 마라. 그가 비참한 삶 속에서 너를 저주하면 그를 만드신 분께서 그의 호소를 들어 주시리라”(집회 4,5-6). “빈곤한 이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대답을 얻지 못한다”(잠언 21,13). “빈곤한 이를 강탈하지 마라. 그가 빈곤하지 않으냐? 성문에서 가난한 이를 억누르지 마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떠맡으시고 그 약탈자들의 목숨을 약탈하신다”(잠언 22,22-23). 결코 한 가정을 파괴하려 하지 마십시오.

4장 내면의 상처로 인한 위험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들 안에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내적 상처 때문에 드러나는 외적인 행동들의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외적인 행동들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적인 행동들을 유발시키는 무언가가 깊은 내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은 영혼의 진실 된 눈이 아닌 그 상처를 통해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내적 상처들은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어버립니다. 상처들은 사람의 마음을 왜곡하고 믿음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상처들은 다른 이들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잃게 만들어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내적 상처들은 육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거나 말할 수 없는 것 들은 몸이 알아서 표현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주의 깊게 보도록 합시다.

- 적의, 용서의 거절, 죄의식, 의심, 두려움과 염려는 머리, 눈, 귀, 그리고 부비강(두개골 속의, 코 안쪽으로 이어지는 구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적대감, 비관적인 성향, 망설임, 배척당하는 기분은 코, 입, 목구멍(인후), 어깨와 등 상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부러워함, 절망감, 인정하지 못함, 낙심, 두려움, 화, 원한, 열등감, 복수심은 심장, 가슴, 폐, 혈압, 그리고 부정맥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슬픔, 우울감, 억압된 두려움, 서러움, 억압된 비관용은 위, 장, 등 하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불안감, 불안정, 무능감은 다리, 무릎, 손과 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알러지, 불규칙한 호흡, 소화불량은 사람과의 관계, 특히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성적 측면에서 내면의 상처들과 이 상처들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가 되었든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히

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공동체 생활 안에서 영적인 성장과 행복을 이루어 낸다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나약함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상관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된 직원은 그 경험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은 배우지 않고 상관이 되었을 때 다른 부하 직원에게 똑같이 상처를 입힙니다. 상처받은 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상처를 받은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를 삼가야만 합니다.

악습과 방종으로 인해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악습과 방종은 악마로 하여금 의로운 행위에 대한 우리의 바람과 관심을 앗아가도록 허용합니다. 마치 만성질병이 정상이고 건강한 육체를 부패시켜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는 것처럼,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느님께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더럽혀진 우리 내면을 정화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너무나 더럽혀졌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없는 질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더럽혀진 우리 내면을 정화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너무나 더럽혀졌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없는 질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어느 경찰관 이야기

제가 이 경찰관을 만났던 곳은 순례자 센터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 기도에 동참했고, 기도가 다 끝난 후 저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배우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수년간 만남을 가져온 여성은 마지막 순간에 그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경찰관은 너무나 억울해했고 이제 마흔 살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저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무지 왜 저랑 결혼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신부님,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던 중에, 성령께서는 “사라”라는 이름을 계시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경찰관에게 사라가 누군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사라가 자신을 어렸을 적부터 보살펴준 고모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많은 자녀로 인해 힘들어 했고 고모는 결혼을 하지 않아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모는 그를 돌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고모는 책임을 다해 그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주었고,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고모는 자신의 조카가 저녁파티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경찰관은 고모의 뺨을 때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고모는 너무나 상처를 받았고 그를 저주하며 그가 언젠가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못하는 고통과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고통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경찰관은 자신의 고모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그날 이후로 저는 고모를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어요. 고모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애걸하는 이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고 그에게 너를 저주할 빌미를 주지 마라. 그가 비참한 삶 속에서 너를 저주하면 그를 만드신 분께서 그의 호소를 들어 주시리라”(집회 4,5-6). 하느님께서는 탈출기 22장 22절에서 23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성경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빈곤한 이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대답을 얻지 못한다.”(잠언 21,13) “빈곤한 이를 강탈하지 마라. 그가 빈곤하지 않으냐? 성문에서 가난한 이를 얹누르지 마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떠맡으시고 그 약탈자들의 목숨을 약탈하신다.”(잠언 22,22-23) 저는 이 경찰관에게 고모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고모에 대한 용서와 감사의 의미로 그녀의 구원을 위한 세 번의 미사를 봉헌하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안 되어서 이 경찰관은 결혼을 했습니다.

이어서 내면의 상처로 인한 위험들에 대해 설명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다룰 내면의 상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노, 낮은 자존감, 절망, 비탄(특히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한), 동료 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박.

분노

분노는 불쾌함이나 억울함, 또는 거부감으로 해석되며 보복을 통해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노는 자신이 느끼기에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잘못을 범했다고 생각되는 사람 혹은 사물을 향한 공격성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분노는 가벼운 짜증부터 강한 격분까지 가지각색의 강도로 나타납니다. 분노는 보통 언어적 또는 육체적으로 대응하고자하는 심리적인 자극을 동반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분노는 한 사람이 불만, 불행 또는 감정의 상처를 대면했을 때, 계획이 원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보이게 되는 응답이며, 이로 인해 높은 연성, 고함, 꾸짖음, 폭행, 냉소 또는 침묵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필리 4,7 참조).

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저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따르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예레 3,19) 우리는 상담을 위해 자리에 앉았고 시작기도를 한 뒤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왔던 여인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서럽게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결코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여인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 여인은 트라우마와 함께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수많은 남자친구와 관계를 하고 많은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말했습니다. “제 사전에 용서란 단어는 없어요.” 여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는 이 여인을 위해 기도했고 여인에게 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말하며 성경책을 펼쳐서 예레미야서 3장 19절의 말씀

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너를 어떻게 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로 내세워 텁스러운 땅, 뭇 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속 재산을 너에게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나는 너희가 나를 ‘저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따르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여인은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증오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더 큰 소리로 기도했고 이 여인은 점차 안정을 되찾고는 울면서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제발 저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아버지를 용서하겠어요. 그러나 저에게서 물러가주세요.” 우리는 이 여인이 환시를 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인이 깨어났을 때, 우리는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상처가 너무 심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러진 다리로 자신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발을 잡으시며, “내 딸아, 네가 네 아버지에게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나에게 행하여라. 네가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다면, 내 얼굴에 뱉어라. 네가 네 아버지의 뺨을 때리길 원한다면, 내 뺨을 때려라. 네 아버질 몽둥이질하고 싶다면, 나에게 몽둥이질을 하여라. 네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면, 나를 죽여라. 그러나 내 딸아, 너에게 청한다. 부디 네 아버지를 용서하려무나.”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피 냄새를 맡고는, “예수님 제발 저에게서 떠나주세요. 아버지를 용서하겠어요. 그러니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주세요.”라며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품고 있는 응어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 진정 고통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께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후에 여인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환시를 봄으로써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증오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분노는 아주 강렬한 느낌이기에 아주 짧은 순간에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내면의 상처입니다. 이는 심한 불쾌감, 적개심, 짜증 또는 격분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여겨질 때, 가장 맹렬하게 발생합니다. 분노는 심장에 영향을 미쳐서 심박 수가 빨라지도록 하며 정신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또한 분노는 우리 몸을 폭발하도록 만들고 심해지면 주먹으로 벽을 쳐서 구멍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대응은 백해무익입니다.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며 건강을 해칩니다. 다른 이와의 관계를 망치고 자신에게 있어 최선의 이익에 반하게 행동함으로써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객관성을 내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놀며 우리 안에 화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사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카인과 아벨의 처절한 결말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하느님께 제물을 바쳤지만 하느님께서는 하나는 받아주시고 다른 하나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질투와 분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화나고 낙심한 이에게 그의 제물이 받아들여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곧 죄악을 다스리는데 실패하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는 죄악이 카인을 노리고 파멸하게 만들 것임을 말씀해주셨습니다(창세 4,5-7). 하지만 카인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의 기분과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성경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객관성을 내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놀며 우리 안에 화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사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이유와 그것이 표출되는 방식이 건강한 감정을 가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대상을 찾아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정도로 올바른 목적과 방법 안에서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는 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한 정신과 육체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실현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인간 안에 내재한 공격성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삶의 평화를 빼앗고 개개인에게 허약한 자부심을 가져다줍니다. 이는 한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감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숙고해보도록 합시다: 고약한 성격을 가진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소년에게 못이 가득 담긴 가방을 하나 건네주었고 울화통이 터질 때마다 뒤틀에 있는 울타리에 못을 박으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이 가방을 건네받은 그날만 소년은 37개의 못을 울타리에 박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년이 못을 박는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소년이 울타리에 못을 박아 넣는 것보다 화를 참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소년이 전혀 울분을 터뜨리지 않는 날이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를 알렸고, 아버지는 소년에게 이제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 날마다 못을 하나씩 뽑으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소년은 마침내 아버지에게 울타리에 있는 박힌 모든 못을 뽑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소년의 손을 잡고 뒤틀의 울타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잘했구나. 하지만 울타리에 난 구멍들을 보거라. 이 구멍들은 이제 메워질 수가 없단다. 네가 울화를 터뜨리며 내뱉은 말들은 못들로 인해 생긴 저 구멍들처럼 상처를 남긴단다. 네가 칼로 어떤 사람을 찔렀다가 그 칼을 거두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생긴단다. 네가 그 사람에게 수없이 미안하다고 말하더라도, 그 상처는 없어지지 않는단다.” 어떠한 상처라도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상처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다른 이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분노는 또한 한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격앙된 분노는 신체의 일정한 리듬에 영향을 줍니다. 분노는 심박 수 증가에 방아쇠를 당깁니다. 혈압, 체온, 호흡수 또한 증가시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는 심장마비, 중풍, 고혈압, 불면증, 두통, 심장 떨림, 답답함, 소화불량, 배앓이, 피부병, 탈모, 불안발작, 우울장애 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네,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 화로 인해 죄를 짓지 말고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지 말라고 가르칩니다(에페 4,26-27). 우리는 사람들의 부당함과 억압, 착취에 대해 정의와 공평함과 평화를 위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침과 통제 불능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총을 놓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또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하나라도 솟아나 혼란을 일으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히브 12,15).

우리가 분노조절 문제가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과 같은 순간에 분노조절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언성을 높일 때, 자주 누군가를 저주할 때, 다른 사람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이유 없이 망가뜨릴 때, 고집을 부릴 때, 누군가의 험담을 할 때, 늘 논쟁을 하게 될 때, 자주 싸움에 관여될 때, 권한과 권위에 자주 문제를 제기할 때, 늘 화를 참고 있다고 느낄 때, 운전 중에 울화통이 터져 난폭운전을 할 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낄 때, ... 등등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가 분노조절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들입니다. 이는 치유가 필요한 내면의 상처들입니다.

분노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읽고, 다시 읽고, 묵상하십시오.

1.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에페 4,26)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자신과 다른 이의 선을 위해 이를 실천하십시오.
2. “‘그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그에게 하여 그 사람이 한 행실대로 갚겠다.’ 하지 마라”(잠언 24,29). 복수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로마 12,19) 우리는 복수 대신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3. “‘내가 악을 되갚겠다.’ 하지 말고 주님께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도와주신다.”(잠언 20,22)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으십시오.
4.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주어라. 그것은 솟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이다. 주님께서 너에게 그 일을 보상해 주시리라”(잠언 25,21-22;2열왕 6,21-23). 우리는 우리를 상처 입힌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5.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마 8,28) 여기서 ‘모든 것’이란, 우리가 진심으로 하느님께 의지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해지는 악행들을 또한 선으로 바꾸어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를 구약성경의 요셉의 삶을 보아 알 수 있는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창세 50,20) 하느님의 말씀께 이를 청하고 스스로 다짐을 하십시오.
6.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마르 11,25) 이는 응답을 받고자 하는 기도에 있어 전제조건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분노와 불관용을 치워야 합니다.
7.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잠언 28,3). 오 주님, 제가 몸과 마음에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기 위해 제 모든 분노를 포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8.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잠언 28,7). 오 주님, 제가 원한을 끝내고 이웃의 잘못에 눈감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9.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 주

시리라. 그분께서는 고아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과부가 쏟아 놓는 하소연을 들어 주신다. 과부의 눈물이 그 뺨에 흘러내리고 눈물을 흘리게 한 자를 거슬러 그가 부르짖지 않겠느냐?”(잠언 35,16-19). 주님, 제가 결코 다른 이에게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소서. 분노는 악한 변호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남편이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피정을 하는 동안 피정주최자가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데, 제 가족들에겐 너무 지쳤어요.” 이 여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신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아주 열심히 기도한다는 듯이 행동해요. 그 사람의 아내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이 재능 많은 여인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남편으로 인해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젊은 여성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성추행 해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수치심으로 인해 남편과 조용히 이혼하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의 진심에 우리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여인에게 매일 기도하라고 조언했고 주님께서 여인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이 여인이 우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섬광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저는 도무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여인에게 그 의미는 간단하며 주님께서 여인이 남편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 사람이 저인가요 아니면 남편인가요?”라고 여인이 물었습니다. 여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신부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남편을 상처 입히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우리에게서 기도와 합리적인 이유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도 유다를 상처 입히거나 배신한 적이 없으시며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발을 씻어주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겨 주셨음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 말씀을 이어 읽으라고 조언을 했고 이내 여인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요한 13,15)

우리는 이 여인에게, “지금 당신은 기도모임의 지도자이고 많은 이를 이끌어주는 선생님이기에 당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동의를 했고, 남편을 기도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무릎을 꿇은 채로 아내로서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남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 즉시 아내를 일으켜 세우고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는 자신의 부정함에 대한 용서를 청했고 회개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후에 여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제 삶에서 결코 남편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적이 없었어요. 저는 결코 남편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 여인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제 작은 겸손이 남편을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1베드 5,5)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자신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경멸적으로 다루거나 빈약한 자아상을 품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과 비난을 가득 품고 있을 때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낮은 자존감은 한 사람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생각과 믿음에,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들에, 자신의 잠재성에 훨씬 못 미치는 성취들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끊임없이 손상을 가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상을 가져다줍니다.”(히브 10,35)

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느 수녀님이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수녀원의 장상수녀님과 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범죄자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 수녀님은 이미 수녀원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녀님이 말했습니다. “제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공동체에 제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수녀님이 다른 동료수녀님에게 자신의 고통에 대해 털어놓았을 때, 동료수녀님은 이 수녀님에게 우리가 지도하는 피정에 참여해보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이 수녀님은 자신이 학교에 소임을 받아서 8명의 학생이 있는 반을 맡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녀님은 아주 엄격했고 때로 학생들을 거칠게 다루었으며 학생들이 수업에서 우수해지도록 다그쳤습니다.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수녀님 또한 우수한 실적을 쌓았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학생이 말썽을 피워 수녀님은 이 아이를 때렸고 아이는 수녀님의 매질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태가 커져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 수녀님을 아이에게 폭행을 저지른 범죄자로서의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심지어 수녀님을 경찰에게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 수녀님은 수련을 위해 관구수녀원으로 보내어졌던 것입니다. 수녀님은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발 말씀해주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도록 저를 부르긴 하신 걸까요? 만약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제 성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수녀님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성경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늘 너를 이끌어 주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네 넋을 흡족하게 하시며 네 뼈마디를 튼튼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너는 물이 풍부한 정원처럼, 물이 끊이지 않는 샘터처럼 되리라. 너는 오래된 폐허를 재건하고 대대로 버려졌던 기초를 세워 일으키리라. 너는 갈라진 성벽을 고쳐 쌓는 이, 사람이 살도록 거리를 복구하는 이라 일컬어 지리라”(이사 58,11-12). 저는 수녀님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수녀님을 부르고 계신다고 상상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수녀님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수녀님이 ‘재건하는 사람, 고치고 복하는 이’가 되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녀님이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재건하고 고치는 이로 부르셨다면, 도대체 왜 제 동료 수녀님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답을 하는 대신 수녀님에게 수녀님의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자신이 이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자신의 아버지는 여전히 이교도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고 자신의 어머니는 개신교인이라 설명했습니다. 또, 수녀님은 자녀들 중 맏이이며 세 명의 동생들은 어떤 교회도 나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수녀님이 자신이 살던 집의 이웃이던 수녀님들에게 인도되어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으며 그 수녀님들의 수도원에 입회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수녀님은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제 집안 전체를 통틀어 유일한

가톨릭 신자이고 수도자입니다.” 수녀님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수녀님에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수녀님을 재건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임을 말해주었습니다. “수녀님, 수녀님은 이교도 집안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선하신 주님께 선택되어진 맘이입니다. 수녀님에게서 수도의 삶을 빼앗으려 하는 이는 원장수녀가 아니라 악마입니다. 악마야말로 고소하는 자이며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입니다. 악마는 수녀님이 수도의 삶을 계속해나간다면 수녀님 집안 전체를 악마의 손에서 해방시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성벽을 보수하며 그 성벽이 무너진 곳에 서서 나를 막는 이가 그들 가운데에 행여 있는지 내가 찾 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예제 22,30). “예루살렘 거리마다 쏘다니며 살펴보고 알아보아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는지 광장마다 찾아보아라. 올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찾는 이가 있어 내가 그곳을 용서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예레 5,1) 우리는 수녀님에게 수도원으로 돌아가서 수도의 삶을 계속 이어가며 주님께 삶을 봉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완전히 실패했어, 나는 아주 우울하고 그 어떤 것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어, 하는 것마다 실수투성이야,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내 어머니는 언제나 나에게 형편없는 아이라고 했고 어머니의 말이 맞아, 나는 죽는 게 낫겠어, 나는 패배자로 태어났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는 못해,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에는 너무나 못생겼어, 나는 학교에서 정말 형편없어, 왜냐하면 나는 진짜 멍청하니깐, 사람들은 항상 나를 거부해, 나는 삶을 낭비했어..”와 같이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낮은 자존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란과 고통을 야기하는 해롭고 부정적인 행동들 안에서 드러납니다.

낮은 자존감은 형편없는 학업성취도, 무단결석, 범죄, 폭력, 술과 약물 남용, 청소년 임신, 자살, 집단 압박에 대한 굴복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잔인한 올가미이기에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메시지에 맞추어 자신을 다루도록 합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도록 하며, 자신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방해하고, 함부로 대하도록 적절히 교육해서 그들이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대할 때 자신의 낮은 자존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낮은 자존감의 원인은 다양하며, 다음에 제시될 요인들은 낮은 자존감의 원인들입니다.

1. 형편없는 자아상

너무 뚱뚱하거나 말랐든지, 안색이 나쁘다든지, 또는 치아가 고르지 못하다든지 등 스스로의 몸이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만약 가능하다면 고치고 싶은 육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육체적인 매력이 첫인상을 좌우 하지만 이 육체적인 매력을 곧 인격적인 자질에 묻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 매우 매력적이라 생각되는 사람이 그 누구도 주위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가 수많은 친구들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은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육체적인 매력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는 매혹, 유머, 열정, 영적인 깊이에 더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2. 부정적인 어린 시절

반복적으로 비난과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아이,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을 허락받지 못한 아이,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당한 아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거나 자신이 쓸모없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아이들이 주로 자라면서 낮은 자존감을 키우고 불충분함의 감정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부모와 또래들이 자신을 불공정하게 대한다고 느꼈거나, 자신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가족들이 호감을 보이지 않았다고 느끼는 아이들 또한 자라면서 낮은 자존감을 키워나갑니다.

3. 비극적인 상황

자신이 혼외임신이나 성폭행의 결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과 같이, 과거에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했던 이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모들이 저지른 역겨운 행위들로 인해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들 중 일부는 비극적인 사건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책을 합니다.

4. 육체적 또는 감정적 학대

자녀나 배우자를 지속적이고 맹렬하게 질책하는 사람은 질책을 당하는 이들의 자존감을 황폐하게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느 무정한 남편은 자신의 아내에게 너무 못생겼고 뚱뚱하며 명청하고 게으르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말로 행하는 이 호된 ‘매질’은 육체적 폭력만큼이나 한 사람을 철저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지속적이며 가혹한 비판은 성적학대만큼이나 강력하게 한 어린이의 자존감을 상처 입힙니다. 하지만 학대의 희생자들은 자신들이 이 끔찍한 경험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5. 건강하지 못한 비교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외모, 기술이나 능력에 대한 무능함과 열등감으로 인해 힘겨워합니다. 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이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십대 소녀들은 자신의 외모가 반에서 10등 안에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으면 학우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느낍니다. 대부분의 십대 소년들은 자신이 운동과 외모, 그리고 학업에서 모두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의 인격과 성취들을 다른 사람의 것과 끊임없이 비교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6. 개인적 죄

죄는 하나의 실체로서 끔찍한 상처를 입힙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깊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일지라도 나약해지는 순간이 오면 끔찍한 악에 빠지게 됩니다. 이 같은 죄악은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쇠약하게 만들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치명적인 여파를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죄악을 알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다윗 임금이 밧세바에게 끔찍한 도덕적 잘못을 행한 후 보였던 극도의 괴로움을 생각해보십시오. 다윗은 죄악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다윗의 영혼은 낮이고 밤이고 짓눌려 쉴 수 없었고, 침묵을 지키는 동안 나날이 신음 속에 뼈들이 말라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느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가져가시도록 해드린 순간, 다윗은 삶의 기쁨과 목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시편 32,3-5).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일은 극히 드물며, 결정을 내릴 때의 대부분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다른 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이고, 이로 인해 이들은 더욱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낮은 자존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낮은 자존감은 그 자체로 아주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낮은 자기 기대감, 모험을 기피,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인정을 갈구, 자신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욱 중시, 참된 지도자로서의 자질 부족, 방어적인 성격, 자기 의심과 열등의식,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 행복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관계맺음,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 이성적이기 보다 감정적으로 대응,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길 주저함, 현재를 충실히 살지 못함, ‘아니’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같은 결과들은 시시하고 불행한 삶으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활동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훼손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삶에서 오는 문제들을 성공적이고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는 일이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결정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다른 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서이며, 이로 인해 이들은 더욱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끝은 언제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제임스 앤런(James Allen)은 자신의 책 “자신이 그런 자신의 모습대로”(*As a Man Thinketh*)에서, 사람은 정확히 자신이 그런 모습 그대로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그런 모습 그대로’라는 표현은 자신의 존재 전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조건과 상황에까지 도달하는 아주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는 모든 사고(思考)의 총체적인 요약입니다.

1. 약물남용

자기 비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비통함으로 인해 술, 중독성 있는 마약, 대마초 등에 빠져들도록 유도합니다. 약물은 사람을 강하게 기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죽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물에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자신이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자기인식과 인간존재로서 가지는 목적에 대한 회피입니다. 바오로사도가 말하듯, 우리는 악마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고(1베드 5,8), 술독에 빠져있는 이들의 불행한 운명을 지적하는 이사야 예언자의 외침(이사 5,11)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2. 성적 도착

근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수한 문제들로 인해 이성적인 정신건강을 강탈당해왔습니

다. 주목할 만한 현상들 중 하나는, 개인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젊은이 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난잡한 성생활의 가속화입니다. 이러한 젊은이들 중 대다수가 해체된 가정의 피해자들이고, 이들 중 일부는 방치된 채로 살아왔으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다른 젊은이들은 물질주의적이고 일에만 몰두하는(심지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로인해 자신의 자녀들(혹은 배우자)에게 사랑이 담긴 보살핌을 줄 시간이 전혀 없는 부모들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듯 많은 이들이 애정에 굶주립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의 사랑과 이해를 제공해주는 사람에게라도 조금의 거리낌 없이 굽복하게 됩니다. 자존감 부족은 성적인 부도덕함, 더 깊은 굴욕감을 주는 빈번한 성적 타협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며, 이는 곧 악순환이 됩니다.

“자존감 부족은 성적인 부도덕함, 더 깊은 굴욕감을 주는 빈번한 성적 타협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며, 이는 곧 악순환이 됩니다.”

3. 비판적 마음

자만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는 훼손된 자기관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평하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인위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추켜세우거나 동료를 깎아 내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이룬 성취들에 대해 과장과 거짓말을 하는 반면, 인신공격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야고 4,11).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키우기 위해 타인의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자신 안에서 활동하시어 당신 호의에 따라 우리의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필리 2,13).

4. 물질만능주의

만약 자신이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좋은 것들을 가지길 원한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는 빈약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다양한 축복을 영위하는 선한 집사로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들을 즐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의 축적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진실 된 행복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것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호감을 가지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자선가들은 물질적 번영이 사랑과 진실 된 의미를 향한 목마름보다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르십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루카 12,15)

낮은 자존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읽고, 다시 읽고, 묵상하십시오.

1.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요한 14,18).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십시오.
2. “‘산들이 밀려나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자애는 너에게서 밀려나지 않고 내 평화의 계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가엾이 여기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이사

- 54,10) 이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낮은 자존감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3.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가 위로 하늘을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헤아릴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이 저지른 온갖 소행 탓에 그들을 모두 내던져 버릴 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예레 31,37)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느님께서 왕이시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4. “에프라임은 나에게 귀한 자식이요 귀여운 자식이 아니던가!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더욱 그가 생각난다. 그러니 내 마음이 그를 가엾이 여기고 그를 몹시도 가여워하지 않을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이다.”(예레 31,20)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여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5. “우리가 비천할 때 우리를 기억하셨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시편 136,23). 모든 이가 우리를 잊을 때조차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 주님 같으신 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6. “주님께서는 광야의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만 들리는 삭막한 황무지에서 그를 감싸 주시고 돌보아 주셨으며 당신 눈동자처럼 지켜 주셨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휘저으며 새끼들 위를 맴돌다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들어 올려 깃털 위에 엎어 나르듯”(신명 32,10-11). 광야의 경험 안에서 고통의 몸부림을 하는 순간에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우리에 앞서 이동하는 구름기둥이신 주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절망

“절망은 과거를 향한 불평이고 현재를 향한 싫증이며 미래를 향한 불신입니다. 절망은 어제 주어진 축복에 대한 배은망덕이고 오늘 주어진 기회에 대한 무관심이며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절망은 오늘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무지이고, 동료가 요청하는 도움에 대한 무관심이며, 오래 전에 주어진 약속에 대한 불신입니다. 절망은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조급함이고, 사고(思考)에 있어서 미성숙함이며, 하느님께 대해서는 무례함입니다.”(윌리엄 A. 워드). 예수님께 돌아서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읽습니다. “주님은 소박한 이들을 지켜 주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 주셨네”(시편 116,6).

절망은 말 그대로 좌절하는 행위, 절망하고 있는 상태, 또는 낙담시키는 어떤 것입니다. 절망은 또한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느끼게 되는 절망감, 또는 괴로운 상태, 열정과 동기 혹은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 또는 반대와 못마땅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대해 어떠한 정의를 내리든 간에, 그것은 우리 삶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그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삶의 어느 순간에 각자의 방식대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은 우리가 성공의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느낄 때,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진정한 자기 자신보다 못하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절망을 방치한 채로 남겨두게 되면 쉽사리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절망은 삶의 전반에서 일어납니다: 한 직원이 회사의 성공을 위해 있는 힘껏 일했지만 돌아온 것은 상사의 칭찬이 아닌 끔찍한 질책뿐일 때, 한 여성의 남편의 외도로 인해 결혼생활을 끝내려 할 때, 젊은 부

부가 자녀를 가지고자 하지만 두 번의 실패로 힘겨워 할 때, 새 신자가 더딘 영적 성장과 신앙의 불안정으로 인해 옛 악습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될 때, 한 학생이 학업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난과 실업에 빠져들게 될 때 등.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들은 절망에 대처해야 하고 그 대처방법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너무도 낙심하고 괴로워 삶을 포기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절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절망은 누군가를 무력화시키고 아무 영향력도 줄 수 없게 만들며 진로를 막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 가까이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민수 32,9) 성경은 또한 절망에 대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당신의 제자들을 체질 할 것이라 예언하셨던 것처럼, 수학 때에 잘려나가 짧아지거나 힘이 꺾여버리고 주어진 일을 성취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루카 22,31-32).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 앞에 서서 가시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집트에서 하신 것과 똑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신명 1,29-30

자신이 절망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신과 영혼이 근심으로 가득차서 잠을 잘 수 없을 때, 정신이 딴 데 가있고 무료함이 몰려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때, 용납할 수 없는 현실에도 안주하게 될 때, 오랫동안 식사를 하지 않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입맛을 잃었을 때,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속하게 될 때, 끊임없이 슬픔을 느낄 때, 지나치게 비관적일 때, 희망이 없고 무가치하며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원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요?

1. 좌절감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했던 말을 떠올려보십시오. 그 작업은 결코 성벽을 쌓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들만큼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많은 잔해들로 인해 너무나도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짐꾼의 힘은 다해 가는데 잔해들은 많기만 하구나.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쌓지 못하리라

-느헤미야 4,4

유다인들이 좌절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정말로 너무 많은 잔해들 혹은 노동의 피로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이들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정했고 그렇기에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아마도 적들이 자신들에게 위험을 가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거나(느헤미야 4,3.5), 혹은 너무 많은 것을 한번에 시도하고 있었고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어 속상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본질적으로, 하느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이 좌절감의 뿌리입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내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2. 무력감

때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분명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통제 할 수 없으며, 무엇을 하든 소용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상황을 개선시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상황에서 불쾌하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은 생기와 열정을 잃게 됩니다.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믿게 됩니다. 투쟁을 멈추고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웁니다. 스스로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나쁜 일들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불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결 할 수가 있습니다.

3. 집중력 부족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거나 약속시간에 지속적으로 늦을 때, 특히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쉽게 산만해지며 세금납부, 전화답신, 집안일을 미룰 때, 불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질서정연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움으로 둘러싸여있을 때, 우리는 실망과 낙담으로 향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 곧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으며 어떻게 그곳으로 도달할지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나 자신의 요구를 해야 합니다. “눈은 똑바로 앞을 바라보고 눈길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잠언 4,25).

어떻게 하면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읽고, 다시 읽고, 묵상하십시오.

1. “아, 네가 내 계명들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너의 평화가 강물처럼, 너의 의로움이 바다 물결처럼 넘실거렸을 것을.”(이사 48,18) 절망을 몰아내고 삶의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하느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2.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여호 1,9) 스스로에게 소리 높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이다.’
3.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은,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시편 1,3)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곁에 머물며 당신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4.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

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예레 1,19)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절망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5.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 그가 내 이름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하여 영예롭게 하리라.”(시편 91,14-15) 부디 절망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환난 속에서 구원해주시고 해방시켜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서 주님께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속히 가장 좋은 새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루카 15,22 참조)
6. “너는 의로움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압박에서 풀려나리니 네가 두려워할 일이 없으리라. 또 공포에서 풀려나리니 그것이 너에게 닥쳐오지 아니하리라.”(이사 54,14)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요한 8,32 참조)
7.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로마 8,15)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는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영이심을,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음을(2코린 3,17)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돌아서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남자

우리가 케냐에 있는 카미티 감옥에서 피정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미사집전을 돋기 위해 온 한 죄수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아주 행복해 보였고 우리를 도와 아주 열심히 제대를 차렸습니다. 우리는 이 죄수를 교리교사라고만 생각해왔는데 알고 보니 사형수였습니다. 우리는 이 남자에게 이토록 온순한 사람이 왜 감옥에 수감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죄수는 자신이 도둑이었으며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며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강도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지만, 체포된 경위가 조금은 이상했습니다. 이 남자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친구들과 도둑질을 하러 갔는데, 친구들이 건물 안에서 물건을 훔치는 동안 이 남자는 밖에서 경찰이나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이 남자는 잠에 빠져들었고, 물건을 다 훔치고 밖으로 나온 친구들은 이 남자를 남겨둔 채 떠나버린 것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 남자는 건물 밖에 홀로 남겨져 있었고 용의자가 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서 친구들에 의해 살해된 두 사람의 살인에 대해서도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사건에서 죄가 없지만 그래도 분명 하느님께서 저를 이 곳으로 이끄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곳에 도착해서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제 구원자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의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만 들리는 삭막한 황무지에서 그를 감싸 주시고 돌보아 주셨으며 당신 눈동자처럼 지켜 주셨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휘저으며 새끼들 위를 맴돌다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들어 올려 깃털 위에 엎어 나르듯 주님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 곁에 낯선 신은 하나도 없었다.”(신명 32,10-12) 이 죄수에 따르면, 감옥 안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광야의 체험이 그로 하여금 하느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 곳이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계신 하느님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 남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로 제가 범해왔던 죄들로 이 죄수보다 더 큰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죄수에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십니다.”(시편 103,10)

비탄

비탄은 극심한 슬픔이며, 특히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생깁니다. 비탄은 또한 극심한 슬픔의 경우나 그 원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중요한 존재의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비탄은 우리가 사랑하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잃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적인 고통입니다. 비탄은 이별, 애완동물의 죽음, 건강악화, 소중히 간직해오던 꿈의 상실, 실직, 사랑하는 이의 중환, 재정적 안정성의 상실, 깨어진 우정, 유산, 트라우마 이후 안전성의 상실.. 등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서십시오. 그분께서 우리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어 주실 것입니다(이사야 25,8; 묵시 21,4 참조).

누구도 제 아버지를 돌보아주질 않아요(어느 수녀님의 이야기)

형제, 자매들 중 그 누구도 늙고 병든 아버지를 모시려 하지 않는 것이 이 수녀님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이 수녀님은 이미 예전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녀님의 형제, 자매들은 아버지를 집에 모시거나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하지 않았고 날이면 날마다 유산을 나누어달라고 아버지를 위협하고 강요했습니다. 선교 수녀회 소속이었던 이 수녀님은 아버지의 고통을 보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제가 이 수녀님을 위해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잠언 20장 20절의 말씀을 계시해주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둠의 시간에 그의 등불이 꺼진다.” 저는 수녀님에게 수녀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사건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자신이 어릴 적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수녀님의 할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땅과 재산을 나누어주고 있었을 때, 수녀님의 아버지는 자신이 더 많은 땅과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음을 분해하며 삽을 들고 수녀님의 할아버지를 쫓아다녔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두려워 몇 달을 몸져눕게 되었고 다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도 했습니다. 그때 지혜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바로 그들로 징벌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지혜 11,16) 이 수녀님은 아버지가 지은 죄가 벌이 되어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고 위협을 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수녀님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9번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녀님의 형제, 자매들 모두 피정에 참여했고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을 상실하게 되면 그로인한 비탄 역시 더욱 강렬해집니다. 하지만 이사, 대학졸업, 직업변경,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팔거나 사랑하던 직장에서 은퇴하는 등의 미묘한 상실들 또한 우리를 비탄에 잠기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실이라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상실로 인해 충격, 분노, 죄의식 등 온갖 종류의 힘들고 뜻밖에 찾아오는 감정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슬픔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자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현세적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2코린 7,10 참조) 상실로 인해

일어나는 감정들은 우리를 겁먹게 만들고 그것에 저항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는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을 비통해하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끼도록 허락한다면, 치유는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통에 대처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건강한 방법으로 슬퍼해야 합니다. 슬퍼하는 데에는 옳고 그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비탄에 잠기는 것은 지극히 인격적이며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비탄에 잠기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대처방식, 삶의 경험, 신앙, 상실의 성격 등 많은 요인에 달려있습니다. 비통해 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슬퍼한다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오직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강요되거나 서둘러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표에 예약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분이 나아지는 데에 누군가에게는 몇 주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몇 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비탄에 잠겨 고통받고 있다면,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많은 경우들:

- 우리는 그것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 안에서 비탄을 무시하려 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시는 감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 운다는 것은 약함의 표지라고 믿고 있기에 ‘강해지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을 보호하겠다는 이름으로 굳건한 얼굴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가족이나 친구, 또는 우리 자신을 도와주는 길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 우리는 울지 않으면 상실에 대해 유감스러워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슬픔에 대한 반응에는 우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울지 않고도 우는 사람만큼 깊이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 우리는 슬퍼하는 데에 적어도 일 년은 걸릴 것이라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슬퍼하는 기간에 대한 옳고 그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슬퍼하는 기간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오해들은 우리를 과도한 비탄에 빠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오해들은 슬픔의 과정이 궤도를 벗어나고 비탄의 징후가 격렬해질 때 생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상실과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에 과도하게 집착할 수 있고, 죽은 이를 강하게 그리워하고 갈망할 수도 있으며, 죽음에 가까워지는 문제들을 가질 수 있고, 그저 멍해지며 무심해 질 수 있습니다. 슬픔에 사로잡히고 상실로 인해 쓰라리며, 삶을 즐기는 능력을 상실하고 깊은 슬픔과 우울증을 겪으며,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사회 활동을 중단하며, 삶의 의미나 목적을 갖지 못한 채, 짜증내고 불안해하며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단 하나의 해결책은 이 모든 고통과 비탄을 겪어내신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히브 4,15-16).

누나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느 청년의 이야기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그런데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리

라”(집회 27,27). 저는 한 상담사로부터 자신의 누나들의 결혼을 위해 피정에 참여하게 된 한 청년의 이야기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여자 친구가 있었지만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의 누나들이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누나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장애물들이 극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정에 참여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와중에, 이 청년은 “사람이 죄를 지은 바로 그것들로 징벌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라는 지혜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이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중계업자라고 답했습니다. 청년은 집집마다 각기 다른 채널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일과 관련해서 악행을 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자신이 여분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방송 채널을 연결해주곤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청소년들과 많은 가정을 상처 입혀왔던 악한 죄를 자신이 뿌리고 있었음에 대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거기에 떨어지고 뒷을 놓는 자는 자신이 거기에 걸리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그런데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리라”(집회 27,26-27). 이 청년은 회개하였고, 기적처럼 청년의 누나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 감정의 단계는 아주 개별적이므로 다양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설명들은 처음에 비탄에 빠지는 단계들로서 설명되어졌던 각 단계들의 모습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비탄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비탄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한다면, 아래에 설명되어질 단계들을 순차적이고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경험하게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1. 충격과 불신

충격과 불신은 상실과 죽음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보이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 소식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저 멍해지거나 그 사실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진실을 부정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태의 중대함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정보를 믿지 않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실들을 무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소식을 전해 준 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이 다시 자신의 앞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부인

많은 경우에, 충격과 불신의 다음 단계는 부인입니다. 이는 짧은 기간 지속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동안 이를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부인하는 사람은 현실을 거부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협상

우리를 대다수는 상실이라는 소식을 접하면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는 우리가 시간을 다시 되돌려서 상실을 뒤엎고 싶어 하거나 하느님과 흥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이러한 협상은 우리가 “이 일은 저에게 일어나야 했습니다.”, “저를 대신 데려가십시오.”, “없었던 일로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게 될 때 일어납니다.

4. 죄책감

죄책감은 보통 협상과 겹쳐서 일어납니다. 죄책감은 아주 분명한 반응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입니다. 하지만 이 비난의 더 근원적인 감정은 상실한 이를 향한 화해의 저의를 품고 있습니다. 못다 한 말과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마와 싸워온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밀려오는 안도감과 같은, 상실로 인해 밀려오는 분명한 감정들에 대한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음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5. 분노

그 상실이 어느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닐지라도, 자기 자신과 하느님, 그리고 의사 또는 심지어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 분노하고 억울해 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이가 자신을 버렸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혼란을 밖으로 표출하기 위해 자신에게 일어난 이 부당한 일에 대해 비난을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6. 의기소침

의기소침은 전반적인 비탄의 과정 안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매 단계마다 계속 되풀이 될 수 있습니다. 공허함을 느끼고 삶의 많은 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삶을 계속 이어나갈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강렬한 슬픔의 안개 속에 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기소침의 감정이 향정신성 약물복용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이 아니라, 크나큰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진실은 우리가 결코 비탄에 대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즐거움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 수용(받아들임)

반가운 소식은 우리가 마침내 벌어진 일을 다시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 현실이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 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연히, 수용과 희망이 사고의 과정 안으로 자리 잡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수용과 희망은 화해와 삶으로의 복귀를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비탄의 과정에서 걸어 나오는 길은 기본적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분명한 일들이 그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야 만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결코 비탄에 대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즐거움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실을 단지 긍정적은 정신 자세로 마주해야만 하는 삶의 도전들 중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길 청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비탄에 잠기도록 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기념일, 휴일, 중요한 사건들 등과 같은 기억과 감정을 되살아나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감정적으로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결코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안에서 지켜 주실 것”(필리 4,7)을 깨달으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은 나아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간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기에 얼른 영적인 도움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어야 한다는(필리 4,6)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하느님의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으며, 주님께서는 당신의 지상생활에서 보여주셨듯이 하느님께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우리의 비탄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하느님의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으며, 주님께서는 당신의 지상생활에서 보여주셨듯이 하느님께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우리의 비탄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때가 되면, 치유가 상실의 아픔을 감소시킵니다. 사랑했던 이에 대한 생각과 기억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게 뒤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기억들이 그 사람이 가지는 삶의 역사를 규정하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색을 입힙니다.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현재진행중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움이 우리의 삶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면, 이는 우리가 힘겨운 비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영적 상담 등을 통해 이로부터 치유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읽고, 다시 읽고, 묵상하십시오.

1. “슬픔에 너 자신을 넘겨주지 말고 일부러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마음의 기쁨은 곧 사람의 생명이며 즐거움은 곧 인간의 장수이다. 긴장을 풀고 마음을 달래라. 그리고 근심을 네게서 멀리 던져 버려라. 정녕 근심은 많은 사람을 망쳐 놓고 그 안에는 아무 득도 없다.”(집회 30,31-23) 자신이 빠져있는 슬픔의 원인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내어주시는 위로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2.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1테살 4,13-14)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새 시작임을 깨달으십시오.
3. “슬픔이 지나치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마음의 슬픔은 기운을 떨어뜨린다. 불행 가운데 슬픔도 머무르니 마음은 가난한 자의 삶을 저주할 뿐이다. 네 마음을 슬픔에 넘기지 마라. 슬픔을 멀리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집회 38,18-20) 이 말씀에 따라 슬픔을 이

겨내십시오.

4. “죽은 이에 대한 애도는 이례 동안 계속되지만...”(집회 22,12). 너무 오래 지속되는 애도는 비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면 가능한 빨리 주님께로 돌아서서 과도한 슬픔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5.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애도하지 마라. 오히려 멀리 떠나가는 자를 위하여 슬피 울어라. 그가 다시 돌아와 제가 태어난 땅을 보는 일이 없으리라.”(예레 22,10)
6.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마음에 들어 그를 악의 한가운데에서 서둘러 데려가셨다.”(지혜 4,14)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당신께로 데려가시는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모든 것에 있어 저보다 훨씬 지혜로우십니다.”라는 말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드리십시오.
7.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로마 14,7-8)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8.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하고 물으셨다.”(요한 20,15). 주님, 제가 당신께서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제가 눈물을 멈출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동료 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박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만 옷을 입고, 특별한 스타일로 머리를 빗어 넘기며, 음악과 영화에 관해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러한 의견들을 공유하거나 옷과 헤어스타일을 따라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이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의하십시오. 자신이 “동료 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박”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집단으로 ‘들어가서 어울리게’ 되면 곧 집단의 친구들과 동일한 가치와 믿음, 같은 목표를 가져야만 하며 친구들의 여러 활동에 똑같이 참여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동료 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박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의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로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각기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료 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박은 한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를 빼먹고 술과 흡연을 하며 심지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압박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에서 잘못되고 위험하며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예레 29,11 참조).

유치원 친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4살 어린이, 이웃들 모두가 값비싼 차를 가지고 있기에 고가의 차를 사려고 하는 중년의 남성, 친구들이 자녀들이 모두 특정한 좋은 사립학교에 다니기에 자신의 자녀도 그 학교에 입학시키려는 부모 등, 동료 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박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결혼도 하지 못했고 아이도 없습니다

“신부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벌써 39살이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습니다.

제 이러한 상황이 어떤 저주 때문일까요? 제 동료들은 제가 저주를 받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라 말해요. 친구들이 충고하길, 남편이 없다면 적어도 죽기 전에 아이만은 가져야 한대요. 제 혈육을 남겨야 한다면서요.” 이 여인은 혼란스럽고 부서지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느님께 하느님을 경외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런 남자를 아직 만나지 못했거든요. 저는 누구와도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억압받는 기분이에요. 제 친구들은 남편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제 삶이 실패한 인생이라 말한답니다.” 이 여성의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건네시기 위해 저에게 지혜서 3장 13절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행복하여라, 자식을 낳지 못해도 정결한 여자! 죄 되는 잠자리에 들지 않은 여자! 하느님께서 영혼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는 결실을 볼 것이다.” 하느님께서 이 말씀에 이어서 또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환성을 올려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기뻐 소리쳐라, 즐거워하여라. 산고를 겪어 보지 못한 여인아! 벼림받은 여인의 아들들이 혼인한 여인의 아들들보다 많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이사 54,1) 혼인을 하지 않고 정결히 지내는 삶 역시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많은 이들이 거룩한 독신생활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 많은 세대가 정화되고 수많은 가정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다른 이들의 것과 비교하거나 다른 이들의 스타일을 모방하려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는 특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유일무이한 창조물입니다. “한 해의 모든 날빛이 같은 태양에서 오는데도 어찌하여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좋은가? 날들은 주님의 통찰력으로 구분되었고 그분께서는 계절과 축일을 정해 놓으셨다”(집회 33,7-8). “옹기장이가 제 손에 있는 진흙을 제 마음대로 빚듯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분의 손안에 있고 그분께서는 당신 결정에 따라 인간에게 되갚으신다.”(집회 33,13)

만약 자신이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면, 동료의 압박을 더 강하게 느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자존감이 낮을 경우
- 가정의 불화를 겪고 있을 경우
- 생활에 있어 지원이나 대화가 거의 없는 가정에서 커 온 경우
- 단일 혹은 소수 민족 집단에 강하게 속해있을 경우
- 학교나 공동체 활동으로부터 멀게만 느끼거나,
- 학교나 공동체 활동에 속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에서 우리는 규율을 따르고 협조하며 똑같이 행동하고 순종하며 맹목적으로 받 아들이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아래의 상황에 처해있다면 분명히 동료집 단의 압박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경우
- 어울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경우
- 높은 지위를 찾고 있는 경우
- 친구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경우
- 눈에 띠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은 경우
- 자신의 자율권을 주장하려 하고 있는 경우

- 자신의 정체성을 찾길 원하고 있는 경우
- 지지나 허가를 구하고 있는 경우
- 어떤 것에 뛰어나길 원하고 있는 경우

부정적인 압박에는 저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으며,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부정적인 압박에 복종하게 되면,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고 다른 이들의 호의를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압박에 대한 복종은 자신과 부모(또는 배우자, 가족, 공동체 등) 사이에 긴장을 조성하고 자신의 건강과 더불어 미래까지 망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압박들로부터 빠져나와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반드시 부정적인 압박에 저항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들을 배워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동료 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읽고, 다시 읽고, 묵상하십시오.

1.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이사 49,16). “용기를 내어라, 예루살렘아! 너에게 이름을 지어 주신 분께서 너를 위로하시리라.”(바룩 4,30)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에페 2,10)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행해야 할 특별한 임무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쓰실 사람들임을 깨달으십시오.
3.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온몸이 듣는 것뿐이면 냄새 맡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그 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1코린 12,17-18)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눈에 대단히 가치있는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한 사람의 부재는 커다란 공백을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존재들입니다.
4. “한 해의 모든 날빛이 같은 태양에서 오는데도 어찌하여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좋은가? 날들은 주님의 통찰력으로 구분되었고 그분께서는 계절과 축일을 정해 놓으셨다. ... 인간은 누구나 땅에서 났으며 아담은 흙에서 창조되었다. 주님께서는 충만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시어 그들의 길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 옹기장이가 제 손에 있는 진흙을 제 마음대로 빚듯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분의 손안에 있고 그분께서는 당신 결정에 따라 인간에게 되갚으신다.”(집회 33,7-13) 주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을 다른 이들과 구별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다른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5.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그릇만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이 씻

어 버리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 곧 거룩하게 되어 주인에게 요긴하게 쓰이고 또 온갖 좋은 일에 쓰이도록 갖추어진 그릇이 될 것입니다.”(2티모 2,20-21) 자신이 자신의 동료들보다 유능하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는 얼른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의 귀하신 피로 자신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 손 안에서 소중한 도구로 써주실 것입니다.

6.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주님께 성별된 것’이라고 새겨지고, 주님의 집에 있는 솔들은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처럼 될 것이다.”(즈카 14,20) 상상해보십시오. 솔들이 주님에 집에 있음으로 인해 거룩해질 수 있다면,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의 모습으로(창세 1,26 참조) 창조된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께로 돌아선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고 애쓰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7. “...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분께서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히브 13,5) 예수님이께서는 우리가 우리 모습 그대로에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8. “모든 것이 풍부한데도, 너희가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 너희 하느님을 섬기지 않은 까닭에, 너희는 짚주림과 목마름과 혈벗음과 온갖 궁핍 속에서, 주님께서 너희를 치라고 보내시는 너희의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신명 28,47-48)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 행운을 쳐다보느라 정작 자신의 삶에는 무관심합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느끼는 기쁨으로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목소리와 외양, 우리 자신의 모습대로 각자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창조자께는 더없이 특별합니다.
9. “만물은 서로 마주하여 짹을 이루고 있으니 그분께서는 어느 것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좋은 점을 돋보이게 하니 누가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싫증을 느끼겠는가?”(집회 42,24-25).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복사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 안에서 다른 이들의 좋은 점을 돋보이게 하길 원하십니다.
10.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에페 5,1) 우리 삶에서 예수님보다 더 본받아야 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 돌아서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찾아 헤매는 우리 자신만의 정체성을 주실 것입니다.
11. “그러면 너희는 다시 의인과 악인을 가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이와 섬기지 않는 자를 가릴 수 있으리라.”(말라 3,18) 우리를 유일무이한 존재이자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직업이 없는 남자 이야기

이 남자는 실직한지 6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뛰어난 자질을 가졌고 국내외기업을 불문하고 많은 다양한 면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로운 직장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성당에서 그토록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기억해주지 않으시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 남자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우리는 잠언 19장 26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자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내쫓는 자는 수치스럽고 파렴치한 자식이다.”(잠언 19,26) 이 말씀을 받고나서 우리는 그에게 자신의 아버

지를 훌대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남자는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두 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후로 아버지 얼굴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 아버지에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어머니를 내쫓지는 않았습니까?” 이 남자는 답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사실일 것입니다. 제가 해외로 나가 있을 때, 제 아내가 제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았고 음식도 주지 않았으며 병원에도 모시고 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어머니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고 말하며 저를 몰아세웠었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 두 사람은 남극과 북극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남자에게 집회서 7장 27-28절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어머니의 산고를 잊지 마라. 네가 그들에게서 태어났음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네게 베푼 것을 어떻게 그대로 되갚겠느냐?” 그리고 말씀에 덧붙여 말씀에 대한 해석도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음에도 선생님을 낳고, 교육한 사람은 바로 선생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선생님의 어머니는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선생님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내로 하여금 선생님의 어머니를 훌대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주님께서 선생님에게 직장과 아내와 가정이라는 복을 내리신 것이 모두 선생님의 어머니 때문이었음을 명심하십시오. 선생님이 어머니를 향한 자비를 거두어들인 순간, 주님께서도 선생님으로부터 직장을 거두어들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선생님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가 바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어머니를 돌보지 않은 그 순간 직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청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모님을 훌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둠의 시간에 그의 등불이 꺼진다.”(잠언 20,20) 아무리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애원하고 위협할지라도, 결코 누구에게라도 부당한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5장 아프리카가 간직한 내면의 상처

“아프리카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거부, 욕정, 분노, 낮은 자존감, 두려움, 비탄, 좌절,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처들로 인해 고통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비와 연민이 충만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이들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건강한 이들이 아니라 아픈 이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셀 수 없이 상처입은 이들을 치유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이들은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치유하시는 손길을 받을 것입니다.”(탈출 15,26 참조)

거부로 인한 상처

거부감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느끼는 감정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거부의 감정은 우리 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길 원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도 없다고 믿을 때 생깁니다. 한 단체에 속하고 싶지만 그 그룹으로부터 배제되었다고 느낄 때 생깁니다. 때로 우리가 느끼는 거부는 마음이 그것에 집중하기를 거부할 정도로 아프고 속상하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부라는 것이 마음보다도, 이성보다도, 기억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부로 인한 상처는 우리의 영혼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로부터 빠져나오는 단 하나의 길은 우리 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시는(요한 6,37 참조)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 뿐입니다.

잠언은 거부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괴로우 면 기가 꺾인다.”(잠언 15,13) 그렇기에 성경이 “사람의 정신은 제 병을 참아 내지만 기가 꺾인 정신은 누가 견디어 내랴?”(잠언 18,14)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진실입니다. 힘이 넘치는 정신은 대단히 힘든 일을 겪을 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가 꺾인 정신은 삶의 전반에

심각한 손상을 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풍요롭고 활기 넘치며 영원한 생명으로 말입니다.

마태오복음 9장 36절에서 우리는 가엾은 마음이 드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군중들은 그 어깨가 많은 짐들(의무들)에 짓눌려 지치고 시달리며 좌절하고 있었고 그들을 돌보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자비롭고 사랑 가득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저 군중을 바라보시듯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마카베오기 하권 6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이들이 이러한 고난에 좌절하지 말고, 이 징벌을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키려는 것으로 여기도록 권고한다.” 다윗 왕은 시편 25장 16절에서 아빠 아버지 하느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입니다.”

딸인가요? 아니면 하녀인가요?

우리가 피정지도를 하는 중에 키가 아주 작은 소녀처럼 보이는 한 여성이 피정 중 주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증언을 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이 여성은 증언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눈에 저는 12살 정도의 소녀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는 34 살 이예요.” 이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대학생 때 이 여성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의 아버지는 아내와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공부도 할 수 없고 아이를 돌 볼 수도 없었기에 막 태어난 아기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자신의 할머니에게 있어 이 여성은 그저 짐일 뿐이었고, 할머니는 이 여성에게 계속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대학을 마치고는 자신과 자신의 딸을 돌보아줄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여성은 아기에서 소녀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와 가까워져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여성의 어머니는 자신이 아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하녀라고 속인 채 데려왔으며, 이 여성에게 여성의 딸임을 결코 드러내선 안 된다고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하녀로 있는 동안 이 여성은 요리를 하고 청소를 했으며, 자신의 어머니와 새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이복동생들의 옷가지들을 빨래해야 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이복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동생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신도 학교에 갈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 여성의 새아버지는 이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고, 이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여성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닥치고 조용히 있어! 그이는 내 남편이야. 그이에 대해 다시는 불평하지 말고 불만이 있으면 짐 싸서 집을 나가도록 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모두 너 때문이야!”라고 말이죠. 이것이 이 여성의 겪은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성은 때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나머지 가족들이 쌀 한 틀도 남기지 않고 비웠거나 아니면 먹는 것도 힘겨울

정도로 지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성에게 먹을 것은 먹다 남긴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벼림받음의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서 오는 그 쓰라림의 감정들이 이 여성 안에서 솟아났고 이러한 감정들이 이 여성의 성장을 방해했습니다. 이 후에 여성은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어머니 집을 떠났지만 집 밖에 있는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축복으로 이 여성은 이 피정으로 이끌어주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너무 미워했어요. 각기 다른 이유로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고, 집에서 도망치려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었어요. 저는 제 어머니를 죽어도 용서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 저를 무시하고 그동안 저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로 인해, 그리고 제가 그토록 원했던 사랑을 단 한번도 주지 않았던 어머니가 죽도록 미웠어요. 하지만 이 피정을 통해 저는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참된 아버지시고 어머니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도망쳐 나온 이후로 집 쪽으로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새롭게 깨달은 사랑에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용서를 청할거예요. 저는 앞으로 제가 깨달은 이 사랑을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이렇게 이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이 여성은 온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돌보고 아내는 남편을 돌보며 남편과 아내 모두가 자녀들에게 동등한 사람과 보살핌을 건네주는 선하고 거룩한 가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이곳 아프리카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직무를 위해 성별되어지는 거룩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될 신심깊은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가정을 통해서입니다. 성가정 없이 미래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수녀님의 이야기

성직자와 수도자를 위한 피정을 진행하던 중에, 한 수녀님이 다가와 자신의 성소에 대한 문제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수녀님은 65세 이상으로 보였으며, 주님께서 자신을 정말 부르신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겪었던 자신을 향한 무의식적인 거절로 인해 자신이 도망쳐 온 것인지 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루카 6,44)라는 성경말씀을 들면서 주님께서 수녀님을 부르셨으며 이것이 수녀님이 그 오랜 세월동안 수도생활을 이어 올 수 있었던 이유임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녀님은 여전히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 같아보였습니다. 수녀님은 자신의 왼쪽 수도복을 걷어 올리고는 심한 화상에 뒤덮여 있는 자신의 유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몸 왼편 전부가 화상을 입었으며 심지어 머리도 화상을 입어 머리 왼편은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녀님의 말에 따르면, 수녀님은 태어날 때부터 화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낙태하려고 세정제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이 수녀님이 수도원에 입회하고 수녀가 되고 나서부터 겉으로 보이는 것은 없지만 자신의 내면은 날마다 불에 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축복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벼림받은 기분이에요.” 수녀님은 여전히 주님께서 정말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추한 몸 때문에 누구도 자신과 결혼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도망을 친 것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수녀님은 이어 질문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부르신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요한복음 15장 18-19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세상

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수녀님에게 수녀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임을 설명해주었습니다. 또한 이에 덧붙여 성소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어지는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종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예레 1,5)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설립한 사랑의 선교회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보살핍니다. 한번은 사랑의 선교회 수녀님들이 10대 소년을 피정에 데려왔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소년이 갓난아기였을 때 소년을 길에 버렸고, 소년은 사랑의 선교회 수녀원 중 한 곳으로 보내어 졌습니다. 이 소년은 수녀님들의 보살핌 아래서 아주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녀님들은 이 소년의 행동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자신의 나이보다 한참 어린 아이처럼 미숙하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녀님들은 소년이 걱정되었고 소년을 피정에 데려왔습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지혜서 3장 16-19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음의 소생들은 크지 못하고 부정한 잠자리에서 생긴 자식들은 망하고 만다. 오래 산다 하여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결국은 나이가 많음도 그들에게는 영예롭지 못하다. 일찍 죽는다 하여도 희망이 없고 심판 날에 아무 위안도 받지 못할 것이다. 불의한 족속의 끝은 이처럼 비참하다.” 이 소년에게 부족한 것은 다름 아닌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소년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정신적으로 불안해진 것입니다.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무시한다면, 이는 아내와 아이만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곧 찾아오든 오랜 시간 뒤에 찾아오든 아내와 자녀를 버린 아버지 역시 책임이 있기에 고통을 받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가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일전에 우리는 아이가 성적인 욕망에 의해 태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여인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기 자신과 모든 남성을 향한 두려움과 분노, 불관용과 증오의 감정을 키우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지우고 싶어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되자마다 남자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은 여성 역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태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1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맏물로 바치는 뺑 반죽 뎅이가 거룩하면 나머지 반죽도 거룩합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자신이 임신한 아이를 받아들이십시오!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피정에 데려왔습니다. 이 어머니는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딸이 왜 그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사람들 앞에 나서길 꺼려하는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이 딸아이의 어머니는 대학생시절에 임신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평펴짐한 옷을 입고 우스꽝스런 걸음걸이를 연구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부끄러움이 딸에게 옮겨갔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루카 1,44) 뿐만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격 또한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루카 16-17). 이 어머니는 딸아이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고 점차 부끄러움으로부터 해방되어졌습니다.

당신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머니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이 두려움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피정에서 간증을 하는 시간에 한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여성은 내면의 치유 기간에 환시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환시를 통해 이 여성은 방으로 들어오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한 아기가 누워있는 아기 침대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보자마자 그 남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의 아버지는 사내아이를 원해왔지만, 아내는 임신하는 족족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부부는 세 번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사내아이를 갖기 희망하며 마지막 시도를 했지만 역시 딸아이를 출산했고 아버지는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이 여성은 바로 마지막에 태어난 딸아이였던 것입니다. 이 여성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무의식적인 거부를 당해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그 어떤 실망의 말을 들은 적은 없었음에도, 이 여성은 아버지가 어렵고 큰 거리감을 느꼈으며 아버지로부터 그 어떤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알지도 못했고 설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부모에게 이러한 감정을 느끼길 원치 않습니다.

환시에 등장했던 아기는 바로 이 여성 자신이었고 울고 있던 남자는 여성의 아버지였습니다. 내면의 치유 시간에 주님께서 이 여성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간증을 마무리하며 여성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주님께서 저를 여성으로 창조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아버지에게 거리감을 느끼지 않아요.” 어머니의 감정만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예시처럼 아버지의 감정 역시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 역시 수태라는 기적에 동참하는 사람인 때문입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어 드리는 기도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은 하느님뿐입니다.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부모의 감정과 성격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좋은 것들도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것이 사랑에서였든 성적인 욕망에서였든 간에, 태어난 아이는 부모 양쪽 모두로부터 사랑 받고 보살핌을 받아야만 합니다. 원치 않던 아이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중절은 선택사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낙태에 대한 생각은 조금이라도 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19살 남학생이 자신의 아버지와는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집을 구했습니다. 이 남학생의 아버지는 한 때 잔뜩 술에 취해 아직 미혼의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여성은 이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남자는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아이는 태어났고 이 아이가 바로 이 19살 남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의 친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손자를 낳아 준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조언을 해주었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이를 거부하고 여인과 아이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는 압력에 못 견디어 여성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자신의 아이를 경멸했습니다. 이제 이 남학생은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전달되었던 것과 같은 감정이 이 학생에게 심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은 이 학생이 다 자라게 되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화가 잔뜩 난 채, ‘저는 아버지를 없애 버리고 말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강요했던 ‘아이를 지우라’는 그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와서 자신의 집에서 공짜로 지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러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4개월 후, 그 집에서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집에 계속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왜 아니라고 하는지를 묻는다면, 두려움 때문이라 답할 것입니다. 자신이 살 집을 공동묘지 한 가운데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뱃속의 아기를 지운 어머니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아기를 지운 어머니의 자궁은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낙태는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부모의 감정과 성격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좋은 것들도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화가 잔뜩 나 있는 소년

존은 집 밖에서는 아주 친절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자신의 부모에게 만큼은 몹시 화가 나있었습니다. 존의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존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둘 다 아직 아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기에 아이를 지우길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존이었습니다. 존은 성장하면서 점점 더 자신의 부모님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을 원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은 부모를 향한 겉잡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황금은 어이 이리 빛을 잊고 순금은 어이 이리 변하였는가? 거룩한 돌들은 거리 모퉁

이마다 흘어져 있구나.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금으로나 값을 매길 수 있던 그들. 아, 어찌하여 옹기장이 손이 빛어낸 질그릇처럼 여겨지는가? 승냥이들도 가슴을 헤쳐 제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건만 내 딸 백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매정하게 되어 버렸구나. 젖먹이는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어린것들은 빵을 달라고 애원하건만 그들에게 한 조각 주는 이가 없구나.”(애가 4,1-4) 타조의 특이점은 유방선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타조는 수유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어머니처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주실 수 있으십니다.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이사 66,11)

성사를 통해 자녀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은 우리의 삶 안에서 오는 거룩한 보살핌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젖을 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님께 보이고, 언제까지나 그곳에서 살게 하겠습니다’”(1사무 1,22).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자신의 아이를 극진히 보살폈고, 아이가 평생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태 안에 생긴 첫 열매이자 첫 아들을 봉헌 한 것입니다.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가르치면, 아이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장 5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어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또한 말합니다.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확실히 믿는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2티모 3,14-16).

한편 어린 사무엘은 주님과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으며 무력무력 자라났다.

-1사무 2,26

마찬가지로 우리는 읽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루카 2,52

저는 어린 시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교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육하기를 꺼려하고, 자녀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길 주저합니다. 자녀를 미사에 참석시키길 꺼려하고, 마지못해 자녀가 클럽이나 부정적인 장소에 가는 것을 말리며,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친구들을 따라 맹목적으로 패션을 쫓지 말고 단정한 옷가짐과 도덕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기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께서 짚어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대신 짚어지도록 강요받았을 때, 시몬은 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레네 사람 시몬은 도대체 자신이 왜 범죄자가 짚어지고 가던 십자가를 대신 운반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자신에게 요청되어지고 있는 일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강압에 못 이겨 예수님의 십자가를 짚어졌습니다. 만약 지금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짚어질 기회가 다시 한 번 주어진다면, 시몬은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짚어질 것입니다. 이제 키레네 사람 시몬의 역할은 구원을 향한 여정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 역시 그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부모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자녀에 대한 훈육을 계속 해나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훈육은 반드시 사랑으로부터 나와 사랑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자녀들 역시 자신들이 사랑으로 훈육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지도라도, 부모들은 사랑의 방법 안에서 훈육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 키레네 사람 시몬처럼 자녀들도 훈육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훈육이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자신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부족할 때

부모가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좋지 않은 습관을 키우게 되고 폭력적이 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암살하려 했던 알리 아흐카(Ali Agca)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알리 아흐카는 어린 시절 부모의 거부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번은 부모가 기도를 부탁하며 한 남학생을 데려왔습니다. 이 학생은 또래의 여학생들, 심지어 나이 많은 여성들과 쉽게 친해져서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남학생은 한 사람과 사귀고 있는 때에도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라도, 부모는 결코 자신의 자녀를 무시하거나 뒷전으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자녀들은 저마다 특별하고 동등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실패하게 되면 자녀들은 자기 거부의 감정을 키우게 될 수 있습니다.

피정센터에는 많은 성인 남녀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봉사자들 중에 많이 헌신하며 책임감과 진정성 있게 봉사하는 남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누구도 자신을 돋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일을 혼자서 하길 좋아했습니다. 이는 다른 팀원들을 화나게 만들었고, 팀원들은 피정센터장에게 이 오만한 사람은 하느님을 위해 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던 중에 우리는 이 남성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13남매 중 아홉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가족 중에서 그 누구도 이 남성으로 하여금 의견을 표현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어떤 결정이 일어나더라도 이 남성은 ‘넌 아무것도 모르니깐 입다물고 있어!’라는 말만 들어야 했습니다.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조차 이 남성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이 남성으로 하여금 ‘자기거부’를 키우도록 이끈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들을 완수해나가면서 이 남성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있어. 왜 이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

는거야?”라고 말입니다. 이 남성이 가족들로부터 마주해야 했던 그 거부가 스스로를 거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거부는 다른 경우에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폭식, 폭음, 약물남용 혹은 어떠한 사치의 행위도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생기게 된 상처와 고통을 없애지 못합니다. 이 상처는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어서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이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상처를 더욱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우리들 자신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피정에 참여하는 것도 그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던 상처를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가지고 피정에 참여해 하느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귀기우려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사고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약물에 중독되어 부모에게 큰 걱정을 끼치고 있는 27살 청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들로 인해 큰 근심에 빠져있던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데려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어린 시절에는 너무 착하고 문제 하나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 또한 후회하고 있었고 자신의 악습을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청년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는 이 청년을 어린 시절 있었던 사건의 기억으로 이끄셨습니다. 때는 청년이 7살 시절이었습니다. 아이였던 청년은 집안에서 놀다가 사고로 어머니가 아끼는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이를 발견한 어머니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아들에게, “어쨌든 너도 사고 태어난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아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청년은 이때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목이 매이도록 눈물을 흘리던 청년은 이내 겉잡을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청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었던 아픔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청년은 어디를 가든 ‘나는 원치 않던 아이였어. 부모님도 나를 원치 않았는데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극심한 거부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부감을 느끼게 된 이후로 청년은 이 불쾌한 감정과 생각들을 지우고자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부모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아들에게 용서를 청하도록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부모가 용서를 청하자 청년은 이 감정과 생각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2).

거부에 대한 감정은 그저 어린 시절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반에서 우리는 거부와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십대들도 거부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던 피정센터에서, 우리는 피정센터에 필요한 것들과 세상을 위한 중재기도를 하기 위해 그룹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룹에는 10대 소년이 한명 있었습니다. 저마다 순서대로 중재기도를 이끌었고 그때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로 가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중재기도시간마다, 그리고 제가 중재기도를 하는 경당을 지나칠 때마다 저는 그 소년의 기도를 들었는데, 소년은 오직 한 특정한 소녀를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도는 한 소녀에 대한, 그 소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루는 소년을 불러서 그 소녀만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슬프게도, 그 소녀는 이 소년을 두고 다른 남자와 사귀었고 이 소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소년은 소녀에게 필요한 돈을 주었는데 소녀는 그 돈을 들고서는 소년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이 소년에게 한번이라도 누군가를 약용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소년은 이 소녀와 만남을 가지기전에 7명의 소녀와 사귀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이 중 어떤 소녀도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와중에 소년은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자신과 잘 어울리는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소녀는 소년처럼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고 거부한 일곱 명의 소녀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계신 주님의 귀에 닿은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든 게 잘 되리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음의 성경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네가 한 그대로 너도 당하고 너의 행실이 네 머리 위로 돌아가리라.

-오바드야 1,15

우리는 다음의 성경말씀도 함께 읽었습니다.

너희가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 두어라.

-민수기 32,23

우리는 소년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네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셔서 너를 향해 돌아서주실 것이란다.” 그러므로 거부의 경험으로 힘겨워하는 이는 누구나 결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절대로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사와 모기장

하느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을 한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거부로 인한 아픔을 결코 겪지 않게 됩니다. 한 남자가 너무 아파서 중환자실에 누워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극심한 외로움과 하느님께 버림받았다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를 위해 기도를 하던 중에, 저는 한 천사가 내려와 이 남자 위로 모기장을 덮어주는 환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환시를 통해 깨닫게 된 의미는 바로 선하신 주님께서 이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모기 한 마리도 이 남자를 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기장은 우리들 각자를 향한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이 특별한 사랑에 결합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접붙여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우리 삶을 돌보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접목을 할 때를 떠올려봅시다. 열매를 맺지 못하던 가지는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접붙여진 다른 식물의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나게 됩니다. 하느님께 접붙여지는 것 또한 이와 같습니다. 간음과 만취, 증오의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이들은 지속적인 기도와 규칙적인 성사참여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몇몇 가지가 잘려 나가고,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인 그대가 그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 그 올리브 나무 뿌리의 기름진 수액을 같이 받게 되었다면, 그대는 잘려 나간 그 가지들을 얹보며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17-18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1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대가 본래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나와, 본래와 달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다면, 본래의 그 가지들이 제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합하게 되면, 죄에 빠져 있던 옛 본성은 죽고 예수님의 본성을 입게 됩니다(갈라 5,22-23 참조).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렵잖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1코린 3,18).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광야의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만 들리는 삭막한 황무지에서 그를 감싸 주시고 돌보아 주셨으며 당신 눈동자처럼 지켜 주셨다.” 지속적으로 성경말씀을 읽고 위의 구절들을 되풀이해 읽어나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해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하느님의 사랑에 결합되면, 더 이상 사욕과 악한 욕망과 악습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로마 8,1)

누가 당신 자녀의 친구들인가요?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와 어울리는지는 부모들의 변함없는 걱정거리입니다. 한 부부가 자신들의 아들을 데려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양쪽 다 직업이 교사인 부부는 아들이 갑자기 공부에 흥미를 잃었다는 사실에 불평을 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성당에도 나가지 않고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근 채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들에게 있었던 일은 이렇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과외수업에 보내곤 했었는데, 과외선생이 아들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심지어 아들을 성적으로 학대를 했습니다. 부모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공부를 하려고 책을 꺼내어 읽을 때마다 과외선생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음란한 사진과 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과외선생이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이 아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있었고,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서 그 음란한 영상들을 되풀이했기에 아들의 사고력과 집중력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부부의 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고해성사를 보라고 타일렀습니다. 포르노그래피는 죄악입니다.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이 부족하면 자녀는 성적으로 일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회복시켜주십니다.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히브 10,17).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로마 8,1) “나, 바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너의 악행들을 씻어 주는 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이사 43,25)

너무나도 무자비한 새어머니

우간다에서 피정 지도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내면의 치유 시간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지금 다리가 상처자국들로 가득한 한 소녀를 치유하고 계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는 피정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한 어린 소녀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소녀는 제대 앞으로 뛰쳐나와서 자신이 바로 그 메시지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새어머니는 이 소녀가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실수를 할 때마다 소녀를 가차 없이 때렸고, 피가 나기 전에는 매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다리는 이를 증명하듯 상처와 명 자국으로 가득 덮여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녀는 다리에 여러 합병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수시로 스스로에게 자신의 진짜 어머니는 어디에 있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다른 아들처럼 어머니를 가지지 못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소녀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신을 돌보고 계신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녀가 비명을 지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곤경과 새어머니가 자신을 다루는 그 무자비한 방식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상상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내 소녀는 주님께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계심에 놀라움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과 다음에 나오는 성경구절들이 소녀를 치유로 이끌었습니다. “여인이 제 젖먹 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이사 49,15)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 주시리라.”(시편 27,10) “내 말을 들어라, 야곱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남은 자들아, 모태에서부터 업혀 다니고 태종에서부터 안겨 다닌 자들아. 너희가 늙어 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지고 간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지고 가고 내가 구해 낸다.”(이사 46,3-4)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

한 어린이가 성적인 학대를 당한다면 이는 이 어린이와 어린이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어떤 어린이, 혹은 사람은 성적 학대로 인해 고통 받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고통은 너무나도 가혹하며 이러한 어린이들 중 많은 이가 이 불행으로 평생을 힘겨워 합니다. 한 가지 명백한 공통적인 현상은 간음, 자위, 야한 동영상 시청, 다른 많은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 성적 오용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50대 여성은 음란한 생각들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 심지어 미사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성은 어느 것에도 제대로 집중을 할 수가 없었으며, 부도덕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이 여성의 13살 무렵 삼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적인 학대를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 여성은 이 사실을 숨긴 채로 삼촌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을 키웠고, 삼촌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삼촌을 저주하는 기도를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 여성의 삼촌에게 용서를 베풀어주길 요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피해자였지만 삼촌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삼촌의 영혼이, 그리고 또한 여성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있어 장애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던 삼촌을 용서했고 비로소 자신을 괴롭히던 것들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여성과 마찬가지로 친부모가 아닌 이들의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나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과 사건들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스스로 내면의 상처를 키우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 남수단의 한 여인을 위로해주셨습니다

남수단에서 피정을 지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실종된 아들로 인해 비탄에 잠긴 나이든 여인이 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 여성의 아들은 전사자로도 부상자로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의 슬픔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여성은 아들의 실종으로 인해 하느님께 기도하지도, 하느님을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피정 중에 성모님의 환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환시에서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이 여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봉헌한 것처럼 너도 너의 아들을 봉헌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성은 슬픔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자아 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세적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슬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과 현세적 슬픔이 그것입니다. 슬픔은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슬픔은 두려움, 시험이나 사업에서의 실패,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서는 이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눅시 21,4)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슬픔을 이겨낼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기말 시험을 가뿐히 통과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시험에서 떨어지게 된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학생은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은 극심한 슬픔에 빠져 먹지도,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이 학생은 하루 종일 자신의 가족, 친지, 이웃들이 자신에 대해 무슨 이야기들을 할지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을 실망시켰고 가족들이 자신을 미워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하느님께서도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이 여학생은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요한 6,37)라는 성경문구가 적혀있는 예수님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된 여학생은 다시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심했고 열과 성을 다해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이 학생은 놀라운 성적으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이 여학생은 성적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학생들에게 희망과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주는 가장 뛰어난 학원선생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통을 겪은 것은 좋은 일이니 당신의 법령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시편 119,71)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여학생은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저를 치유하시고 저를 변화시켜주셨어요.” 다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울음소리를 그치고 네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네 노고가 보상을 받아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예레 31,16).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눅시 21,4)

어떻게 하면 거부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읽고, 다시 읽고, 묵상하십시오.

1.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이사 49,15) 친어머니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2.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이사 49,16) 예수님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십시오.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있음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3.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이사 66,13) 예수님께 돌아서십시오. 그분께서 어머니처럼 위로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루 수차례 반복하십시오.
4. “그렇지만 당신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이 저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저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희 아버지시고 예로부터 당신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이사 63,16) 친아버지로부터 거부당했습니까? 하느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5.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 주시리라.”(시편 27,10) 친부모님이나 가까운 이들로부터 거부를 당해 힘겨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서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아버지십니다.
6. “아버지가 자식들을 가엾이 여기듯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엾이 여기시니,”(시편 103,13) 주님께 돌아서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주실 것입니다.
7. “나의 종 야곱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 너에게 칭호를 내린다.”(이사 45,4)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로 돌아서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아시는 것도 모자라 칭호까지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8. “내 말을 들어라, 야곱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남은 자들아, 모태에서부터 업혀 다니고 태중에서부터 안겨 다닌 자들아. 너희가 늙어 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지고 간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지고 가고 내가 구해 낸다.”(이사 46,3-4) 예수님께 돌아서십시오. 우리 주님같이 우리를 지고 가는 이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거부하시거나 내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9.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요한 6,37)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한 이는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예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0.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가 위로 하늘을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헤아릴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이 저지른 온갖 소행 탓에 그들을 모두 내던져 버릴 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예레 31,37) 하느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되뇌십시오.
11.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으로, 감사히 받기만 하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1티모 4,3-4)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께 믿음을 두게 되면 모든 거부의 감정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12.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아, 너를 빛어 만드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네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나는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몸값으로 내놓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 대신 내놓는다. 네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놓고 네 생명 대신 민족들을 내놓는다.”(이사 43,1-4)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지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갚아야 할, 하지만 갚을 수가 없는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판단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심판이 닥치기 전에 너 자신을 성찰하여라. 그러면 셈 바칠 때에 용서를 받으리라”(집회 18,20). 피정 중에 저는 피정 참가자들에게 눈을 감고 손뼉을 치며 목소리를 높여 성가대와 함께 주님께 찬양노래를 드리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의 말과는 정반대로 하면서 저의 권유를 거절하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불쾌해졌고 이번에는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서 같은 권유를 했습니다. “모두 함께 눈을 감고, 손뼉을 치며 목소리를 드높여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이때에도 그 남자는 제가 말한 것을 하나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손뼉을 치는 대신 손을 주머니에 넣었고, 눈을 감는 대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 남자가 너무 나도 거슬렸지만 저는 이내 저의 영성담당 신부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강론을 할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는 신부님이 올바른 고해성사를 행하지 않았거나 강론을 듣는 이들이 대죄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가대에게 계속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고 나서 고해성사를 보려 나갔습니다. 제가 고해소로 걸어 나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부리나 캐 저에게 다가와 자신이 데려온 남자와 대화를 좀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신부님, 그 남자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일분만이라도 그 남자를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난 후, 이 사람은 저를 불편하게 만든 그 남자를 저에게 데려와 다시 말했습니다. “신부님, 이 남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던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지 않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았을 때, 이 남자는 정상인과 다를 바가 없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이끄시어 다음의 성경 구절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의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무뢰배를 내리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이사 11,3-4)

욕정

“욕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본성에 대한 과도하고 집착적인 욕망입니다. 욕정은 육적인 기쁨에 대한 무절제한 사랑입니다. 욕정에 빠진 사람들은 눈이 멀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것만 바라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삶의 표징인 이타적인 신앙으로 부르십니다. 욕정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결과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불건전한 행위를 하도록 이끕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정을 육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갈라 5,24 참조)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뒤덮고 있는 영들 중 하나가 바로 욕정의 영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이 혼외정사나 이혼을 맞이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욕정은 불륜, 강간, 소아성애, 근친상간 등으로 이어집니다. 욕정은 그 초점이 성정인 만족에 맞춰져 있습니다. 욕정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결과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불건전한 행위를 하도록 이칩니다. 욕정은 소유와 탐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거룩한 삶으로 특징 지어지는 이타적인 신앙이며 그 목표는 예수님께 믿음을 두는 모든 신자들이 저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삶의 표징인 이타적인 신앙으로 부르십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은 죄의 지배를 받던 옛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사고와 행위를 하느님의 말씀께서 선사해주시는 기준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성경은 거룩함에 대하여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더러움 속에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무시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느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1테살 4,7-8)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부족과 그들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탄생하는 거룩한 순간에 악마는 기를 쓰고 교묘히 훼방을 놓습니다. 악마는 욕정의 영을 통해 수많은 이들을 공격하고 또 조종합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은 고유한 문화 안에서 자신들만의 전통 혼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대다수가 혼인성사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에 하느님 현존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일시적 혼인’이나 ‘일부다처제의 결혼’ 등을 통해 이 악한 영에 끌려 있습니다.

악마가 욕정을 씨앗을 심기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수단을 보도록 합시다:

- 잘못된 성교육, 피임도구 사용의 증가, 노골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대중매체들.
- “안전한 성생활을 위해서!”라는 문구와 함께 무료로 배포되는 콘돔들.
- 인터넷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르노 사진과 영상들.

욕정은 부부사이를 떨어뜨려 이혼에 이르게 합니다. 그 누구도 욕정의 영이 가하는 공격으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로 돌아서는 이들을 욕정에서 해방시켜주실 수 있으십니다.(마태 9,23 참조)

엄마의 물건을 엉망으로 만드는데 정통한 딸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데려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아주 무례하고

파괴적이며 자신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다면 딸을 비난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옷과 신발을 조각조각 잘라내는 등 어머니의 물건을 영망으로 만들어 놓곤 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았고 질책을 받을 때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아주 착한 딸이었습니다. 집밖에서 말썽을 피운 적도 없으며 친구들과도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딸아이의 어머니는 교사였습니다. 어머니가 막 결혼을 했을 때, 어머니는 바로 출산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경력 때문에 임신을 3년 뒤로 미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세달 만에 임신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임신을하게 된 자기 자신을 미워했으며, 자신의 배속에 있는 태아는 더욱 미워했습니다. 어머니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생각을 자주 품게 되었고, 한 번은 낙태를 하기 위해 약도 먹었지만 약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남편은 자신과 아내 모두에게 아이가 꼭 필요하다고 아내를 격려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주 건강한 여자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제 앞에 있는 딸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잉태된 그 순간부터, 원하여지지 않는다는 감정, 그 증오와 거부의 씨앗이 딸아이에게 심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딸아이는 성장하면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감정을 느꼈고, 이로 인해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는 나를 싫어해.”라는 생각이 딸아이의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마음 전체가 어머니를 향한 부정적인 느낌들로 가득했고,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딸아이가 사랑이 아닌 욕정으로 인해 태어났기에 그 안에 증오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아이가 자연적으로 생기는 방법은 사랑 또는 욕정, 이 두 가지 길 뿐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야만 합니다. 아이가 아직 유아기 때에 당연히 받아야하는 사랑을 주는데 부모가 실패를 하게 되어 아이가 사랑없이 성장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지나서 부모가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때 그 시절 아이에게 주었어야 하는 사랑을 지금 다시 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의 예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딸에게 전달되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반드시 아이를 가지겠다는 진실로 성숙된 바램과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자신들 스스로 아이들에게 모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아이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하느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라, 아들들은 주님의 선물이요 몸의 소생은 그분의 상급이다.”(시편 127,3) 자신들이 부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바로 그 순간부터 개인적인 감정은 옆으로 치워두고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아기를 향한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피시어 굽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진실 된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자녀에게 전달해주기 위해 부모는 먼저 자신들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한 젊은 남성이 하느님께 배우자를 보내 주십사고 기도드릴 때에는 미래의 아내가 될 여성을 위해서도 기

도해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를 보내 주십사고 기도드리는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를 찾는 누구라도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만이 아니라 아직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젊은이들은 신앙 안에서 자신들만이 아니라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모든 것에 앞서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저 토비야와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잠자리를 가지기 전에 함께 무릎을 끓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대는 그 여자와 동침하려고 할 때, 먼저 둘이서 함께 일어나 하늘의 주님께 기도하며 그대들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사고 간청하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여자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그대의 아내로 정해졌소”(토빗 6,18).

부모가 방에서 나가 문을 닫자 토비야는 침상에서 일어나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일어나구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사고 간청합시다.” 사라가 일어나자 그들은 기도하며 자기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였다. 토비야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대대로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하늘과 당신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협력자며 협조자로 아내 하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둘에게서 인류가 나왔습니다. 당신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와 닮은 협력자를 우리가 만들어 주자.’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욕정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저의 이 친족 누이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저와 이 여자가 자비를 얻어 함께 해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토빗 8,4-7

기도하는 부모들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출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부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 조에 속한 사제로서 즈카르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루카 1,5-6) 이에 이어서 복음은 전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즈카르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루카 1,13) 예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루카 7,28). 사무엘도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 읽습니다. “때가 되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내가 주님께 청을 드려 얻었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1사무 1,20)

토비야와 사라가 함께 바친 기도는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이 자신들과 미래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 마음에 새겨야 할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비록 토비야와 사라 둘 모두 마음속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이 함께 바친 기도로 두려움을 몰아내었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좋게 끝을 맺었습니다. 태아가 잉태되어지는 시기에 부모가 가지는 욕구(사랑과 정욕)와 정신 상태(두려움, 미움, 슬픔, 만취, 등등)

는 태어나게 될 자녀의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의 부모 될 사람들이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안의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로 바꿔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녀들은 언제나 무엇보다 마음에서, 즉 영에서 태어나야 합니다(요한 1,13 참조). 만약 자녀가 사랑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육정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라면, 육에서 나온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5장 19-21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토비야와 사라의 이야기에서 언급되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이 두 사람이 그 당시의 전통에 따라(율법에 정해진 대로) 혼인예식을 치뤘다는 점입니다. 이는 성당에서 성사혼을 통해 결합된 이들의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 전에는 그 어떤 육체적인 관계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이란 성사혼을 뜻합니다. 세속적인 결혼예식이 아니라 혼인을 위한 전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사혼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성사혼을 통해 결합한 부부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들을 헤쳐 나가는데 필요한 힘과 지원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혼인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의 외적인 표지, 곧 성사입니다. 성사는 그 성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혼인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육체적 관계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필요한 지식에는 문외한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과거의 삶으로 잠시 돌아가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밤을 새서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이 될 무렵 나타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물을 던지게 하셨고, 제자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부로서는 전문가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현존이 드러내시는 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느님과 교회가 정식 혼인 안에서가 아닌 육체적인 관계에 우호적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혼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체관계는 간통과 간음입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육체적 결합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결과들이 그 즉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훗날 그 결합을 통해 태어날 자녀들에게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잃어버리시지 않기 위해, 하느님께서는 어떤 것도 남기 않고 당신의 모든 사랑을 내어주십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싫어요

특별 기도시간이 마치자마자 한 여성의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이유도 모르겠고, 남편에게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이 여성은 자신이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에게서 그 어떤 감정이 일지 않아요. 남편이 저를 만지기만해도 짜증이 납니다.” 여성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돌봐줘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또 ‘아내의 몸은 아내가 아니

라 남편의 것이고,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것입니다.’(1코린 7,4)라는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여성은 남편과 결혼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여성은 또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에게만 충실한지에 대해 의심이 들어요.” 이 여성과 함께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는 성경말씀을 받았습니다. “혼인은 모든 사람에게서 존중되어야 하고, 부부의 잠자리는 더럽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느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히브 13,4). 성경말씀을 받은 후에 여성은 자신이 결혼 전에 많은 남자친구들과 잠자리를 가졌고, 혼인성사 전에 이에 대한 고해성사를 보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여성은 혼인을 해서도 여전히 욕정의 영에 지배당한 채 남편과 잠자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 여성으로 하여금 남편을 싫어하도록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여성 안에 있는 욕정의 영이었습니다.

사무엘기 하권 13장은 욕정으로 인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암논은 타마르 때문에 애를 태우다 병이나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타마르가 죄짓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정의 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암논은 타마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타마르보다 힘이 셨기 때문에 강제로 타마르와 함께 잤다. 그런 다음 암논은 타마르가 지독히 미워졌는데, 타마르를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타마르를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 컸다. 그래서 암논은 타마르에게, ‘일어나 나가라!’ 하였다”(2사무 13,14-15). 욕정은 쉽사리 미움으로 돌변합니다. 욕정의 영은 우리 마음 안에서 사랑을 몰아냅니다. 많은 결혼생활이 무너지고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혼 전과 후에 가지는 부정한 관계들 때문입니다. 욕정의 진정한 결과물은 미움과 증오입니다.

또한 간음을 저지른 이들이 자주 자신의 배우자를 의심한다는 사실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편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사악의 길로 어리석게 된 자들 자기들의 죄로 괴로움을 겪었다”(시편 107,17). 신뢰부족 또는 의심은 내면의 상처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음을 저지른 이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아 해방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것들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히브 10,17).

부전자전

“자녀들은 불경한 아버지를 비난한다. 그 아버지 햇에 자신들이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다”(집회 41,7).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동료 신부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12살 소년이 자신의 6살 난 여동생을 강간하고 살해한 뒤에 그 시체를 오수 정화조에 버렸습니다. 소년의 부모가 집에 돌아와서 딸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아주 부모 말을 듣지 않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던 아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딸아이의 시체를 오수 정화조에서 발견했고 범인의 증거도 찾았습니다. 이에 소년은 자신이 범인임을 인정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심리상담가에게 보내었지만, 폭력적인 성향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들은 제 동료 신부님이 부모와 이 소년을 피정에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피정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제 동료 신부님은 소년의 어머니만을 따로 불러서 이 소년을 임신했을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주 폭력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직후 소년의 어머니는

사고를 당해 척추를 다쳤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몸 전체에 긁스를 해야 했고, 의사는 이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지말고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만취한 채로 돌아와 아내를 범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이 때 소년을 임신했던 것입니다. 소년은 강압적인 성관계에 의해 임태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이 아들에게도 전달되어 심어진 것입니다. 지혜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자손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 그 사생아들은 아무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 바탕이 튼튼할 수가 없다. 잠시 줄기를 뻗는다 하여도 단단히 서 있지 못하여 바람에 흔들리다가 세찬 바람에 뿌리째 뽑히고 만다. 그 가지들은 자라기도 전에 꺾여 나가고 열매는 쓸모가 없다. 익지 않아 먹지 못하고 달리 쓸 데도 없다. 부정한 잠자리에서 생겨난 자식들은 재판 때에 부모가 저지른 죄악의 증인이 된다”(지혜 4,3-6). 제 동료신부님은 부모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묵주기도를 하루에 세 번씩 세달 동안 바치라고 권했고, 얼마 후에 부모로부터 아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책임감 있는 성생활

한 젊은 여성이 얼마 후에 있을 혼인을 위한 축복을 청하려 왔습니다. 우리는 이 여성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성은 아주 지치고 슬픈 표정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약혼자가 약혼을 깨어버렸고 더 이상 자신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약혼자가 여성에게 혼전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여성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약혼자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분명 기다려줄 것입니다.” 저는 이 여성에게 약혼자와 함께 대화하고 묵상할 수 있는 성경구절들을 주었습니다. 이 여성은 제가 일러준 대로 했고 한 달 후에, 하느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여성의 약혼자는 여성과의 대화에 응했으며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성관계를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성은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와서 결혼식 초대장을 건네었습니다. 간음과 간통, 그리고 혼인 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관계는 하느님 앞에 대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에, 삶이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기에, 고통이 너무 심하기에’ 라고 말하며 지은 죄에 대해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에, 삶이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기에, 고통이 너무 심하기에’라는 말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변명거리로 삼습니다. ‘배우자를 달라고 청했고 기다렸건만, 배우자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난 더 이상 젊지도 않고 내 친구들은 모두 결혼해서 자녀를 셋, 넷이나 가지고 있는데 난 여전히 결혼도 못하고 있잖아’, ‘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나와 내 자녀를 충분히 돌볼 수 있어. 남편이 필요한 이유가 없잖아?’, ‘내 친구들은 원하는 것을 다 사주는 남자들이랑 놀러다니는데 난 여기서 이렇게 썩어가고 있어’, ‘내 친구들은 하나같이 애인이 있어서 주말마다 애인이랑 클럽에 가서 신나게 즐기다 오는데 난 부모님 집에서 지루하게 이게 뭐람’, ‘내 친구들은 모두 피임도구를 사용해

서 안전한 잠자리를 즐기는데...' 등이 우리가 내뱉는 평계들입니다.

미혼모들

정욕은 젊은 여성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혼인 하지 않은 젊은 여성의 아이를 가져 미혼모가 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의 자신을 임신하게 한 남성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 이 여성은 그 버림받음으로 고통받고 이 거부의 감정은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뱃 속의 아기는 이 고통을 가장 먼저, 그리고 크게 나누어 받는데 그 이유는 태아가 무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태어나 자라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원하여지지 않았다는 감정을 키우게 되고 이는 앞서 설명했던 다른 죄들로 이어집니다(갈라 5,19-20 참조).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미혼모는 아이에게 아버지의 사랑은 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한쪽의 부모를 택하시어 세상에 들어오시지 않는 한,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양육되도록 계획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이것이 요셉이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남모르게 파혼하려는 결심을 했을 때, 하느님께서 요셉의 꿈 속으로 천사를 보내 시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태한 것임을 알려주신 이유입니다. 요셉은 파혼하지 않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 아내와 아기 예수님을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삶 안에서 이토록 아버지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렇다면 자신의 아이를 저버린 남성들과 아이를 훌로 키우려 하는 여성들은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삶에 있어 부모 양쪽 모두 매우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자녀에게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나누어서 전달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자신감과 용기라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동시에 연민과 자비와 돌봄이라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미혼모는 아이에게 아버지의 사랑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젊은 여성의 저를 찾아와서 자신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가 한 명 있었고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제가 직장만 가진다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여성에게 아이 아버지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여성은 아이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묻자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여성은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매니저는 55살이었고 아주 착하고 친절하며 이 여성은 돌보아주는 남자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온 이 여성은, 그 매니저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이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이 남자의 아이를 가지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몰라요. 저는 줄곧 제가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찾고 있었고 그 남자가 저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그저 남편의 사랑만 줄 수 있을 뿐이란걸 깨달았어요.” 한 어린이가 어린 시절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은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부모로 부터든 그 누구로 부터든 대체해서 채워질 수 없습니다.

미혼모의 삶은 한쪽 날개만으로 하늘을 날아오르려는 새와도 같습니다. 그 삶이 제대로 흘러 가기는 어렵습니다. 날기 위해서는 양쪽 날개 모두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이별을하게 되면 미혼모는 그 누구와도 쉽게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며 남편과 이혼을 한 어떤 여성의 저를 찾아와 재혼 허락을 청했습니다. 저는 이 여성에게 재혼은 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아이들의 친아버지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혼모의 자녀가 딸인 경우에 이 미혼모가 딸의 친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성과 재혼을 하게 되었을 때, 양아버지가 딸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스스로 미혼모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큰 죄입니다. 이 여성들은 삶의 자유를 즐겨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게 될 남편은 필요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주장이고 생물학적인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아주 큰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깊으신 지혜와 혼인에 대한 계획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요셉의 아내가 되게 하시어 성모님 자신과 아들 예수님이 남편과 아버지의 보호와 지지를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족 또는 모르는 이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거나 부모의 이기심(금전적 이익)으로 인해 팔려가듯 결혼을 강요당한 여성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 사고가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미혼모들은 생명이 하느님의 선물이고(시편 127,3) 낙태는 대죄이기에 아이를 낳아서 보살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들은 아이를 위해 성사혼을 택하거나 바오로 사도가 짧은 과부들에게 조언했듯이 하느님 앞에서 동정을 지키며 사는 삶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다처제와 그로 인한 아픔

욕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을 파괴하고 무죄한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일부다처제의 희생양이 되도록 합니다.

한 여성의 태어날 때부터 많이 아팠습니다. 약을 먹었음에도 상태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약을 달고 살아야 했던 여성은 마침내 약은 자신을 치료해줄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해주실 수 있으심을 깨달았습니다. 여성은 예수님께로 돌아섰고 피정에 참여했습니다. 여성은 말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보다 더 저를 아프게 하는 것은, 가정 안에 평화도 사랑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족은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아요. 한지붕 아래에 살긴 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미움뿐인걸요.” 우리는 성경을 펼쳤고 다음의 구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열일곱 살 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의 아들들과 질파의 아들들을 도와주는 심부름꾼이었다. 요셉은 그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늘그막에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창세 37,2-4

“한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창세 37,5) 우리는 여성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집안에 일부다처제에 연관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아주 드물게 여성의 집을 찾아왔으며, 왔을 때도 여성의 어머니하고만 시간을 보내고는 다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여성과 여성의 형제, 자매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성의 어머니 역시 항상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서 이제 여성의 형제자매들은 서로를 사랑하거나 용서하는 게 불가능해질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일부다처제는 미움과 질투, 경쟁과 두려움, 유산으로 인한 다툼, 거부, 쓰라림과 아픔, 법정싸움 등을 남깁니다.(창세 26,34-35:29,30-31:30,1-2) “사악의 길로 어리석게 된 자들 자기들의 죄로 괴로움을 겪었다.”(시편 107,17) 우리는 이 여성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피정으로 모셔오라고 조언했습니다. 여성의 어머니는 이에 동의해 피정에 참여했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본당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삶을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순결은 우리를 정욕에서 해방시킵니다

순결은 정욕의 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결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결의 삶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느님께만 속한 이로 축성되어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중요한 장소가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순결의 삶은 또한 한 사람의 인생에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에서 우리는 순결이 가지는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잠비아에서 있었던 이야기

우리는 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고아원은 갓난아기부터 9살 아이까지 HIV(에이즈)에 감염된 고아들을 돌보는 곳이었고, 약 90여명의 아이들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한 수녀님이 이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는데, 이 수녀님은 우리가 잠비아의 수녀 연합회 피정을 하러 갔을 때, 우리에게 고아원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던 중에 저는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그 아이는 제 손을 잡고는 저를 그 고아원을 책임지고 있는 수녀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아이는 그 수녀님의 다리를 붙잡고는 수녀님을 엄마, 엄마 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녀님이 아이를 들어올려서 품에 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속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환성을 올려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기뻐 소리쳐라, 즐거워하여라, 산고를 겪어 보지 못한 여인아! 버림받은 여인의 아들들이 혼인한 여인의 아들들보다 많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이사 54,1). 저는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백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종교적인 삶, 곧 신앙생활이란 바로 생기를 잃어버린 이에게 생기를 주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에게 희망을 주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들이 고아에게는 정체성을, 거부당한 이에게는 존엄성을 되찾아 줍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또 한 명의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요한 1,12-13).

“기독하는 부모들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출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욕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읽고, 다시 읽고, 묵상하십시오.

1.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갈라 5,24). 예수님께 속한 이들일지라도 성적인 유혹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이러한 유혹을 희생제물로 바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2.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로마 12,1). 우리는 욕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현세의 유혹을 의식적으로 단호히 거절해야만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절제의 열매를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순결의 삶을 지키셨습니다.
3.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로마 8,8). 육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욕정의 감정들을 단호하게 통제하십시오.
4. “그들은 동정을 지킨 사람들로서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린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어린양을 위한 맘물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되었습니다”(묵시 4,4). 동정을 지켜 몸을 더럽히지 않은 이들은 우리 주 예수님이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특별한 특권을 누릴게 될 것입니다.
5.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시편 51,12). 지금 욕정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십시오. 그러면 욕정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6. “주님, 제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소서. 제가 당신의 진실 안에 걸으오리다. 당신 이름을 경외하도록 제 마음을 모아 주소서”(시편 86,11). 이 말씀을 하나의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로 만드십시오.
7. “주님,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시여 당신 앞에 드리는 제 입의 말씀과 제 마음의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시편 19,15). 이 말씀을 일상의 기도로 바치십시오.
8. “주님,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시여 당신 앞에 드리는 제 입의 말씀과 제 마음의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시편 139,23-24). 이 말씀을 매일 반복해서 말하십시오.

나이로비 랑가타 여성 수용소 이야기

우리가 나이로비에 있는 랑가타 여성 수용소에서 피정지도를 하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한 여성의 왼쪽 팔에 일어나던 마비성 발작증상의 치유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손을 들라고 제가 여러번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여성들이 쳐다보고 있는 한 특별한 여성수감자에 대해 알아차리기까지 누구도 손을 들거나 이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에게 치유가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다가갔을 때, 저는 여성의 손을 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성의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여성의 손을 드는데 도움을 주는 와중에 여성의 손에서 아주 큰 문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신은 죽음의 영을 상징하는 해골문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신이 ‘나는 너에게’

속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기에 여성이 자신의 손을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그 해골문신의 영이 치유가 되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몸에 어떤 문신을 새긴다는 것은, 그 문신의 의미에 자신을 종속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너희는 죽은 이를 위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도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레위 19,28),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 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1코린 6,19-20)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고귀하신 피로 우리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가장 흔한 내면의 상처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들 중 많은 이가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별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1요한 4,18-19)”

몸바사에서 온 어머니 이야기

한 어머니가 봄바사(케냐 남부의 섬)에서 빈센티안 기도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아들이 나이 많은 이슬람 여자와 살게 되면서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대학교도 중퇴하고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두려워서 도망쳐 왔습니다. 저는 미혼모라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머무를 곳도 없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제 아들이 제 목숨을 뺏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네, 신부님.”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구원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어머니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들은 더 이상 가톨릭 신자가 아니거든요. 아들은 종교까지 바꾸었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에게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오’(사도 16,31)라는 말씀을 모르십니까?”라고 되물으며, “아들이 그 어떤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어라도 주님께서는 아들을 해방시켜주실 수 있으십니다.”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에게 다음의 성경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용사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폭군에게서 포로들을 빼낼 수 있느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용사에게서 포로들을 빼앗을 수도 있으며 폭군에게서 전리품을 빼낼 수도 있다.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대적하여 너의 자식들을 내가 구해 내리라.’(이사 49,24-25)” 저는 아들이 아무리 악행만을 일삼는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아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고 어머니를 격려해주며 다음의 성경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색을, 표범이 자기 얼룩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수만 있다면 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예레 13,23) 어머니

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열 번씩 ‘사도신경’을 바치십시오. 우리는 전능하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을 믿기에 아들은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 회개할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그러겠다고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에 우리는 빈센티안 기도의 집에서 자신의 회개를 증언하는 한 젊은이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술주정뱅이였고 약물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이곳으로 오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이제 제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가톨릭 신앙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 다시는 술이나 담배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부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감동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아들의 증언을 듣자마자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달려나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주 능력이 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꺼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남학생이 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수업시간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마다 이 학생은 손과 온몸에서 주체할 수 없이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 남학생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조금 더 어린 시절, 학생의 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때 학생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의 친구들 앞에서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이 학생은 너무나 두렵고 당황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남학생은 두려움에 빠져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적 치유의 시간동안, 이 학생은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영감을 받았고 다음의 성경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분, 주님
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네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
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나는 주 너의 하느님 이
스라엘의 거룩한 이,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몸값으로 내놓고 에
티오피아와 스바를 너 대신 내놓는다. 네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
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놓고 네 생명 대신 민족들
을 내놓는다.

-이사 43,1-4

하느님의 말씀이 이 남학생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중 일부는 어린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나무나 높은 곳에서 떨어졌던 사람들은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나무나 높은 빌딩에 올라가거나 심지어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이후로 곤충이나 개, 고양이, 뱀, 기괴하게 생긴 파충류 등과 같은 동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들을 괴롭

입니다.

어느 저녁, 한 소년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차를 준비해서 컵에 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전기가 나가버려서 집안 전체가 아주 어두웠습니다. 이 조그마한 소년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부엌에 도착해서 찻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곤충 한 마리가 우연히 이 소년의 찻잔 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두웠기에 소년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찻잔을 들고 입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곤충이 찻잔에서 뛰어나와 소년의 얼굴에 앉았습니다. 소년은 너무 놀라서 바닥에 쓰러졌으며 이로 인해 열병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소년은 성장해서 45살의 어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곤충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살아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모든 이에게 수호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오히려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창세 9,2) 따라서 누군가 살아있는 어떤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는 하느님께서 마련해주신 계획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네 앞에 서서 가시고,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버려두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해서도 낙심해서도 안 된다”(신명 31,8). “그분께서는 모든 생물 안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놓으시고 그들을 들짐승과 날짐승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집회 17,4)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를 돋기 위해 임명된 천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일깨워주십니다. 라파엘 대천사는 말합니다. “그와 함께 가겠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떠나갔다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터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행길은 안전합니다.”(토빗 5,16) 또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 불렀습니다. “여기 가련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시어 모든 곤경에서 그를 구원하셨네.”(시편 34,7) “나를 거슬러 군대가 진을 친다 하여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를 거슬러 전쟁이 일어난다 하여도 그럴지라도 나는 안심하리라.”(시편 27,3)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구절들은 우리에게 어느 인간존재도, 심지어 마술사나 요술쟁이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시편 118,6-8;21,11):

“나는 심판하러 너희에게 다가가리라. 나는 주술사와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팔이꾼의 품삯을 떼어먹고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자 이방인을 밀쳐 내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거슬러 곧바로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말라 3,5) “그들은 뱀처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것처럼 먼지를 훑고 저희 요새에서 떨며 주 우리 하느님께로 나오고 무서워하면서 당신을 경외할 것입니다.”(미카 7,17) “내 말을 들어라, 의로움을 아는 이들아 내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한 백성아. 사람들의 모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악담에 낙심하지 마라.”(이사 51,7) “너는 의로움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압박에서 풀려나리니 네가 두려워 할 일이 없으리라. 또 공포에서 풀려나리니 그것이 너에게 닥쳐오지 아니하리라.”(이사 54,14)

“사람을 무서워하면 그것이 올가미가 되지만 주님을 신뢰하면 안전해진다.”(잠언 29,25).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며 그 뜻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이사 41,10) “나 주님이 너의 하느님 내가 네 오른손을 붙잡아 주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이사 41,13)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이사 43,1)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이사 43,5;44,2)

지나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수들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수치스러워하지 마라. 네가 창피를 당하지 않으리라. 네 짚은 시절의 부끄러움을 잊고 네 과부 시절의 치욕을 네가 다시는 회상하지 않으리라.”(이사 54,4)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별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1요한 4,18)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만한 생명을 누리길 희망하십시오

“네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이제 악마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겠다.”(묵시 2,10) “그러나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하여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1베드 3,14) “사람을 무서워하면 그것이 올가미가 되지만 주님을 신뢰하면 안전해진다.”(잠언 29,25)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살아가는 것보다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오로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육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합니다.”(필리 1,23-24)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몸소 마련한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예레 29,11)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느님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려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요한 14,1-4) 그렇기에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려 오시는 그 때 까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25)” “그러나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지혜 2,24) “죽음의 판결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보다 앞서간 자들과 뒤에 올 자들을 기억하여라.”(집회 41,3)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들려주고 알려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나 말고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나는 그런 것을 모른다.”(이사 44,8)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마르 5,36)”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마태 10,28)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마태 10,26)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 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별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지혜 3,1-4)

주술행위나 무속의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얹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루카 10,19). 요술, 미신, 점성술, 운세 등, 모든 무속의식들은 그 원천이 악마이기에 사람들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한 남자가 매순간 자신이 죽을 것이란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 남자는 손금쟁이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 손금쟁이가 이 남자에게 55세에 죽게 될 것이라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날을 들은 그날 이후, 두려움이 이 남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혼란스러워졌고 불안에 떨게 되었으며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구절들은 앞에 나왔던 성경구절들과 함께 주술행위나 무속의식으로 인한 두려움에 빠진 이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정녕 야곱에는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에는 주술이 없다. 이제 야곱을 두고,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리라,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민수 23,23)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흠 없고 티 없는 어린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1베드 1,18-19)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짓 예언자들을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1요한 4,4). 주님께 믿음을 두고 있는 이들은 두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생각하시어 저를 이끌고 인도하소서. 그들이 숨겨 놓은 그물에서 저를 빼내소서. 당신은 저의 피신처이십니다.”(시편 31,4-5). “주님을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시편 34,5)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보라, 너에게 격분하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리라. 너와

다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 멸망하리라. 너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네가 찾으려 해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너와 전쟁을 벌이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없어진 자들처럼 되리라. 나 주님이 너의 하느님 내가 네 오른손을 붙잡아 주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이사 41,10-13)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로마 8,1)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2티모 1,7)

남몰래 저지른 죄와 그로인한 두려움

“이 여성은 4개월 태아의 모형을 보고는 자신이 낙태를 했던 아기를 떠올렸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때로 남몰래 저지른 죄 또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한번은 피정봉사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피정이 진행되고 있는 성당 주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당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있기만 하는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성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성당 밖에 서 계십니까? 두려우신가요?” 여성은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은 대학생시절에 낙태를 했습니다. 여성은 이를 잊고 살아왔으며 이로 인해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아주 큰 의과대학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구실들을 방문하던 중, 여성은 한 연구실에 진열되어있는 태아의 모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는 한 달된 태아, 네 달 된 태아, 여섯 달 된 태아부터 아홉 달 된 태아의 모형까지 각 주기별 태아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네 달 된 태아를 낙태했었습니다. 여성은 4개월 태아의 모형을 보고는 자신이 낙태를 했던 아기를 떠올렸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낙태한 아기가 저 모습이었을까? 나는 아기를 살해한 사람인걸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별을 주실 것이 분명해.’ 이 여성의 머릿속에는 이와 같은 생각이 떠나질 않았고 바로 이 때문에 여성은 성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이사 48,22)”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잊어버렸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은 그 죄를 잊지 않습니다. 저는 그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죄악 또한 짚어지셨습니다.”(이사 53,1-12 참조) 저는 여성에게 이사야서 53장을 하루에 세 번씩 매일 한 달 동안 읽으라고 조언해주었고, 여성은 죄의식과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지혜서는 말씀하십니다:

저 무도한 자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민족을 잡고 있다고 여겼지만 저들 자신이 암흑의 포로요 긴 밤의 죄수로서 영원한 섭리에서 추방된 채 자기 집 지붕 밑에 갇혔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은밀한 죄가 망각의 어두운 휘장에 가리어 들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지만 몹시 겁에 질리고 환영으로 혼란에 빠져 흩어져 갔습니다. 저들을 보호해 주던 구석진 곳도 더 이상 그들을 공포에서 지켜 주지 못하

였습니다. 사방에서는 무서운 소리가 들려오는데 침울한 얼굴을 한 음침한 유령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불도 빛을 내기에 충분한 힘이 없었고 밝게 빛나던 별빛도 그 끔찍한 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저절로 타오르는 무시무시한 불덩어리만 저들을 내리비쳤는데 그 광경이 사라지자 저들은 공포에 떨며 방금 본 것을 더 불길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마술의 속임수도 소용이 없고 저들이 뽐내던 예지도 창피스럽게 면박만 받았습니다. 병든 영혼에게서 공포와 불안을 몰아내주겠다고 약속하던 자들 자신이 우스꽝스러운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떤 무서운 것이 저들을 두렵게 하지도 않았는데 별레가 지나가거나 길짐승이 삐삐 움직이는 소리에도 겁을 먹고 하늘 보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도 그마저 마다하고 전율 속에 죽어 갔습니다. 악이란 비열한 것으로서 제 입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늘 어려움을 더해 가기만 합니다. -지혜 17,2-11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기치 않던 공포가 갑자기 저들에게 들이닥쳐... -지혜 17,15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는 공포영화를 보지 마십시오

부모들은 자녀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무엇을 보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공포영화를 보고나서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악몽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불을 끈 채로는 잠들지 못하게 되고 어두운 장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침실의 옷장 문이 열려져 있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읽어주는 이야기나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어떤 이야기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유령이나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이 두려움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인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개에게 물린 소년

어린 소년이 우연히 개의 꼬리를 밟게 되었고 개는 소년에게 달려들어 소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소년은 개를 아주 무서워하게 되었고 이 두려움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이제 소년은 어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피정에 참여해 시편 34장 4절을 하루에 열 번씩 한 달 동안 반복해서 읽으라는 조언을 듣고 이를 행했으며 이윽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뱀에 대한 두려움

“너는 의로움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압박에서 풀려나리니 네가 두려워할 일이 없으리라. 또 공포에서 풀려나리니 그것이 너에게 닥쳐오지 아니하리라. 누가 너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누구든 너를 공격하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쓰러지리라. 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고 재판에서 너를 거슬러 일어난 혀들은 네가 모두 패소시키리라. 이것이 주님의 종들을 위한 상속 재산이며 그들이 나에게서 받을 승리다. 주님의 말씀

이다.”(이사 54,14-15.17)

한 수녀님이 간증을 하면서 주님께서 수녀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을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수녀님은 어떤 것에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고, 특히 뱀을 유독 두려워하였습니다. 어느 날 수녀님은 숲에서 양을 치고 있던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오빠는 자신의 여동생인 수녀님도 가끔은 양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었는데 그 이유는 수녀님이 양들을 돌보는 동안 낮잠을 자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녀님은 양을 돌보는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오빠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여동생에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따끔한 맛을 보여 줄테다!” 오빠는 숲으로 들어간 뒤 잠시 후에 나타나 여동생을 향해 뱀을 던졌습니다. 수녀님은 비명을 지르며 기절을 했고 며칠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수녀님은 눈을 뜨길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이미 뱀에게 물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빠는 여동생에게 이미 숨이 끊어진 죽은 뱀을 던졌지만, 여동생을 까무리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 두려움이 수녀님 안에 들어와서 아주 작은 곤충이나 파충류만 봐도 수녀님은 몸을 사시나무 떨 듯 떨게 되었습니다. 피정을 하는 동안, 수녀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불들어 주리라. 보라, 너에게 격분하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리라. 너와 다투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 멸망하리라. 너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네가 찾으려 해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너와 전쟁을 벌이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없어진 자들처럼 되리라. 나 주님이 너의 하느님 내가 네 오른손을 붙잡아 주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이사 41,10-13)” 이 말씀이 수녀님으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피정을 통해 수녀님은 자신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별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요한 4,18)

두려움이 지나치면 근심에 빠집니다!

근심걱정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로 인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강둑의 한쪽 편에 서 있었습니다. 강둑의 반대쪽 편에는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개는 나무기둥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이유 없이 평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남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물이 다 마르고 저 개의 목줄이 끊어져 개가 달려와 저를 물어뜯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어떻게 불필요한 근심이 생겨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노년을 앞당긴다.”(집회 30,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

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마태 6,25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1베드 5,7).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몸소 마련한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예레 29,11)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치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일을 보게 되더라도 그에 대해 말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지위를 잃게 되거나 미움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은 거짓말을 하는 습관을 생기게 합니다. 진실을 말하거나 별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별을 피하고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읽고, 다시 읽고, 묵상하십시오.

1.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이사 41,10)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의 오른팔로 그대를 붙들어 주십니다.
2. “나 주님이 너의 하느님 내가 네 오른손을 붙잡아 주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이사 41,13) 이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 대한 확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3. “내 말을 들어라. 의로움을 아는 이들아 내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한 백성아. 사람들의 모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악담에 낙심하지 마라.”(이사 51,7) 그 어떤 말보다도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느님께로 돌아서서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4. “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고 재판에서 너를 거슬러 일어난 혀들은 네가 모두 패소시키리라. 이것이 주님의 종들을 위한 상속 재산이며 그들이 나에게서 받을 승리다. 주님의 말씀이다.”(이사 54,17)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5. “사람을 무서워하면 그것이 올가미가 되지만 주님을 신뢰하면 안전해진다”(잠언 29,25).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6. “그들이 당신께 불행을 쏟으려 할지라도, 흉계를 꾸밀지라도 그들은 성사시키지 못하리이다.”(시편 21,12). 이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의 영이 그대 곁을 영원히 떠나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7. “주님을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시편 34,5). 주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주님께서 온갖 두려움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8.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짓 예언자들을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1요한 4,4) 우리 영혼 한 가운데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사도 17,28 참조).
9.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별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1요한 4,18) 이 말씀을 매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10.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루카 10,19) 예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삶에서 드러내십시오.

6장 아프리카의 정령

아프리카는 거의 대부분 주술예식이 포함된 문화적인 행위들로 인해 영적 세계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간직한 내면의 상처들 중 대부분은 다양한 죄를 수반하는 전통의식과 믿음으로부터 자연스레 행해지는 주술과 영적인 영향의 결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적이자 모든 정령들의 원천인 사탄이 하느님의 자녀들을 파괴하고 구속하는 방법들을 궁리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복음사가가 경고했듯이,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올 뿐입니다.(요한 10,10) 이는 정확하게 사탄이 하느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 때 행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악마가 한 일을 없애 버리시려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1요한 3,8)”

아프리카는 수많은 다른 부족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족들은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프리카의 문화가 어떠하다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같은 의식에 대해 다양한 관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예식은 할례 예식, 작명의식이 그러하듯, 부족마다 상이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전통을 고수하는 연장자들이 여전히 수많은 아프리카의 부족들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같은 의식에 대해 다양한 관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같은 관습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는 방법들을 궁리합니다. 사탄은 활동하는 모습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고발하는 자(묵시 12,10; 즈카 3,1), 그리스도의 적(1요한 2,18; 2,22; 4,3), 모든 죄의 장본인(1요한 3,8), 빛의 천사(2코린 11,14),

짐승(묵시 13,1), 베엘제불(마르 3,22;루카 11,15), 마귀 우두머리(마태 12,24), 속이는 자(2요한 1,7;묵시 20,10), 마귀(야고 2,19;묵시 16,14), 재앙의 천사(시편 78,49), 악마(마태 4,11;요한 5,19), 메뚜기 떼(말라 3,11), 용(묵시 12,7;13,1-8), 적대자(1베드 5,8), 정의의 원수(사도 13,10), 악령(1사무 16,14),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이사 14,12), 거짓의 아비(요한 8,44), 싸움을 일으키는 자(잠언 13,10), 최초의 살인자(1요한 3,12), 거짓말쟁이(요한 8,44), 재물(마태 6,24;루카 16,13), 살인자(1요한 3,15), 그 옛날의 뱀(묵시 12,9), 지하의 사자(묵시 9,11),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에페 6,12), 중상하는 자(잠언 20,19;1베드 2,1), 멸망하게 되어 있는 자(2테살 2,3), 여명의 아들(이사 14,12), 유혹하는 자(마태 4,1,10), 악인... 등등. 이 이름들은 사탄의 속성뿐만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뜨려놓는 방법들 또한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는 정령들에 의해 통제되는 특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배하는 영을 식별하는데 실패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임하고 있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상대하는 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을 대적하는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을 받지 않고 약을 먹었을 경우를 생각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약의 부작용으로 고통 받을 것이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아프리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한 부분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탄의 간계를 깨닫거나, 아니면 사탄에 속하기에 일어나는 결과들로 고통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그것이 이르든 나중이든 인간을 죄로 이끄는 탐욕, 무절제한 욕망을 통해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8,34). 바오로 사도도 서간에서 “이 세상의 정령들” 아래에서의 종살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갈라 4,3.9:콜로 2,8.20). 여기서 말하는 ‘정령들’(elemental power or spirits)을 우리는 정확히 무엇이라고(또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본, 요소, 원소 등을 뜻하는 단어 ‘elements’는 이 세상을 물리적으로 구성하는 땅, 공기, 불, 물이라는 네 가지 원소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종교의 원시적인 형태 속에서 보이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천상의 존재들로 이해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가 왜 지금 여기서 이 장의 제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에 따르면, 정령들은 유대인과 이민족들 모두를 율법과 이교관습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또한 이민족들의 우상이 그저 타락천사들일뿐인 악마들을 표현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인들에게 하느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본디 신이 아닌 것들에게 종살이를 하였다고 말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갈라 4,8). 쉽게 말하면 이민족이었던 갈라티아인들은 이전에 사악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의심 없이 하늘의 천체를 영적인 존재와 연관 지어 하늘의 주인으로 헛되이 경배하고 흠숭하며 충성을 서약했음을 예상합니다(신명 4,19;17,3:욥 31,2-28). 아프리카 사람들이 믿음을 두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신 살아계신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에게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되었고,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전통을 믿도록 가르치는 모든 것은 악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사람을 이러한 ‘신들’의 종이 되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상숭배를 허락치 않으시고, 그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마주보도록 초대하십니다.

“사탄은 다양한 정령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는 방법들을 궁리 합니다.”

정령의 영향들

우리는 지금부터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오늘날 현존하는 정령들의 영향들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 영향들의 한 예로서,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자기기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기기만은 다음의 경우에 일어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을 때(야고 1,22:4,17), 우리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할 때(1요한 1,8), 자신이 실제로는 아니면서 무엇이 되는 듯이 생각할 때(갈라 6,3), 우리 자신이 뿐만 대로 거두어들이지 않을 것이라 믿을 때(갈라 6,7), 우리 자신을 21세기에 걸맞게 현명하고 교양 있다고 생각할 때(1코린 3,18-19), 불의한 자들일지라도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라 믿을 때(1코린 6,9 참조), 나쁜 교제를 하면서도 자신을 망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1코린 15,33). 이 모든 것이 악마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바오로 사도로부터 아무도 우리를 그럴듯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얻습니다(콜로 2,4). 바오로 사도는 덧붙여 말 합니다: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콜로 2,8) 바오로 사도가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들보다 훨씬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히브 1,4 참조).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을 통해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며, 우리는 하느님의 천사나 정령, 또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서 직접적으로 하느님을 “아빠(Abba)”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갈라 4,6-7) 천사나 인간을 통한 중재는 진실 된 신앙이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는 만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지 않은 채 하느님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정령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더 나아가,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으며(콜로 2,9)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권력을 넘어서시는 분이시라 말하면서(콜로 2,15), 모든 정령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역설합니다. 정령들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오직 한분이신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령들을 숭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욱 중요시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꼭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이들은 자신들에게 축복을 내리신 분께 감사드리는 것보다, 자신이 받은 것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보다 이 세상에서 가지는 재물을 더욱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들은 또한 주 예수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받게 된 세례의 힘보다는 이 세상에서 보여 지는 정령의 위대함에 더욱 사로잡혀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콜로 2,12 참조) 우리의 삶은 전례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례의식의 의미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는 지워지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콜로 2,13-14) 죽은 모든 이가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어마어마한 빛을 진 모두가,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권세와 권력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승리를 거두신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탕감 받았다는 것입니다.(콜로 2,15) 하지만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관습을 계속해서 유지해야한다는 주장하면서, 정령의 영향으로 사람들을 견고하게 묶는 종교의식과 전통의 시스템 안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신앙을 실천하고 싶어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은총을 더 많이 받고자 희망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자주,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인 것들에 너무 사로잡혀 있음을 발견합니다.(콜로 2,17) 이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의 정령들에 대항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던 옛 시절에 행하던 규율들과 관습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관습을 계속해서 유지해야한다는 주장하면서, 정령의 영향으로 사람들을 견고하게 묶는 종교의식과 전통의 시스템 안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모든 과거의 전통들과 관습을 지키면서 이중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곧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떤 면에서도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발견하는 이들이 있고, 자신의 전통과 문화적 관습에 속박을 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첫 자리에 두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단 하나의 목표입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로 인해 우리는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 쓰레기로 여겨야 합니다(필리 3,8). 다음에 나오는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령들의 영향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술행위

“아프리카의 주된 문제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한 합당하고 완전한 속죄를 뜻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이에 대해 감사해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서의 성공과 번영뿐만 아니라, 삶에서 찾아오는 어려움, 질병, 억압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대다수 악령의 힘에 의지하는 전통의식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뉘우치며 주님께 돌아서는 이들은 주님의 고귀하신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1요한 1,7)”

파푸아 뉴기니에서 있었던 일

파푸아 뉴기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수사님이 자신이 속한 선교수도회가 어떻게 해서 아주 최근에 선교를 시작하게 된 파푸아 뉴기니에서 복음화의 중요성을 잊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하는 동안, 수사님은 많은 이들이 여전히 주술의 힘을 믿고 있으며 물질적인 축복이 오직 전통적인 신앙과 의식을 통해서만 온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

습니다. 이 나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비옥한 토지로 덮여있음에도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약속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지키지 않는 악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수사님은 ‘그 누구보다 가난하셨던 예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부유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수사님에게 다음의 성경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2코린 8,9) 이어 다음의 성경구절도 들려주었습니다: “죄인의 사업에 탄복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네 일에 전념하여라.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이를 순식간에 부자로 만드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집회 11,21)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토빗이 토비야에게 해주었던 충고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얘야.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다고 해서 두려운 생각을 품지 마라.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모든 죄악을 피하며 주 너의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면, 큰 재산을 얻을 것이다.”(토빗 4,21) 우리는 수사님에게 악을 미워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이 사람을 부유함으로 이끄는 것임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주술은 사람을 공격해서 혼미하고 당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주술의 공격을 받는 영혼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자하는 동기가 부족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 눈을 흐리게 만들어 하느님께로 향해야하는 우리의 운명을 가로채길 원합니다. “너희에게는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와,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사와 주술사,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와 혼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문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신명 18,10-11) 삶의 다양한 단계에서 행해지는 잘못된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식들은 선으로 위장한 채 본연의 의미를 가려버립니다. 우리는 다음의 예식들과 연관되어 있는 악한 의식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혼인

많은 부족들이 지참금 협상과 지불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전통관습이라 간주되어지는 다양한 의식들을 행합니다. 또한 많은 문화들 안에서 일부다처제는 하나의 규범처럼 여겨집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라는,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혼인이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형태의 혼인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창세 2,24) 예수님께서도 “하느님께서 맷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르 10,9)라고 말씀하셨으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에 성모님의 요청으로 성령의 크신 사랑을 뜻하는 ‘가장 좋은 와인’을 통해 부부를 축복하신 까닭입니다.(요한 10,1-12)

출산

몇몇 전통적인 믿음 안에서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야기합니다. 다른 문화들에서는 쌍둥이나 장애를 가진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깁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나 생식능력이 없는 남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하느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시편 127,3). 그러므로 부모들은 성별이나 장애유무에 따라 아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창세 1,27)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마태 18,14)

할례

남자아이들에게 할례가 행해지는 동안, 몇몇 관습들은 사악한 의식이나 관행을 동반합니다. “악마가 한 일을 없애 버리시려고 하느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1요한 3,8). 하느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자를 이겨 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눅시 12,11).

가난과 번영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들은 영적인 양식에 있어서만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께서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부와 번영을 주실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물질적인 부와 번영을 위해 쉽게 주술과 마법으로 돌아서버립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1티모 6,10). 예수님께서 돌아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풍요로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33)

죽음과 매장

어떤 부족은 한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기 전에 그 배우자도 함께 묻히도록 강요합니다. 또 다른 부족에서는 죽은 이의 친지들이 모두 삭발을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배우자, 자녀, 친척의 죽음을 기념하는 다양한 의식들이 많이 있으며, 자살이나 살인의 경우 집 안으로 악마를 초대하는 의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흄 없고 티 없는 어린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1베드 1,18-19)

아내 상속/재혼

어떤 부족의 경우, 형제가 죽어서 형제의 아내가 훌로 남겨지면 다른 형제가 이미 아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관습에 따라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탈출기 22장 21절을 통해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정치적 운동

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권력을 향한 갈망을 이루기 위해 주술사나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권세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로마 13,1-7;1

코린 2,5:15,24)

주의: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통해 사람의 전통이나 관습을 따르기 위해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마르 7,8) 바오로 사도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이 안에서 하나입니다.”(갈라 3,28).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문화에 속하며, 예수님 나라의 언어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서도록 합시다.

이러한 의식들을 수반하는 다른 경우들:

- 파종이나 추수 때
- 다양한 질병과 퇴마치유
- 구직, 승진, 임금인상
- 차나 주택 등 새로운 자산
- 젖을 땐 아기에게 음식을 먹일 때
- 주술사의 통과의례를 통해서 유산을 상속
- 장로나 부족장을 선출할 때
- 우기나 건기
- 환영과 작별인사

주요한 문제는 이러한 많은 의식들이 악마숭배, 마술, 점 등 성경에서 금하는 행위들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레위 19,26-27.31;신명 18,9.13 참조). 이러한 의식들은 또한 죽은 이의 영혼이나 조상의 영혼을 달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다음의 행위들을 수반합니다:

- 술과 약물남용(담배나 마리화나 등)
- 가축 희생-소, 염소, 닭 등
- 간통(레위 18)
- 근친상간과 난잡한 성행위(레위 20)
- 이방인 또는 노예와의 간음, 매춘(레위 19,29)
- 수간이나 동성애, 그리고 시체와 성행위.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누구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탈출 22,18)
- 악령이나 조상의 원혼을 부름(레위 19,29 참조)
- 한 세대, 가계도, 땅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저주.

“정녕 야곱에는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에는 주술이 없다. 이제 야곱을 두고,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리라,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웅크리고 엎드린 모습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랴?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민수 23,23:24,9)

- 그리스도 신앙을 철회함(히브 10,26-39;12,16-17;에제 18,24)
- 약초 혼합물들-수프, 목욕로션, 고기나 음식의 절단면에 생긴 분말 등.

“그들을 낫게 해 준 것은 약초나 연고가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모든 사람을 고쳐 주는 당신의 말씀입니다.”(지혜 16,12)

● 우상숭배와 부적작용.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신상이나 기념 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조각한 돌을 너희 땅에 놓고 그것에 절해서도 안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레위 26,1-2). 바오로 사도 역시 여러 번에 걸쳐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하느님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귀들과 상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1코린 10,20)

● 인간, 특히 어린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행위.

“생물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할 때에 그것을 제단 위에서 쓰라고 너희에게 주었다. 피가 그 생명으로 속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레위 17,11-12)”

● 사탄이나 악마들에게 봉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삼 대 사 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탈출 20,1-5)” 하느님께서는 이렇게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불충한 자들, 역겨운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뜻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뿐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묵시 21,8)

● 폭력이나 자해행위.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1코린 3,16-17)

이러한 의식들이 행해지는 장소들:

- 숲, 동굴, 바위
- 방, 거실, 거울, 천장, 지붕, 찬장, 집의 구석 등
- 강, 호수, 바다
- 경작지, 언덕, 산

이러한 의식들이 행해질 때 생기는 피해자들:

- 어린이-맏이나 막내 또는 주술사가 호명한 자녀
- 기형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
- 춤꾼, 가수, 음악가, 레슬러, 연극인 등
- 몽유병 환자 등의 성격장애자들

이러한 의식이 행해질 때 사용되는 도구나 장치들:

- 저속한 노래, 춤, 드럼비트, 카얌바(흔드는 악기), 깨진 악기, 새 무덤에서의 소싸움, 수탉싸움, 현악기, 벨트와 구슬, 머리보호대, 동물가죽의상, 깃털, 뼈, 특수한 진흙과 기름, 동물 이빨

사용되는 동물들:

- 뱀, 악어와 같은 파충류, 닭과 같은 조류, 양, 원숭이 등

춤

- 에로틱, 밟기, 박수치기, 격렬하게 흔들기, 몽환적이고 벌거벗으며 밤시간을 위한 춤

사람들은 이러한 의식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될까요?

● 아마도 아이나 어른으로서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의식들에 참여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투자에 참여해서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서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영매나 점쟁이에게 가서 그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면, 나는 그자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잘라 내겠다.”

● 사탄은 의심하지 않는 사람 또는 비 그리스도인들을 매혹하기 위해 악한 영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의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2코린 6,14 참조)

● 하느님을 믿지 않고 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살아가고 있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거기에서 나와라.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마라. 그 가운데에서 나와라, 몸을 정결하게 하여라. 주님의 기물들을 나르는 자들아.”(이사 52,11)

●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오셔서 자리 잡으시도록 초대하지 않고 성사로부터 오는 보호를 구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향기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에 나의 거처를 정하고, 너희를 혐오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살아가면서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레위 26,11-12) 우리가 성사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도록 뚫어버리고 악마가 쉽사리 우리를 공격하도록 내버려두게 됩니다.

- 미디어, 소설책, 음악, 영화, 장식품, 만화, 음식들을 통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집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걷고 불의한 일을 저의 눈앞에 두지 않으오리다. 죄짓는 일을 제가 미워하여 그런 것 저에게 붙어 있지 않으리이다.”(시편 101,2-3)

● 문신이나 절개 등, 어떠한 형태로든 몸에 일부러 표시나 자국을 만드는 것 또한 악마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죽은 이를 위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도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레위 19,28).

어떻게 하면 주술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을 두고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신앙을 드러냄으로써.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사도 10,43)

- 세례와 성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사도 2,38)

- 악마와 악한 의식을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함으로써.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어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아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에제 33,11)

- 특수 기도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요한 8,31-36)”

- 온 마음을 다하고 특별한 지향을 담아서 미사에 참여하고 시간을 내어 성체조배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음을 통해서(요한 6 참조).

-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느님을 찬양하고 흡송함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하느님께 찬양제물을 바칩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제물입니다.”(히브 13,15-16)

- 묵주기도와 신성한 자비의 기도를 반복하고 성수를 지니고 다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25-27)

- 스카풀라와 성화, 그리고 다른 준성사들을 통해서.

“평화의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사탄을 짓부수시어 여러분의 발아래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로마 16,20)

- 지속적인 기도와 단식, 철야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16-18)

- 하느님의 갑옷을 입고 임하는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에페 6,2;1코린 10,3-5 참조)

● 성령과 그리스도의 성혈로 우리 영혼을 채움을 통해서.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갈라 5,16-18)

●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 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콜로 3,16-17)

● 가족기도, 피정, 복음전파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에페 4,4-6;마르 16,15-20 참조)

얼굴을 완전히 가린 여인

피정 후에 피정 참가자들이 사제에게서 특별 기도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몸 전체와 얼굴까지 모두 가린 채 기도를 받기 위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마에 십자가를 얹히고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있는 천을 거두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천을 거두었을 때, 여인의 얼굴을 뒤덮고 있는 끔찍한 피부병을 보게 되었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주술사를 찾아간 적이 있나요?” 이 여인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유를 물었고 여인은 “저는 알려지가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주술사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주술사가 저에게 자신이 제 병을 낫게 해주는 특별한 가루를 가지고 있다며 저에게 그 가루를 바르도록 했고, 자신과 잠자리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피부가 이렇게 된 것인가요?”라고 물었고, 여인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여인에게 시편 16장 4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불종은 자들의 고통이 크기에 저는 그 신들에게 피의 제사를 바치지 않으며 그 이름들을 제 입술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읽어주었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저는 이 여인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한 달 동안 매일 세 번씩 신성한 자비의 기도를 바치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인은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피부병이 기적처럼 치유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주술행위로부터 보호 받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전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사탄은 그저 요술과 속임수의 우두머리일 뿐입니다. 사탄은 환영과 기만을 통해 세상에 관여합니다.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자연에 한정된 힘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힘에 제한받습니다. 주술등과 같은 신비주의적인 행위들은 하느님의 말씀께서 말씀하시듯, 그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

습니다. “정녕 야곱에는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에는 주술이 없다. 이제 야곱을 두고,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리라,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민수 23,23) 우리가 모든 것 안에 전부이신 하느님께로 돌아서서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로 내어드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느님께 속하고 하느님께서도 우리 안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은 우리에게 그 어떤 힘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짓 예언자들을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1요한 4,4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악을 이기는 힘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1요한 4,4 참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얹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루카 10,18-19)”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요한 14,12)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을 부여받았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로 가는 날을 하루라도 연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빚을 남김없이 갚아주셨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늦추려 하지 마라. 정녕 주님의 분노가 갑자기 들이닥쳐 너는 징벌의 날에 완전히 망하리라.

-집회 5,7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악과 관련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큰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다.’(2역대 20,15)”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자녀들과 싸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든 악마들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요한 14,18)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을 마태오 복음에서도 듣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저주

저주는 초자연적인 힘을 불러서 사람이나 물건에 별이나 해를 가하려는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저주는 또한 분노나 불쾌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공격적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주는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였던 때에, 우리는 예전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영 안에서 새로운 우리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저주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하느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의 증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루카 6,45) 바오로 사도 또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에페 4,29) 우리가 삶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진실로 세상의 것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옛 친구들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친구, 가족 등,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네는 말 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령의 힘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혀의 힘에 대한 가르침과 저주가 죄인 이유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미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미와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아래서는 안 됩니다. 같은 샘구멍에서 단 물과 쓴 물이 솟아날 수 있습니까? 나의 형제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낼 수 있습니까? 짠 샘도 단 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야고 3,9-12) 우리는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혀도 불입니다. 또 불의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혀가 우리의 지체 가운데에 들어앉아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행로를 불태우며, 그 자체도 지옥 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야고 3,6)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는 이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혀를 조심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입술을 조심하여라.”(1베드 3,10)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약속들을 받았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여, 하느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2코린 7,1) 저주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을 따르는데 실패한 것이기에 하느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는 것과 반대됩니다.(마태 22,37-40) 우리가 이웃을 저주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하느님을 저주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이는 곤경에서 제 목숨을 지킨다.”(잠언 21,23)

주의하십시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것을 익힌 이들은 변호를 받을 것이다.”(지혜 6,10)

하루는 한 여인이 위기에 처해서 기도를 청하려 왔습니다. 이 여인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피가 멈추질 않아요.” 이 여인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여인에게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 은사가 주어졌다고 말했으며, 여인은 자신의 친구가 조언해준 대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친구가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 때문에 케타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친구를 찾아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은 자신도 친구와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저는 여인에게 결혼을 했는지 물었고 여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여인에게 성사혼을 했는지 물었고 여인은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희는 성당에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인이 죄 중에 살고 있으며, 사탄이 들어와 공격할 구멍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계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서 읽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바오로를 통하여 비범한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그의 살갗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그들에게서 질병이 사라지고 악령들이 물러갔다. 그러자 구마자로 돌아다니는 몇몇 유다인까지도 ‘바오로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스케우아스라는 유다인 대사제의 일곱 아들이 그렇게 하자, 악령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오로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였다. 그때에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모조리 억누르고 짓누르는 바람에, 그들은 옷이 벗겨지고 상처를 입어 그 집에서 달아났다. 이 일이 에페소에 사는 모든 유다인과 그리스인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훨씬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다.”(사도 19,11-17) 우리가 죄 중에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도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거룩한 이들만이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사탄 또한 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수 년 동안 승진을 하지 못한 여성의 이야기

“수 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했지만, 승진은 없었어요.” 이것이 이 여인이 영적 상담에서 내어놓은 슬픔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저는 성경을 펴서 성경구절을 찾았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야고 1,2-8) 저는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인은 답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11년을 지냈습니다. ‘하례 크리쉬나’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후에 이슬람과 힌두교 신도가 되었다가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하느님을 거스른 적이 있었습니까?”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수의 무신론 저널에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관한 사설과 기사를 썼습니다.” 이러한 일을 한 후에 여성은 알 수 없는 병에 걸렸고, 가족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이 여인의 무신론자 친구들도 여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슬픔에 빠졌고 우울

증을 겪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 한 가톨릭 사제를 만나서 고해성사를 보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여성의 문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음에도 번번이 승진에서 탈락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상사와 부하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했지만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친구 한 명은 여인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해주었습니다. “신부님, 이제 저는 예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은퇴해야만 해요.” 우리는 여인에게 시편 94장 17-18절(“주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지 않으셨다면 자칫 내 영혼은 침묵의 땅속에 드러누웠으리라. ‘내 다리가 휘청거린다.’ 생각하였을 제 주님, 당신의 자애가 저를 받쳐 주었습니다.”)을 매일 50번씩 반복해서 읽으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말씀 때문입니다.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로마 11,35) 한 달 후에, 이 여성의 상사가 다른 회사로 이적을 했고, 여인은 상사가 맡고 있던 직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저주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새가 떠돌듯, 제비가 날아다니듯 까닭 없는 저주는 들어맞지 않는다.”(잠언 26,2) 이는 저주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저주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성경에서 저주는 언제나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되어집니다. “너희에게는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와,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사와 주술사,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와 혼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문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신명 18,10-11) 미카서 5장에서 하느님께서는 우상들을 없애고 기념 기둥들을 없애 버리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뮤시록 18장 22-24절은 안티그리스도인과 그의 “큰 도성 바빌론”이 사용한 마술을 일종의 속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러한 현혹은 더욱 거대해져서 하느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을 것입니다.(마태 24,24) 하느님께서는 사탄과 그리스도의 적,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모든 이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뮤시 19-20 참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고(2코린 5,17),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가 존재하도록 보호해주시는 성령의 현존 안에 있습니다(로마 8,11 참조). 우리는 그 어떤 이교도 주문이나 저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두교(아이티에서 믿는 종교, 마법 등)의 주술적인 힘을 믿음), 주술, 마녀, 저주들은 우리에게 그 어떤 힘도 미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사탄으로부터 오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자보다 더 위대 하시”(1요한 4,4)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사탄을 이기셨고, 우리는 두려움없이 자유롭게 하느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요한 8,36 참조).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시편 27,1)

다른 이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집회서 10장 6절은 말합니다. “이웃의 잘못에 일일이 화내지 말고 거만한 행동은 조금도 하지 마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불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마태 5,22) ‘바보’, ‘멍청이’와 같은 말은 아주 위험합니다. 어느 때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을 ‘멍청이’로 부르는 것은 불불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처 입히는 이들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로마 12,14) 성 루카 복음사가는 말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루카 6,28)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감정적으로 행동해선 안 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이 우리에게 저주를 피붓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집회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애걸하는 이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고 그에게 너를 저주할 빌미를 주지 마라.”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저주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집회서 4장 1-4절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야아, 가난한 이의 살길을 막지 말고 궁핍한 눈들을 기다리게 하지 마라. 배고픈 사람을 서럽게 하지 말고 곤경에 빠진 사람을 화나게 하지 마라. 화난 마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없는 이에게 베푸는 일을 미루지 마라. 재난을 당하여 호소하는 이를 물리치지 말고 가난한 이에게서 네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가 우리를 저주하게 만듦으로써 악마가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제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5장 4절은 사제들과 관련해서 말합니다. “이 영예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느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종을 저주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시편저자는 경고합니다.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이들을 건드리지 말고 나의 예언자들을 괴롭히지 마라.”(시편 105,15) 따라서 사제를 저주하는 것은 대죄에 속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제들에게 부여하신 권위에 대해 다음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십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창세 12,3) 우리는 이 말씀의 무게를 깨닫고 악마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땅이 팔리지 않아요

“너희가 쫓아낼 저 민족들은 복술가들이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만,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신명 18,14) 한 본당 사제가 우리에게 피정에 참가 중인 어느 가족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가족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 가족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이 가족의 세 딸이 학업을 중단 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자신들의 땅을 팔고자 했지만 그 땅을 사

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찾아왔던 사람들은 땅을 원래 가격보다 훨씬 싸게 사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이 가정의 아버지는 땅을 팔기만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땅은 팔리지가 않았고 은행은 그들의 집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비탄을 듣고 우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성경구절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배워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는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와,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사와 주술사,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와 혼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문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나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런 역겨운 짓 때문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 흠이 없어야 한다. 너희가 쫓아낼 저 민족들은 복술가들이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만,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신명 18,9-14) 우리는 그 땅에서 주술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아버지는 이웃의 눈이 두려워서 주술행위를 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어느 주술사가 이 집을 방문해서 그 땅이 마법에 걸려있으며 정화예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땅을 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주술행위를 통해 그 땅을 빼앗고, 죽이고, 파괴하는 악마가 사는 땅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다만 흉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10) 주술과 점은 모든 풍요로움을 차단하고 그 땅으로 악마를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의 해석을 들은 후, 가족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우리는 즈카르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아라. 돌은 하나인데 눈은 일곱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내가 비문을 새기고 이 땅의 혀물을 단 하루에 치워 버리리라.”(즈카 3,9). 우리는 가족들에게 그 땅을 거닐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조언했습니다.(사도 16,24-31 참조) 그리고 땅을 위해 아홉 번의 미사를 봉헌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족은 한밤중까지 땅을 거닐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한 달 후에, 이미 자신들의 땅을 팔고 아들을 결혼시킨 한 가족이 찾아와 아주 높은 가격에 그 땅을 샀습니다.

같은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진 소년 이야기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 서원을 할 경우, 그것을 미루지 말고 채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실 것이고, 너희에게는 죄가 될 것이다. 아예 서원하지 않으면 죄가 될 일도 없다. 너희 입으로 주 너희 하느님께 스스로 서원한 대로, 너희 입에서 나온 것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신명 23,22-24) 잠비아의 루사카에서 피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같은 시험에서 세 번이나 떨어진 소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소년은 전공의 시험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소년에게 소년이 주님께 했던 약속을 떠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은 학업성적이 낮았고 미사 중에 복사를 설 때, 자신의 성적이 올라가면 커서 사제가 되겠다고 하느님께 약속을 했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소년은 기적적으로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잊어버리고 의대에 들어갔고, 계속해서 시험에 떨어졌는데 이는 소년이 했던 약속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잠언 1장 23절은 말합니다. “내 훈계를 들으려 돌아오너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 주어 내 말을 알아듣게 해 주리라.” 우리는 소년에게 하느님의 말

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서원을 제때에 채우기를 망설이지 말고 죽기까지 그 이행을 미루지 마라. 서원을 하기 전에 자신을 준비시켜 주님을 떠보는 인간처럼 되지 마라”(집회 18,22-23). 다음의 말씀도 들려주었습니다.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은 범법으로 가득 차고 징벌의 채찍이 그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가 맹세를 어기면 죄악이 그와 함께 머물고 분별없이 맹세를 하면 죄가 갑절로 무거워지리라. 그가 헛맹세를 하면 의롭게 되지 못하리니 그의 집이 온갖 재앙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다.”(집회 23,11) 소년은 온전히 하느님께로 돌아서서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약물남용

“약물은 남용하게 되면 심각한 손상을 야기합니다. 약물은 화학물질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잠재적으로 신체 기능을 변화시키고 신체의 자기보호와 자기통제 능력을 바꾸어버립니다. 의학적인 지침을 통하지 않은 채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약물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불구로 만들거나 죽일 수도 있으며, 심신을 약화시켜서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과 마취, 흥분이나 환각을 위해서 약물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서는 사람들은 진실로 이러한 약물남용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입니다(요한 8,36).”

약물남용은 사용자가 약물을 해가 될 정도의 양이나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물질 관련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물남용은 술이나 비합법적인 약물 등을 포함하는 항정신성 물질을 악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정신성 물질의 사용은 그 약물을 섭취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생기고 약물 사용을 자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해로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약물 의존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약물남용은 거의 모든 공동체와 가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공적인 건강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약물남용은 환각상태에서의 운전, 폭력, 스트레스, 자녀학대 등과 같은 주요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약물남용은 노숙, 범죄, 실직이나 직장 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물남용은 태아에게 해를 끼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서십시오. 주님께서 약물에 대한 갈증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약물중독

중독은 중독된 사람이 습관의 실질적인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강렬한 욕망과 함께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중독으로 나아가게 되는 길은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나 피로로부터 안정을 취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약물이 주는 매혹적인 효과가 사라질 때면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다시 약물을 사용합니다. 이는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미 약물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을 키우는 것입니다. 욕망의 강렬함과 빈번함은 너무도 빠르게 성장해서, 많은 경우 중독이 되었다는 사실은 비극적인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중독자들은 더욱 간절히 규칙적으로 약물을 취하고 싶어지게 되고 더 많은 약물을 가지고자 돈을 벌기위해 다양한 범죄에 연루됩니다. “습관이란, 우리가 그것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곧 필수불가결한 것이 됩니다”(성 아우구스티누스).

약물중독의 이유는?

쉬운 접근

약물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물은 언제나 접근이 용이합니다. 약물에는 여러 형태가 있고 약국이나 길거리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재미 삼아

많은 청소년들이 대담함과 호기심에서 약물을 섭취합니다. 젊은이들은 그 성격상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자 합니다. 이들은 약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데 자신들의 대담함과 모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어떤 재앙도 일어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래집단의 영향

이미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또래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물을 섭취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약물을 원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18살인 어느 소녀가 마음을 열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들로 인해 끔찍한 약물의 사슬에 매이게 되었어요. 저는 저의 감정을 숨기고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어요. 저는 7년 동안이나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언제나 불안했거든요. 저는 저의 가치들, 제 도덕성, 종교, 부모님, 저를 도와주려는 모든 사람을 저버렸어요. 저는 그냥 죽고 싶었어요.”

부모에 대한 반항

많은 청소년들은 사랑을 주지 않고 무시하는, 너무 풀어주거나 이와는 반대로 권위적이고 적대적인 부모에게 반항을 하기 위해서 약물을 남용합니다.

삶의 압박으로부터의 도피

몇몇 청소년들에게 약물은 삶에서 오는 긴장과 압박이나 지루함으로부터 도망치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결함이 있고 불만족스러운 사회적인 구조는 청소년들을 다양한 형태의 약물을 통해 거짓된 파라다이스를 찾도록 내몰아버립니다. 높은 실업률, 주택부족, 사회불의, 정치적 기회주의, 국제정세의 불안정 등을 포함하는 사회 구조의 많은 결점들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어 부정적인 경험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소외감과 동기부족

약물남용은 소외감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소외는 사회적 가치로부터 오는 깊은 거부이며, 젊은이들은 자신이 사회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개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할 때 생기게 됩니다. 사회로부터 오는 이러한 소외감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조직화된 사회의 보상을 거부하고 삶의 온전한 의미를 찾거나 또는 기피하기 위해 항정신성 약물 사용으로 자기만족적인 세상으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또 삶의 동기가 부족하기에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기준이 부족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삶은 가치도 의미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들 중 몇몇은 낯선 땅에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비극적이고 슬픈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수단으로 약물을 사용하도록 내몰립니다.

감정적인 장애

약물에 대한 의존은 또한 삶에서 오는 요구들을 해결하거나 의미있는 정체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감정적인 장애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중독자들 중 많은 이들이 부모로부터의 거부나 차별, 또래집단에 받아들여지지 않음, 감정적인 고립, 낮은 자존감에 대해 불평할 것입니다. 많은 중독자들은 자신들이 불안, 지루함, 우울함, 실패의 두려움과 목적의식 결여를 해결할 어떤 방법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중독이 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에 나오는 상황에 처해있다면 중독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 모든 것에 흥미를 잃고 게으름에 빠졌을 때
- 입맛을 잊거나 원인을 알 수 없이 체중이 줄어들 때
- 시야가 흐려지고 눈이 충혈될 때
- 메스꺼움이나 구토증세가 있고 몸이 아플 때
- 졸음이나 불면증, 무기력증과 수동성에 빠질 때
- 갑작스런 불안, 우울증을 보이거나 식은땀을 많이 흘릴 때
- 집에 주사기 등이 든 수상한 가방을 소유하고 있을 때
- 기분이 급작스레 변하고 짜증을 잘 낼 때
- 감정적으로 무관심해질 때
- 기억이 손상되었을 때
-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화장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때
- 집에 돈이나 물건이 사라졌을 때

사람의 정신은 제 병을 참아 내지만 기가 꺾인 정신은 누가 견디어 내랴?

-잠언 18,14

중독 된 사람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합니까?

스스로 아픔을 감내하면서 자주 바로잡아주지 않는다면 약물에 의지하는 습관으로부터 누군가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빈정꾼을 꾸짖는 이는 수치만 당하고 악인을 나무라는 이는 오점 만 남긴다”(잠언 9,7).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1베드 3,16

이러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최선의 길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빵과 물에 강복하고, 너희에게서 질병을 없애 주겠다.”(탈출 23,25) 신경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육체적 정신적 의존을 야기하는 약물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최선의 충고는 누구에게라도 약물을 취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삶 전체에 올바른 지향을 부여한다면, 스스로 약물남용과 중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새롭고 진실 된 이상을 향하는 서약을 함으로써 삶에 새롭고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재미나 위안, 풍요로움은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가치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일하며 살아갈 더 높은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젊은이들은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 할 때 반드시 책임감 있고 보살필 줄 아는, 진실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아버지들에게서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삶이 약물 없이도 즐거움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과 관계 맺기

누군가 중독에 빠진 이를 돋고자 한다면 반드시 무엇보다도 먼저 작은이들 하나라도 모두 돌보시는 하느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마태 18,14)

하느님 안에 희망 두기

절대로 중독자를 비난하거나 비하하지 마십시오. 중독자가 약물에 의지했던 첫 번째 이유가 모든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중독자의 삶 안에 희망을 회복시키길 열망하고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실현가능한 꿈을 꾸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며 삶의 밝은 부분을 바라보도록 격려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으려는 모든 노력을 중독자가 거부할지라도 인내하십시오.(이사 40,30-31)

하느님의 함께 아파하시는 얼굴을 배우기

자신이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과 비이성적인 믿음 안에서 성장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할 때 마술 같은 해결책은 제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마태 11,28-29)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회개

자신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열망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와야 합니다. 중독자들이 변화하려고 노력할 때 곁에 있어줄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호세 6,1-3)

기도의 힘

우리는 기도가 사람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중독자들이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하느님께서 삶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 그 무엇도 해줄 수 없습니다. 중독자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한 사람의 인간 존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힘든 시간이 될 테지만, 반드시 이들에게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약물남용을 극복하는 방법

읽고, 다시 읽고, 묵상하십시오

1. “아이들아, 용기를 내어 하느님께 부르짖어라. 그분께서 너희를 억압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빼내어 주시리라.”(바룩 4,21) 주님, 저는 당신께서 저를 약물남용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으심을 믿습니다. 제가 당신께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 “용사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폭군에게서 포로들을 빼낼 수 있느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용사에게서 포로들을 빼앗을 수도 있으며 폭군에게서 전리품을 빼낼 수도 있다.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대적하여 너의 자식들을 내가 구해 내리라.’(이사 49,24-25)” 저의 예수님, 저는 당신께서 이 끔찍한 약물남용의 사슬에서 저를 구해내실 수 있으심을 믿습니다. 제가 당신께 믿음을 두고 제 삶 안에서 당신의 전능하신 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3. “이 곤경 속에서 그들이 주님께 소리치자 난관에서 그들을 구하였다.”(시편 107,19) 주님, 저는 당신께서 약물남용이라는 이 억압에서 저를 구하시어 당신의 참된 제자로 이끌어 주실 수 있으심을 믿습니다.
4.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색을, 표범이 자기 얼룩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수만 있다면 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예레 13,23) 주님, 저는 비록 삶 속에서 약물을 남용했지만, 제 삶을 해방시키시는 당신의 힘을 믿습니다.
5. 자신이 약물중독에 너무 심하게 빠져서 해방될 수 없다고 느낀다면, 다음의 성경구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올리브 나무에서 몇몇 가지가 잘려 나가고,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인 그대가 그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 그 올리브 나무뿌리의 기름진 수액을 같이 받게 되었다면, 그대는 잘려 나간 그 가지들을 얕보며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입니다.”(로마 11,17-18) 주님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저를 당신 몸에 접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6. “나는 주님이며 모든 인간의 하느님이다. 무엇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냐?”(예레 32,27). “아,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큰 권능과 뻣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당신께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예레 32,17) 주님, 당신께 청합니다. 저를 약물남용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비록 이것이 저에게는 크나큰 짐일지라도, 저의 예수님, 당신께는 작은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엘 샤다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저의 하느님, 저를 구해주소서. “저의 주님, 저희의 임금님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 말고는 도와줄 이가 없는데....”(에스 4,17(14)) 제가 당신의 참된 증인으로서 영원토록 찬양의 노래를 부르리이다.

아주 가깝지만 너무나도 멀리계신

하루는 개인기도 중에 하느님께서 영감을 내려주시길 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 앞에 서 계시는 환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했고, 예수님께 큰 존경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그분의 발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제가 합당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발 가까이 갈 때까지 그 자리에 계셔주시길 청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향해 걷기 시작했고 그 거리가 아주 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뛰기 시작했고 예수님께 제가 도착할 때까지 떠나지 말아달라며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께서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계셨지만,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할수록 한발자국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가가려하면 할수록 제가 주님으로부터 더욱 멀리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시기에 제가 주님께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깊은 격차를 만들어낸 것은 다름 아닌 저 자신의 나약함이었습니다. 매일의 삶 안에서 제 자신의 성화를 계을리 한다면, 저는 예수님께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 이름 부르며 경배 드리는 자 없고 당신을 불잡으려고 움직이는 자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외면하시고 저희 죄악의 손에 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이사 64,6)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도달하려는 우리의 발버둥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히브 4,15-16). 거리가 먼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도록 합시다.

알코올 중독

“과음은 몸에 일시적인 기쁨을 주지만, 또한 영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우리는 영혼이 몸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자기의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갈라 6,8) 알코올 중독에 빠진 영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깊은 파멸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물로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실 것입니다.”(요한 7,37)

이 세상에서 남용되어지는 약물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우리는 다음에 이어질 내용에서 알코올 중독과 흡연에 대해 이야기 할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과 흡연은 아주 흔한 중독물질이며 많은 이들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는 과음을 하는 나쁜 습관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과음을 허용한다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느님의 말씀과 가톨릭교회의 전통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신명 30,19) “그러나 보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면서 ‘내일이면 죽을 몸, 먹고 마시자.’ 하는구나.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내 귀에 일러 주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결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이사 22,13-14)

과음은 죄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거룩함을 파괴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1코린 6,19)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당신의 피로써 값을 치려주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1코린 6,20)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로마 12,1-2

우리는 그저 하느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빛으신 진흙 작품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이사 64,7). “옹기장이가 제 손에 있는 진흙을 제 마음대로 빚듯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분의 손안에 있고 그분께서는 당신 결정에 따라 인간에게 되갚으신다.”(집회 33,13). 술을 과도하게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거룩한 현존에 불경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1코린 3,16-17). 오늘날 모든 술병에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는 이를 알고도 술을 과도하게 마시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비극입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많은 이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잠언 23,29-35). 많은 이들이 술을 조금만 마시는 것은 건강에도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정뱅이 일꾼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작은 것을 무시하는 자는 조금씩 망하리라”(집회 19,1).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고기를 먹든 술을 마시든, 그 밖에 무엇을 하든, 그대의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로마 14,21). 다음의 성경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술 마시는 것으로 남자다움을 과시하지 마라. 술은 많은 사람을 망쳤다”(집회 31,25). “‘사람들이 날 때려도 난 아프지 않아. 사람들이 날 쳐도 난 아무렇지 않아. 언제면 술이 깨지? 그러면 다시 술을 찾아 나서야지!’ 하고 말한다.”(잠언 23,35). “술은 빈정꾼, 독주는 소란꾼 그것에 취하는 자 모두 지혜롭지 못하다.”(잠언 20,1). 음주는 우상숭배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 청동과 쇠,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였다.”(다니 5,4)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원천입니다!

하느님을 경외함은 악을 증오하는 것이며, 이는 술의 유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예레

35,5-8).

과음은 성적인 죄로 이어집니다!

“불행하여라, 이웃들에게 술을 먹이고 취할 때까지 화를 퍼붓고는 그들의 알몸을 바라보는 자!”(하바 2,15) 술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불행하여라, 술 마시는 데에는 용사들이요 독한 술을 섞는 데에는 대장부인 자들!”(이사 5,22) 이는 음탕한 성적인 죄로 이어집니다. “술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들은 언제나 불륜을 저지르면서 자기들의 자랑스러운 분보다 수치를 더 좋아 한다.”(호세 4,18)

과음은 육의 행위입니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갈라 5,19-21) “육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느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로마 8,7-8)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에페 5,18)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1요한 2,16)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 합니다.”(1코린 6,10)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로마 8,13)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하던 때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1베드 1,14-15)

과음은 우리를 파괴할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것으로 남자다움을 과시하지 마라. 술은 많은 사람을 망쳤다”(집회 31,25). “지나가는 우둔한 자나 주정꾼을 고용하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궁수와 같다.”(잠언 26,10). 성경에는 모든 사제들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너와 너의 아들들이 만남의 천막 안에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마시면 죽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레위 10,9) 이사야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불행하여라. 아침 일찍부터 독한 술을 찾아다니고 저녁 늦게까지 술로 달아오르는 자들! 그들은 비파와 수금, 손북과 피리 소리와 더불어 술을 마셔 대면서 주님의 업적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손이 이루신 일에는 눈도 돌리지 않는다.
-이사 5,11-12

술을 위해 죽음을 택하려 합니까?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육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듭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갈라 5.24) 우리를 촉구하는 많은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얘야,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난날의 죄악에 대하여 용서를 빌어라”(집회 21,1).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잠언 16,20)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너 자신과 네 힘을 불좋지 말고 마음의 욕망을 따르지 마라.”(집회 5,2) 음주는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술을 끊는 것이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라. 너희는 죄악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너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와 아뢰어라. ‘죄악은 모두 없애 주시고 좋은 것은 받아 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황소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바치렵니다.’(호세 14,2-3)” 요나를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건져내신 주님께서는 술에 심하게 중독된 이들을 구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땅은 빗장을 내려 저를 영원히 가두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구령에서 제 생명을 건져 올리셨습니다.”(요나 2,7)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주신 주님께서는 알코올의 노예가 된 이들을 해방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남지 않게 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나는 너희 명예를 부수어, 너희가 얼굴을 들고 걸어갈 수 있게 하였다.”(레위 26,13)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돌아오려고만 하면 나도 너를 돌아오게 하여 내 앞에 설 수 있게 하리라. 네가 쓸모없는 말을 삼가고 값진 말을 하면 너는 나의 대변인이 되리라. 그들이 너에게 돌아올망정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예레 15,19)”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흥겨운 소리가 터져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고 내가 그들을 영예롭게 하리니 그들이 멸시당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자손들은 옛날처럼 되고 그 공동체는 내 앞에서 굳건해지며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모두 내가 벌하리라.”(예레 30,19-20) 술을 끊는 사람은 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계절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들은 번성할 것입니다. “겸손한 이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리니...”(이사 29,19).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술을 마시지 않느냐고 따지며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경고합니다. “너희는 헛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악인과 손잡고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며, 재판할 때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탈출 23,1-2). 다음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흄 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1티모 6,14) 바오로 사도도 경고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1코린 6,9-11)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빛깔이 좋다고 술을 들여다보지 마라. 그것이 잔속에서 광채를 낸다 해도, 목구멍에 매끄럽게 넘어간다 해도 그러지 마라. 결국은 뱀처럼 물고 살무사처럼 독을 쏜다. 네 눈은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되고 네 마음은 괴상한 소리를 지껄이게 된다. 너는 바다 한가운데에 누운 자와 같고 돌대 꼭대기에 누운 자와 같아진다.”(잠언 23,31-34) 사람들은 누군가 술을 사줄 때에만 마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우리에

게 독을 가져와서 공짜로 준다면, 그것을 마시겠습니까?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마실 것을 청했지만 옆에 앉은 사람은 말합니다. “당신이 마실 것을 찾고 있다면, 제가 사온 이 독을 물에 타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죽기 일보 직전일지라도 독을 마시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술을 다른 무엇도 아닌 가족과 자녀, 돈, 건강, 직장, 윤리와 사회관계를 망치는 독으로 간주하십시오.

알코올 중독은 술을 과도하고 습관적으로 마시는 만성질환입니다. 이 병은 내버려두면 더욱 악화되고 중독자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술에 대한 신체적 의존이고 간, 위, 장, 뇌를 포함하는 신체 장기의 장애를 유발합니다. 또한 부정맥, 암, 입맛 상실로 인한 영양 부족을 유발합니다. 술은 그 어떤 약물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은 이의 삶을 망쳐놓으며, 더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더 많은 돈을 소비하게 만듭니다. 술은 손쉽게 이용 가능하고 쉽게 남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하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에는 유전적 이유, 가정환경, 현재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슬픔, 외로움, 우울, 지루함 등이 있습니다.

- **미디어와 사회적 영향:** 모든 음주는 미디어와 사회적 영향으로 시작합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왜 술을 마시고 약물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그들은 수많은 이유를 댈 것입니다. 그들은 “축하하기 위해서”, “재미로”, “시련을 잊으려고”, “시험 삼아”, “인상을 주려고”, “유행이니까”, “어울리려고”, “사업상의 이유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대부분 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미디어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적인 문란함, 약물남용, 야한 옷차림을 하도록 조장합니다.
- **또래집단의 압박:**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쁜 교제는 좋은 관습을 망칩니다.’(1코린 15,33)”
- **술이 주는 효과를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술의 효과를 즐긴다는 것은 조금은 합리적인 이유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 **괴로움을 잊으려고:** 양심을 억누르기 위해서 술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술의 영향력 아래서 쉽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복부질환 발병률이 더 높은 이유입니다.
- **무지는 젊은이들을** 이 끔찍한 병으로 끌어들이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자극제-일이나 작업속도를 더 높여주는-로 여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말해서, 술은 저하자-행동을 느리게 하고 뇌의 활동을 저하시키는-입니다. 아주 흔히도, 동료에게서 얻은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서 희생자는 자신이 이미 이 중독의 사슬에 매여있다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영혼은 해방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님의 성전입니다.

-1코린 3,16-17

다음에 나오는 예시는 한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령의 성전인 몸을 술을 통해 파괴하는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알코올 남용은 신체의 필수적인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간-현저한 간염 증세, 얼굴 부종, 발목이 부어오름, 채액으로 인한 복부팽창, 불면증.

심장-심장의 확장, 심장 떨림, 짧은 호흡, 과도한 식은땀, 심박 수와 혈압 상승.

폐-호흡기 질환, 만성 기관지염과 폐렴.

중추신경계-이어지지 않고 혼동되는 사고와 발언, 기억상실 증가.

위-위산 증가로 인한 위염, 혈성구토물, 입맛과 체중 저하, 빈혈.

뇌-뇌세포 손상과 뇌 구조 변형: 알코올 중독자의 사후 뇌는 쪼그라들고 혈류로 인해 축소됨, 술 마시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기억상실.

알코올 중독은 가난, 다툼, 외설적 행위로 이어집니다. 알코올 중독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삶 또한 망치고 끔찍한 사회적 결과들을 일으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는 방법

그 시작은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오직 한분이신 구원자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실패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의 성경구절을 읽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변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2코린 6,2) 다음의 성경구절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요한 8,36)

예수님의 은총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음의 것들이 가능합니다:

- 유혹을 떨쳐내기. 집이나 직장에서 술이나 술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치워버림.
- 가족, 친구, 직장동료들에게 자신이 지금 술을 끊고 있음을 알림. 만약 이들이 술을 마신다면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 앞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함.
- 집 안에서는 절대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되며 술이 제공되는 그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함.
- 나쁜 영향을 피함. 술을 끊겠다는 자신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이 정한 한계를 존중함. 이는 몇몇 친구들과 사회관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함.
- 과거로부터 배우기. 술을 끊으려 했던 과거의 시도들을 돌아봄. 무엇이 효과가 있었나? 무엇이 효과가 없었나?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떠한 것을 시도할 수 있을까?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로마 13,12-13

우리는 그 어떤 감정이나 인간적인 공격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의 영에 저항하고자 한다면 하느님의 갑옷(에페 6,11-16)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딸들

“애걸하는 이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고 그에게 너를 저주할 빌미를 주지 마라. 그가 비참한 삶 속에서 너를 저주하면 그를 만드신 분께서 그의 호소를 들어 주시리라.”(집회 4,5-6) 한 어머니가 일곱 자녀(딸 다섯, 아들 둘)를 두고 있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모두 딸이었는데 이들 중 누구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이미 서른아홉 살이었고, 둘째는 서른일곱 살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 딸들을 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어머니는 독실한 기도모임의 지도자였고,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저는 이 어머니에게 남편에 대해 질문을 했고, 우리는 이 여성의 남편이 여성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을 했었고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처와 아이들을 버리고 이 어머니와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주 부자였던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 사실을 무시하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남편의 전처와 다섯 자녀들이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거절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곱 자녀들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남편의 첫 번째 가정을 깨트렸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탈출기 22장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탈출 22,22-23) 잠언 22장은 말씀하십니다. “빈곤한 이를 강탈하지 마라. 그가 빈곤하지 않으느냐? 성문에서 가난한 이를 얹누르지 마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떠맡으시고 그 약탈자들의 목숨을 약탈하신다.”(잠언 22,22-23) 이 어머니가 회개하고 남편의 전처소생인 다섯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딸들이 결혼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흡연

“흡연은 치유뿐만이 아니라 해방 또한 필요로 하는 강렬한 습관입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으신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금연에 대한 결심은 흡연의 한시적인 만족과 비교해서 금연을 했을 때 얻게 되는 더 값진 이익을 강조하는 논리에 의해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흡연이 악한 영에서 오는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괴적인 영으로부터 해방시키실 수 있으신 유일한 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이들은 해방과 치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시편 41,4 참조)

흡연을 하는 이들은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장소인 자신의 몸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몰아내

게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몰아내게 되면, 우리 삶에 커다란 비극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흡연이 심각한 건강상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구취, 끊임없는 기침, 소지금의 감소 등은 흡연자들이 보여주는 몇 가지 공통적인 징후입니다. 흡연하는 이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흡연하지 않는 이들을 간접흡연자로 만들어 피해를 입힙니다.

흡연의 위험성

흡연은 우리 삶의 안녕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계획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파괴할 그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폐, 목에 위험이 증가하고 다양한 형태의 암이 발생할 확률 또한 높습니다. 기종, 천식, 만성 기관지염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겪을 위험성도 큽니다. 심장마비, 고혈압, 중풍, 동맥경화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겪을 위험성도 큽니다. 중풍의 위험은 특히 피임약을 먹는 여성 흡연자에게 더 높습니다. 흡연은 임신을 힘들게 하고 불임을 겪게 만들 수 있으며, 임신 중 흡연은 태아의 성장에 장애를 초래합니다.

흡연자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도 위험에 처하는가요?

흡연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까? 간접흡연 또한 흡연과 마찬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접흡연은 누군가 흡연할 때 나오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것입니다. 폐암으로 사망하는 많은 이들이 흡연자와 함께 사는 비흡연자입니다. 실내에서 흡연자와 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비흡연자는, 흡연자가 담배를 세가지 피울 때 흡연자와 거의 같은 건강상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창문이 닫혀 있어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무실이나 집에서는 그 위험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간접흡연은 직접흡연과 술 바로 다음에 자리하는, 사망 원인 세 번째 요인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마태 18,6)

흡연은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나약한 이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친절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들을 돌보아 주면서 우리들 스스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갈라 6,1)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느님의 길을 가르치는데 도움과 지지를 주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에페 6,4). 자녀들을 상냥함으로 바로잡으십시오. “고귀한 이는 고귀한 것을 계획하고 고귀한 것을 위하여 일어선다.”(이사 32,8) 비록 바르게 보일지라도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바른길로 보여도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잠언 14,12)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또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차지하려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신명 30,15-16) 한 사람이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치유하시는 손길을 받는 것입니다.

흡연은 말 그대로 파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길이 좋다.”라고 말하며 옆에서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는

이에게 잘못 인도되지 말라고 말합니다.(집회 37,9) 많은 이들이 무지로 인해 파멸의 길을 걷습니다. 이들은 이 죄의 심각성과 그것이 끼칠 해로움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마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44장 20절에서 흡연자들이 재를 뒤쫓으며, 혼혹된 마음에 이끌려 제 목숨을 구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오른손에 있는 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하거나 자신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집어삼키는 불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보라, 그들은 지푸라기처럼 되어 불이 그들을 살라 버리리라. 그들은 그 불길의 위력 앞에서 저 자신도 구해 내지 못한다. 그 불은 몸을 덥힐 숯불도 아니고 그 앞에 앉아 찔 불도 아니다.”(이사 47,14) 점차적으로 이들은 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공포가 들이닥치면 그들은 평화를 찾아도 얻지 못하리라.”(에제 7,25) 그리고 슬프게도 이들은 삶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화살이 간장을 꿰뚫을 때까지 목숨을 잊을 줄도 모르는 채 그물 속으로 재빨리 날아드는 새와 같다”(잠언 7,23).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하느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를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6장 19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느님과 맺는 우리의 자발적인 약속은 우리를 책임감으로 인도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돌보고 올바로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체적인 파멸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1코린 3,17).

흡연을 극복하는 방법

흡연은 치유뿐만이 아니라 구마가 또한 필요로 하는 강렬한 습관입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으신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금연에 대한 결심은 흡연의 한시적인 만족과 비교해서 금연을 했을 때 얻게 되는 더 값진 이익을 강조하는 논리에 의해 강화되어야 합니다. 금연에 성공한 이들은 자신들이 더 선명하게 사고하고 깊은 숙면을 취하며 기침을 더 적게 하고 입맛이 돌며 꽃향기를 맡을 수 있다 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흡연을 위해 사용해오던 돈을 절약합니다. 흡연을 하는 이들은 담배를 피우도록 유혹하고 조장하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흡연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사랑 가득한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흡연의 영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손바닥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말하여라. 아, 슬퍼라! 이스라엘 집안이 저지른 악하고 역겨운 그 모든 짓. 그들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쓰러질 것이다. 멀리 있는 자들은 흑사병으로 죽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며,

남은 자들과 보호를 받던 자들은 굶주림으로 죽어 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내 화를 그들에게 다 쏟겠다.'(에제 6,11-12)" 흡연은 역겨운 짓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1코린 6,13) 흡연은 성령의 성전인 우리 몸을 파괴합니다.
-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1코린 6,20) 흡연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창피하게 만듭니다.
- "죄지은 자만 죽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짓값을 짊어지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짓값을 짊어지지 않는다. 의인의 의로움은 그 자신에게만 돌아가고, 악인의 죄악도 그 자신에게만 돌아간다."(에제 18,20). 흡연은 악한 행위입니다.
- "그러나 스스로 불을 피우고 불화살에 불을 댕기는 너희는 모두 자기가 피운 불 속으로, 자기가 댕긴 불화살 속으로 들어가거라. 이것이 너희가 내 손에서 받아야 할 바이니 너희는 고통 속에 드려누워야 하리라."(이사 50,11). 흡연은 자체적인 위험들을 수반합니다.

7장 내적 치유를 받는 방법

내적 치유는 하느님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 보상이 언제나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 견디어낸다면 놀랍고도 아름다운 선물이 주어집니다. 내적 상처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내면에 숨겨진 채로 묻혀있기 때문에, 치유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 자신의 과거를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마태 8,8 참조)

어린 시절에 들었던 부정적인 메시지는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되어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됩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한 사람이 어린 시절 들었던 거슬리는 메시지를 떠올림으로 인해 그 사람을 감금시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반드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며,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본인으로부터도 고립시켜버립니다. 고립된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행동을 취합니다. 아니면 어릴 때부터 만들어 온 가면 뒤에 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수치를 느끼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며 자신 안으로 몰두해 나쁜 습관에 중독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면의 목소리가 얼마나 강하고 큰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한 감정적이고 영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적 치유를 필요로 하는 왜곡된 감정들:

-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서 짊어지려 하지만 그럴 힘이 없다고 느낌
- 자신이 조절할 능력이 부족한 어떤 과정도 신뢰하지 않음
- 실수를 하거나 자신을 실수에 결부시킬 때 과도한 수치감을 느낌

- 다른 이들을 위협하거나 억누르고, 무시하거나 깔아뭉개
- 사회적 위치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낌
- 자신의 감정을 다른 이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고 넘겨줌
- 도움을 주고 싶지만 그 첫발을 내딛지 못함. 이를 설명하지도 못함

친교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상황에 대해 고려해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교에 대한 시각은 어린 시절 겪게 된 친교의 정의에 의해 정립됩니다. 만일 어린 시절에 친교를 두려움과 고통으로 받아들였다면, 성인이 되어서 친교 맷기를 피할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은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라면서 실패가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인지해왔다면, 실수를 하더라도 그로부터 무언가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실수로 인해 가혹한 결과를 겪게 되었다면, 자신을 실수의 한 부분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린 시절에 실수가 결코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완벽주의자가 되어 실수를 인격적인 실패로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치유는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내적 치유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

인식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서는 내부에 무엇이 부서져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메시지를 검토해보고 그것들을 노트에 써서 내면의 상처와 그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알아낸 것에 대해 나눔을 가져야 합니다.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내적치유과정, 영적 상담, 매일의 양심고찰이 이러한 인식에 도움이 됩니다.

행동

인식하고 난 뒤에는, 각 상황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함으로써 긍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는 안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차단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더 긍정적으로 행동하십시오. 긍정적인 행동은 마음속에 각인되어 왔던 왜곡된 시야를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통찰력과 역동성은 우리 삶을 바꾸고, 삶에 더 많은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아마도 영적 지도사제의 지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지도를 행하지 않아야만 하는 이유를 대면서 온갖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받아들일 수 있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유지

지금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행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기도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끊임없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멈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행동의 지속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는 이를 해낼 수 없습니다. 기도모임 또한 지원부대로서 봉사합니다.

신앙 안에서, 치유의 말씀을 사용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고 치유 받는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가 필요한 신체부위를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되어라!”하고 명령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서른여덟 해 동안 아파서 누워있던 남자에게 담요를 걷고 걸어가도록 명하셨을 때, 정확하게 이를 말씀하셨습니다.(요한 5,1-9) 베드로 사도는 모태에서부터 불구로 태어난 이에게 자신은 은도, 금도 없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사도 3,6)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대로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은 우리를 영적으로 드높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삶 안에서 하느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에페 3,17-19) 자신을 향해 축복(치유)의 말씀을 소리 높여 외치십시오. 말씀이 진실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예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조물들은 경이로울 뿐. 제 영혼이 이를 잘 압니다.”(시편 139,4)
-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1요한 4,9)
- “주님,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루카 10,21-22 참조)
-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2코린 5,17 참조)
-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1요한 3,1)
- “저는 치유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로마 8,1 참조)
- “저는 치유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의 악행들을 용서하신 것 뿐 아니라, 저의 죄 또한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이사 43,25 참조)
- “저는 치유 받았습니다. 제가 죄 없고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해주셨기 때문입니다.”(로마 5,8 참조)
- “저는 치유 받았습니다. 어떤 피조물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저를 떼어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로마 8,38-39 참조)
- “저는 치유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께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루카 9,1 참조)
- “저는 치유 받았습니다. 제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요한 14,12 참조).
- “저는 치유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이고 하느님께서 세워 주신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갈라 4,7 참조)

이와 같은 기도 안에서 우리는 치유를 청해야 합니다. 마음과 영혼과 몸을 열고 치유를 받으십시오.

“자신을 향해 축복(치유)의 말씀을 소리 높여 외치십시오. 말씀이 진실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예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적 치유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치유를 과거 기억으로 들어오시려는 하느님의 변화시키기는 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같은 분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과거로 가시어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현재 상황에 영원토록 영향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내면의 치유는 용서 이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했을지라도, 그 상처의 기억을 떠올릴 때면 여전히 큰 아픔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이에게 주었던 크나큰 아픔의 기억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내면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성령의 은총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고,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자발적일 수도 있고, 이미 준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고 안심이 되며 하느님의 현존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가능한 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앉거나 무릎을 꿇거나 서거나) 성호경을 그으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느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통해서만 어떤 것이라도 진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반기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나서 청원으로 나아가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명확한 기도로 하느님께 치유를 청하십시오.

구체적인 기도는 우리가 청하고 있는 것을 상상 속에서 보여줌으로써 신앙을 더욱 생동감 있게 해줍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기도에 응답해주심을 믿는다면(요한 5,14-15), 자연스럽게 하느님께 감사드리고자 하는 진심어린 열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라도 바오로 사도처럼 걱정하지 말고 하느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기도와 청원과 감사와 함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느님께 청하십시오.(필리 4,6)

“성호경을 그으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느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통해서만 어떤 것이라도 진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유의 기도들

- 거룩한 미사
- 성체조배
- 묵주기도
- 십자가의 길
- 해방을 위한 묵주기도
- 찬양을 위한 묵주기도
- 낙태아를 위한 묵주기도

- 거룩하신 자비를 묵상하며 바치는 묵주기도
- 거룩한 영혼들을 묵상하며 바치는 묵주기도
- 주님의 다섯 상처(오상)를 묵상하며 바치는 묵주기도
- 성모님의 일곱 가지 슬픔(칠고)을 묵상하며 바치는 묵주기도
- 성모님의 눈물을 묵상하며 바치는 묵주기도
- 거룩하신 삼위일체 기도
- 보호를 청하는 기도
- 아빠 하느님 호칭기도
- 지극히 존귀하신 성혈 호칭기도
-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호칭기도
- 성령 호칭기도
- 겸손의 호칭기도
- 성체께 바치는 호칭기도
- 찬미의 호칭기도

주의: 여기에 소개된 기도들은 모두 나이로비에 있는 빈센티안 기도의 집에서 출간한 기도책, “그리스도께서 전부 이십니다”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주는 더 많은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기도를 성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선 안 됩니다. 묵상하듯이 천천히, 그리고 내면화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조상,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 전 세계와 창조된 모든 것에 치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하는 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신, 영혼, 몸의 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체험하는 길은 말씀을 소리 내어 말하고,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삶을 향해 외칠 때, 말씀의 힘이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을 지니고 유익하게 사용하십시오.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하느님의 말씀에 더 큰 믿음을 두십시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향해 하느님의 말씀을 외치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확신하십시오.(필리 1.6)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치유를 주시는 하느님을 향한 신뢰를 더해주는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들을 종이에 적어서 언제 어디서든 읽을 수 있도록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치유의 성경구절들

탈출 15,26. 탈출 23,25-26. 신명 7,15. 시편 91,9-10. 시편 103,1-5. 시편 107,19-20. 잠언 4,20-23. 이사 41,10. 이사 53,4-5. 이사 55,9-11. 이사 58,6-11. 예레 30,17. 말라 3,6. 말라 3,20-21. 마태 7,7-11. 마태 8,16-17. 마태 9,35. 마태 15,30-31. 마르 11,22-24. 마르

16,17-18. 루카 4,17-19. 루카 9,1-2. 루카 10,8-9. 루카 13,16. 사도 4,29-30. 사도 5,15-16. 사도 10,38. 갈라 3,13. 야고 5,13-16. 1요한 5,14-15. 3요한 2.

영적 지도자가 있다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계되는 성경구절을 물어보고 그 성경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말씀들을 통해 고해성사를 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얼마나 더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바라보십시오.

내적 치유는 다음에 나오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해방을 얻는 능력과 함께 일어납니다:

1. 잘못된 믿음과 관계들로부터의 해방

바오로 사도는 좋은 관습을 망치는 나쁜 교제로 인해 길을 잃지 말라고 가르칩니다(1코린 15,33).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덧붙여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콜로 2,6-8).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에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을 꾸준히 선포하라고 지시합니다. 또한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라고 지시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호기심에 가득 차서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이며,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때가 올 것임을 경고합니다(2티모 4,1-4).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몇몇 관습들을 볼 때면, 바오로 사도의 경고가 물질주의라는 이름과 함께 이미 현실이 되어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녀의 출산이라는 책임을 배제한 채 성생활을 즐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작고 나약하고 무죄한 태아를 살해합니다. 내면의 치유는 이러한 잘못된 신념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2. 죄와 나약함으로부터의 해방

이사야 예언자가 설명하듯이, 상처 입은 젊은이들은 피곤하여 지치고 비틀거리지만,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갑니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이사 40,30-31 참조). 내면의 치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합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주님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을 잊지 말라고 노래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시며, 우리 목숨을 구령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로 관을 씌워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정녕 주님께서는 우리 한평생을 복으로 채워 주시어 우리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게 하십니다.(시편 103,1-5 참조)

3. 거부, 버림받음의 감정으로부터의 해방

구원과 회복의 약속은 내면의 치유와 함께 성취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

다. 네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네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나는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몸값으로 내놓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 대신 내놓는다. 네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놓고 네 생명 대신 민족들을 내놓는다.’(이사 43,1-4)” 애가의 저자가 말하듯이, 내면의 상처는 빛을 잃어버린 황금, 변해버린 순금과 같습니다. 금으로만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삶의 소중한 것들이 옹기장이 손으로 빚어낸 질그릇처럼 여겨집니다. 애가의 저자는 상처 입은 사람의 매정함을 어린 것들을 버리는 사막의 타조에 비유합니다.(애가 4,1-4)

“금으로만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삶의 소중한 것들이 옹기장이 손으로 빚어낸
질그릇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산들이 밀려나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하여도 당신 자애는 우리에게서 밀려나지 않고 당신 평화의 계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 54,10) 우리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히브 13,6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어주셨습니다.(예레 31,3)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귀하고 귀여운 자녀로 여기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순간조차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가여워하십니다.(예레 31,20)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움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압박에서 풀려나리니 두려워할 일이 없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공포에서 풀려나 그것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못할 것이라 약속 하셨습니다.(이사 54,14-17 참조)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우리 하느님이시니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힘을 북돋우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격분하는 자들이 모두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도록, 당신의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다투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이사 41,10-13 참조). 우리는 어느 때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를 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시편 27,10)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없고,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없듯이, 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손바닥에 새기셨고 우리의 성벽은 늘 하느님 앞에 서 있습니다.(이사 49,15-16 참조)

4. 타인의 인정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해방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 또는 인정을 받으려는 생각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얻으려 할 수도 있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 모두의 인정을 받는 것 또한 보통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한계로 인해 누군가를 충분히 사랑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이유들을 들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영원히 깔아뭉갤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온갖 편견들로 인해서 말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초점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또한 틀림없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는지 궁금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들이 나에 대한 관심을 내일도, 일 년 후에도 보여줄지 걱정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했듯, 우리가 사람들의 지지를 얻거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갈라 1,10;이사 2,22).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 의로움을 좋아하는 이들은 환호하고 즐거워하며 언제나 “당신 종의 평화를 좋아하시는 주님께서는 위대하시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말입니다(시편 35,27). 우리는 반드시 누구보다 위대하시며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누구도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도록 하신 하느님을 신뢰해야 합니다(요한 10,29-30 참조). 따라서, 가시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전갈 때 가운데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련의 때에라도, 사람이나 사람이 하는 말, 또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떨어서는 안 됩니다(예제 2,6-8 참조).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5.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해방

슬프게도, 현대사회는 어린 시절부터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원하도록 우리를 길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더욱 매력적이고 행복하게 보이며 존중 받도록 해준다고 소문이 난 상품들을 사도록 교묘하게 조종당합니다. 어른들은 멋진 커플이 멋진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저 차를 살 수만 있다면, 난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거야.’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도, TV에서 다른 아이들이 최신형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그 장난감을 가지고 싶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는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주입된 이미지를 충족하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성취감도 만족감도 없는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이들이 빚을 지게 되고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게 될 때입니다.

이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을 부적절한 이로 여기는 악순환이 되어 버립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구매합니다. 이들은 빚을 지게 되고 하느님께서 신뢰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을 늘어가는 빚을 갚기 위해서 일하는 데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이들에게 있어서 소비는 행복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만장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실제로 정신 질환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이 욕망이 영적인 속박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갖가지 욕망에 떨어진다고 전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설명합니다(1티모 6,9-10). 토빚은 토비야에게 가난하게 되었다고 해서 두려운 생각을 품지 말고, 하느님을 경외하면 큰 재산을 얻을 수 있기에 모든 죄악을 피하며 주 너의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라고 가르칩니다(토빚 4,21). 집회서는 우리에게 죄인의 사업에 탄복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우

리 자신의 일에 전념하며 주님의 빛을 기다리라고 경고합니다. 집회서의 저자는 가난한 이를 순식간에 부자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눈에는 쉬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집회 11,21). 주 예수 님께서 강조하신 충고에 귀를 귀울입시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요한 14,1

내적 치유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돌아서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위한 최고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약말로 내면의 치유에 있어서 핵심이십니다. 상처를 받으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 이십니다(히브 4,15-16 참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옛 인간의 죽음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 안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그 시작으로 합니다(로마 6,4). 이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죽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특징 지워집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요한 15,5). 이 부르심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리시고 우리를 치유해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향해야 하는 진리:

- 하느님의 주권
-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중재
- 성령의 약속
- 영원한 영광에 대한 희망

우리의 모든 사고를 집중시키고 우리 마음에 준비를 함으로써 이 위대한 진리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에서 오는 모든 시련들을 진리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하고 활기 넘치게 해줄 것입니다. 영적인 패배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감정에 따라 사고 할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감정들을 통해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을 폐쇄하려 한다면, 우리는 빠르게 폭발 직전의 화산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 하느님께서는 감정적인 고통이 삶의 한 부분임을 알고 계십니다. 진실된 내면의 치유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하느님께 이 감정들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찾는 답을 주실 당신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질문이든, 그저 부정적인 감정이든 간에 상관없이, 정답은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목소리이며, 하느님의 목소리는 창조하시고 치유하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은 우리에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가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 내시어, 하느님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신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 보아야만 합니다.(히브 12,1-2)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과 육신과 영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면의 상처들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부숴진 관계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고, “당신의 눈에 사과”로 여기시는 이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길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관계를 가지길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되돌리고 영혼, 육신, 정신의 총체적인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고귀한 피입니다. 그러므로 내적 치유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돌아서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 치유해주시는 목적은?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궁금해 하던 구원의 신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였습니다.”(1베드 1,9-10) 영혼의 구원은 한 인간의 정신, 의지, 감정의 총체적인 회복과 치유, 곧 참된 행복을 의미합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우리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3 요한 1,2) 이는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 평안하다면 삶의 다른 모든 부분들 또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평안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한다고 바로 사도가 가르쳤듯이(에페 3,20 참조),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부터 축복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영혼의 구원은 한 인간의 정신, 의지, 감정의 총체적인 회복과 치유,
곧 참된 행복을 의미합니다.”

저는 에이즈 환자입니다

친구에게 이끌려 온 이 여인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에이즈 환자입니다. 저는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매일같이 아프고 살이 빠집니다. 혹시 제 두딸을 돌보아줄만한 곳을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여인에게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주님이며 모든 인간의 하느님이다. 무엇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냐?”(예레 32,27). 저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치유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는 신부님께 제 딸들을 돌볼 곳을 여쭈었는데요? 저는 싱글맘이고 제 딸들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본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유를 물었고 여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바람을 피웠고 가장 친한 친구에 의해 이 병에 감염되었어요. 친구는 떠나버렸습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복수심에 9명의 남자를 에이즈에 감염시켰어요. 제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알고도 행한 죄 또한 용서해주시십니다. 탕자의 비유

에 나오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한 여인 또한 사람들에 의해 돌을 맞을 위기에 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호해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알면서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히브 13,8).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시편저자가 말한 것처럼 ‘주님, 저의 죄가 크니 당신 이름 생각하시어 용서하소서.’(시편 25,11)라고 기도 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예레 33,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바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너의 악행들을 씻어 주는 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이사 43,25). 기도와 진심어린 고해성사를 통해서, 선하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용서는 내적 치유를 일으킵니다

영혼의 치유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다양한 접근 중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바로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죄나 공격을 참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 된 용서는 거룩한 말씀의 길 위에서 하느님께 동의하는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동의는 우리를 해방과 치유의 길로 인도합니다. 용서가 다면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지은 죄를 인지하고 있는 한, 일상의 순간들에서 일어나는 잘못들을 하느님께서 언제나 용서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느님께서는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가르칩니다(1요한 1,9).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입으로 우리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를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분노, 쓰라림, 복수의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마태 6,14-15;18,21-35 참조). 용서는 영적인 상처들을 치유하고 하느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화와 사랑을 가져다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를 용서하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이를 축복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이에게 선을 행하며,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억압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 5,44).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범한 이전의 잘못들이 떠오를 때면 벽찬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죄의식으로 인해 생기는 감정들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놀라우심에 대한 생각들로 채우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필리 4,8) 자신의 죄를 기억함으로써 하느님께서 베푸신 용서가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 떠올린다면,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마태 7,1-5;1티모 1,15)

삶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삶 속에서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상처들을 간직하는 한 우

리는 계속해서 아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총상을 당하거나 개에게 물렸다면, 그 즉시 도움을 구하고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이 다쳤을 때 우리는 반드시 도움을 구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상처에 대해 도움도 치료도 받지 못한다면, 영적, 감정적, 그리고 심지어 육체적인 건강에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각자 짚어지고 있는 짐들을 가볍게 할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한을 간직한 채 그 짐들을 계속해서 짚어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적 상처들이 커질수록 촉진되는 의학적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장질환, 암, 소화계통 문제, 고혈압, 신경쇠약 등이 포함됩니다. 여러 연구들은 인간의 감정과 면역체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삶에서 악하고 해로운 경험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감염이나 질병과 싸우는 몸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상처들을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의 일부분으로 여긴다면, 영적인 생활도 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으려는 경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있거나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말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관계들이 과거에 있었던 상처의 기억으로 흐려지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그리스도를 차단하게 됩니다. 만일 회복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하고자 한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용서하는 순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용서, 화해, 그리고 회복! 성사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의 참된 현존이 우리 안으로 들어 오십니다. 다음에 들려드리는 이야기에서 혼인 성사의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혼인성사의 중요성

많은 문제들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빈센티안 기도의 집으로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또한 6년의 결혼생활에도 자녀가 한 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자궁에는 섬유종이 있었고 의사들은 수술을 권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채 여인은 기도 모임에 참석했고, 피정에도 참여했으며,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서 자신의 문제들을 중재해주시어 자신의 병이 나아 자녀를 더 가지고 남편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원했습니다.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기도를 하던 중, 저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포박을 당하신 모습으로 여인의 곁에 서 계시는 환시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여인에게 환시와 함께 여인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시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여인이 성당에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예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제7일 안식교 신자임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여인에게 진짜 문제가 여인의 병이나 남편의 무직이 아니라 여인이 불경한 삶을 통해 예수님을 차단하는데 있음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온화하신 하느님이십니다(묵시 3,20). 하지만 예수님께서 온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집 앞에 서서 몇 시간이고 문을 두드리도록 내버려둘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읽듯 혼인하지 않은 모든 커플들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는 문의를 받아 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는 만나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겨레에게 나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나는 반항하는 백성에게 날마다 팔을 벌리고 있었다”(이사 65,1-2). 예수님같이 온화하고 인내하는 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당에서 혼인을 할 때, 시편 저자가 외치는 노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시편 1,3). 시편은 노래합니다. “제 눈은 적들을 내려다보고 제 귀는 저를 대적하던 악한들의 소식을 즐거이 듣습니다.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돋아나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돋아나리라. 늙어서도 열매 맺으며 수액이 많고 싱싱하리니.”(시편 92,12-15). 우리가 성당에서 혼인을 할 때에라야 예수 님께서 우리 삶 안에 자리 잡으시고 표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 이사야서 45,2-3의 말씀과 “메모라레(생각하소서, 성모여)”기도를 매일 9번씩 바치며,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기도의 집에 초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여인의 남편은 피정에 참여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여인의 남편은 곧장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았으며, 혼인성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표징들이 하나 둘씩 뒤따랐습니다. 여인의 남편은 평생직장을 얻었고, 여인은 병이 나아서 바키타라는 이름의 새 자녀를 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서지 않은 채로 아이, 직업, 치유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이들은 다음의 말씀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 주지 않으시면 그 지키는 이의 파수가 헛되리라”(시편 127,1). 성사를 받는다는 것, 특히 혼인성사는 삶의 축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내적 치유를 받기 위한 지침들

1. 자신이 상처받았음을 인정하라.

상처들은 우리가 집어 들고, 마주하며, 안고가야 할 십자가들입니다. 만일 상처입은 감정들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이 감정들에게 우리 자신과 우리 행동들을 조종하는 권한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매일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뒤를 따르라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처를 부여잡고 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불쌍한 나”로 바라보는 거짓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서지니깐 건드리지마!”라고 경고하는 방패를 착용합니다. 상처를 다시 사랑하게 됨으로써 오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상처를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불잡고 있던 분노와 쓰라림을 떠나보냄으로써 자신이 빈껍데기로 남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살아가기 위한 변명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가 생명을 주고 삶을 지탱해주는 것으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상처를 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당신께서 사랑하셨던 이들이 당신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당신께서 신뢰하셨던 이들이 당신을 배반했을 때, 그리고 당신께서 홀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지탱해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불쌍한 나”로 바라보는 거짓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서지니깐 건드리지마!”라고 경고하는 방패를 착용합니다. 상처를 다시 사랑하게 됨으로써 오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깨달음의 빛으로 상처의 어두움을 밝힐 때, 우리는 상처들을 놓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님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마태 10,29-31).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아주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북돋워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감싸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당신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신명 32,10 참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태우시어 당신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탈출 19,4 참조).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깨달음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 아름다움과 다양한 사건을 통해, 그리고 이웃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내면의 치유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떠야만 합니다.

3. 고통 받고 있는 것들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주님의 수난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아픔, 고통, 그리고 죽음이 부활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모욕과 비웃음을 당하셨으며 이 모든 것을 침묵으로 견디어 내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 사제 앞에서 똑바로 대답하라며 당신의 뺨을 때렸던 성전 경비병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불의함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 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요한 18,23).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감정적인 상처 때문에 그저 수동적으로 희생자의 역을 맡거나 우울해져 스스로에게 상처 입혀서는 안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이사 30,20-21 참조).

4.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라.

우리가 받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은 바로 상처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상처의 아픔을 겪은 사람은 상처받음을 통해 치유하는 힘을 가지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아갑니다. 그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보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안정을 얻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에 온전히 들어맞는 유일한 분이 바로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고해성사 안에서 우리는 상처 입은 감정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우리가 용서와 해방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사제에게 행하는 고해성사 안에서 우리는 지난 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 참회와 함께 치유를 가져다주는 화해에 대한 열망을 표현합니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물리적으로 화해를 이루기 불가능한 이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상처 입힌 이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는, 용서라는 하느님의 사랑 가득한 은총을 체험합니다. 이 체험을 통해 우리는 가해자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이해심을 얻습니다. 이러한 이해심이 우리를 감옥살이하게 만드는 상처들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고해소로 가서 우리의 상처에 대해 고백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치유해주실 통

로를 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내면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영적지도 신부님을 두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5.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로 돌아서라.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치유자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여정 안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치유해주셨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 받던 이들은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손길, 말씀, 눈길, 기도를 구하며 그분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마르 10,51)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마태 8,3)하시는 주님의 대답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주실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청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어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방법은, 먼저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 저의 상처, 복수의 감정, 아픔, 이 고통을 홀로 짊어 지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공감과 연민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상처의 이야기를 듣고 저와 함께 그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의 경험으로 제 옆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돌아갑니다. 저는 주님의 현존 안에서 그때의 공포, 충격, 혼란, 고통을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주님께 제가 아픈 말들, 옥죄어오는 가슴, 흐릿하게 내비치는 상처를 다시 경험하는 동안 제 곁에 계셔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는 그 고뇌의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멈추어 서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학대와 고통에 대한 주님의 응답에 관해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제 영혼의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최고의 치유자이심을 알고 또 믿어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에 열어놓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에 앞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의 눈에 값진 보물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는 너무도 사랑하시어 우리가 치유되길 바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이사 43,1-4 참조).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에서 우리는 고해성사의 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제를 믿지 않습니다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지 않고서는 이곳 피정센터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20년 동안이나 고통 받아 왔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학비나 빚, 병원비도 낼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분께서는 저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까?” 저는 이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해를 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남성은 말했습니다. “저는 사제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사제를 믿지 않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남성은 “사제들은 하느님이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다. “물론 사제들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그저 하느님의 종일뿐이지요.” 남성은 자신의 경험을 내어놓았습니다. “신부님, 예전에 저는 한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려 갔었습니다. 그 신부님은 고해소에서 나와 저를 바라보며 자신이 너무 바쁘니 고해를 짧게 빨리 끝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상처받아서 고해도 하지 않고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고해소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고해소에 있어야 하는 사제가 어떻게 밖으로 나와서 참회자를 모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성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야지요!” 저는 이 남성에게 설명했습니다. “미사 중에도 사제들은 신자들에게 자신들의 제사가 하느님께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주기를 청합니다.” 저는 남성에게 그 사제를 대신해 용서를 구했고 그 사제를 용서하고 고해소에 갈 때마다 고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남성에게 진실되게 고해성사를 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해성사를 보자마자 남성은 이제 막 새 회사를 시작한 자신의 전 동료로부터 회사의 매니저가 되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남성이 주님께 마음을 열자마자 주님께서도 이 남성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 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이사 22,22).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비가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실제로 고해성사야말로 하느님의 자비가 온전히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고해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이사 30,18).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약함을 받아들이는 바오로에게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2코린 12,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넉넉히 받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6. 인내하고 끈기를 가져라.

우리는 인내하고 끈기를 가졌기에 치유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마귀 들려 고통 받는 딸을 위해 주님께 치유를 청했던 가나안 부인을 떠올려보십시오(마태 15,21-28). 인내를 가지고 치유를 기다린 벗사이다의 눈먼 이(마르 8,22-26)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같은 질문에 세 번이나 답해야 했던 베드로의 인내도 있습니다(요한 21,15-17).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치유에 대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청하시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이 왔다면, 볼 수 있게 되기 전에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야 했던 태생소경의 이야기를 묵상하십시오(요한 9,7).

7.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라.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원수의 머리에 솟불을 놓아둔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잠언 25,22)을 알고 있습니까? 깊이 자리 잡은 감정이나 원한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은 감정보다는 결단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이겨내는 결단을 내릴 수 있고, 시간이 지나 우리의 감정이 정리될 것이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실제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를 치유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산상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의 빛 안에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로마 12,21).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느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

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시기에(마태 5,45), 우리 또한 하느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우리 존재의 가장 중심부로 도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치유의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 됨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축복의 기도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모든 상처, 근심걱정, 불안, 두려움, 기쁨, 여러 계획들,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하느님과 친교의 일치로 들어가게 되고 하느님의 치유하시는 현존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체 성사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안에서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이유입니다.

8. 고통 안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흡송을 드리라.

내적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아픔, 고통, 비참함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흡송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집회서는 말합니다. “너에게 닥친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처지가 바뀌어 비천해지더라도 참고 견뎌라.”(집회 2,4)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상처에도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지난 세대를 살펴보아라. 누가 주님을 믿고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 누가 그분을 경외하면서 지내다가 버림받은 적이 있느냐? 누가 주님께 부르짖는데 소홀히 하신 적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재난의 때에 구해 주신다.”(집회 2,10-11) 우리는 시련의 때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해야 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고통을 느끼시며, 적절한 때에 우리를 완전히 치유해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위엄을 드리고 그분을 찬미하며 그분께 감사하여라. 입술에 노래를 담고 수금을 타며 감사드릴 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위업은 너무나 훌륭하고 그분의 모든 분부는 제때에 이루어지리라.’ 아무도 ‘이게 무어냐? 어찌된 일이냐?’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제때에 풀리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으로 물이 모여들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그 물이 저수지가 된다”(집회 39,15-17). 고통 안에서도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표징을 얻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빵과 물에 강복하고, 너희에게서 질병을 없애 주겠다. 너희 땅에는 유산하는 여인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도 없을 것이며, 나는 너희의 수명을 채워 주겠다.”(탈출 23,25)

자신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완전한 치유는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우리를 상처입힌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치유의 정도를 측정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1코린 13,4-7)

치유를 받은 사람은 조급하거나 불친절하지 않고, 무례하거나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상처입은 경험에 감사함을 보일 때, 우리는 우리가 치유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는 성숙해짐에

대한 감사이며,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커졌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비극적인 사건에 이어 생긴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상처를 분노와 아픔의 감정이 아니라 평화와 기쁨이 포함된 감사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치유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듯 우리 또한 가해자를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닌 성숙의 순간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하다보면,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상처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시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로마 8,28 참조).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실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주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의 듣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묵상해보도록 합시다.

내면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아이였을 때에 나는 그를 사랑하여 나의 그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나 내가 부를수록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들은 바알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우상들에게 향을 피워 올렸다. 내가 에프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고 내 팔로 안아 주었지만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병을 고쳐 준 줄을 알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어당겼으며 젖먹이처럼 들어 올려 볼을 비비고 몸을 굽혀 먹여 주었다”(호세 11,1-4).

한 여인이 개인적으로 내면의 치유를 청하며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예민했고 너무 감정적이어서 누군가로부터 아주 작은 조언 하나라도 듣게 되면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이 여인은 쉰 살이 넘었음에도 어린 소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여인은 치유를 위해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선하신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환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인은 환시에서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버림받은 작은 여자아기를 보았습니다. 이 작은 아기는 악취가 나는 진흙구덩이에서 뒹굴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기가 깨끗이 씻기어지지 않는 한은 누구도 아기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여인은 눈부시게 새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아기에게 다가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옷이 더러워지니 자신이 아기를 씻어주기 전에는 아기에 다가가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저 없이 다가가시어 그 작은 아기를 들어 올리시고는 당신의 새하얀 옷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여인은 심한 모욕감과 함께 아기를 품에 안으신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후로 여인은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인아, 이 작은 아기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너란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원한단다. 네가 깨끗하지 않고 더러울지라도 나는 내 품에 너를 안아 내 심장 가까이에서 보호해줄 준비가 되어 있단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성경을 펼친 여인은 다음의 성경구절을 찾았습니다.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의 혈통과 태생으로 말하자면, 너는 가나안 땅 출신이다.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남자고 너의 어머니는 히타이트 여자다. 네가 태어난 일을 말하자면, 네가 나던 날, 아무도 네 팻줄을 잘라 주지 않고, 물로 네 몸을 깨끗이 씻어 주지 않았으며, 아무도 네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고 포대기로 싸 주지 않았다. 너를 애처롭게 보아서, 동정심으로 이런 일을 하나라도 해 주는 이가 없었다. 오히려 네가 나던 날, 너를 싫어하여 들판에 던져 버렸다. 그때에 내가 네 곁을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로 벼둥거리는 너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피투성이로 누워 있는 너에게 ‘살아남아라!’ 하고 말하였다.”(에제 16,3-6) 여인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8장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이사 53,5)

이사야 예언자는 아주 분명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는 분에 대해 예언합니다(이사 53 참조).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듣지만, 이 말씀에 숨겨진 거룩한 힘을 식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자전거 이야기

제가 어린 시절, 제 아버지는 오랫동안 조금씩 돈을 모아서 자전거를 샀습니다. 아버지가 결코 제가 당신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자전거를 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을 알기에, 저는 아버지 몰래 자전거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몰래 자전거를 끌고 나가서 연습을 하던 어느 날, 저는 저도 모르게 자전거를 끌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자전거를 멈추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혼란에 빠진 저는 자전거를 제어하지 못했고 콘크리트 파이프에 부딪치는 끔찍한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시어, 저는 콘크리트 파이프 옆 공사장에 쌓여있던 모래 위로 떨어졌습니다. 자전거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아무 상처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선 저는 완전히 망가진 자전거를 보고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었고, 차라리 자전거 대신 제가 크게 다치는 게 더 나았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전거가 아버지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던 저는 흐느껴 울면서 자전거 대신 저를 보호하신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하던 저는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자전거 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보다 자전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라 믿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자전거를 깨끗하게 씻는 것만 허락하셨지 한 번도 타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을 상상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커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전거는 수리를 할 수도 없을 만큼 망가져버렸고 저는 아버지께 새 자전거를 사드릴 돈도 없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다는 생각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저는 자전거를 조금이라도 고쳐보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저는 자전거를 옆에 낀 채 아주 천천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를 본 옆집 아저씨가 제 아버지에게 이를 알렸고, 저는 저를 향해 달려오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을 꼭 감은 채 울면서 아버지께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하시라고, 자전거가 부서진 만큼 때리시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앞에 다가오신 아버지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무사한거니? 걱정하지 말고, 너를 보호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자꾸나. 난 네가 큰일을 당하지 않았나 하고 걱정했단다. 자전거는 신경 쓰지 말거라. 하느님께서 또 다시 마련해 주실 거란다. 그러니 이미 부서진 건 잊어버려라.” 그제야 저는 안정을 되찾았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진실 된 사랑을 느꼈고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자전거보다 저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크나큰 죄를 눈물로써 참회하고 난 후 받은 자비와 용서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오히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그분의 자애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에 굳세다. 해 뜨는 데가 해 지는 데서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에게서 멀리하신다.”(시편 103,11-1 2) 이는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느님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뵙 것이다”(요한 14,9).

탕자의 비유는 하느님께서 실수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텡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유산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자신이 늙어 죽음이 가까워왔을 때 자식들에게 축복과 함께 유산을 물려줍니다(창세 49,1-29 참조). 하지만 텡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둘째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는 화를 내는 게 마땅하지만 사랑으로 아들에게 유산을 내어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둘째 아들은 면 고장으로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탕진해버리고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주워 먹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줄지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종이 될 마음까지 먹습니다. 놀라운 일이 둘째아들에게 일어납니다. 멀리서부터 자신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그에게 다가와 입을 맞추고 안아줍니다. 그 어떤 비난도 질책도 없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가장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가져오라고 명하고는,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루카 15,24)라고 말하며 큰 잔치를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어떤 조건도 흠도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양심을 품

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1코린 13,5-7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설 때라야 우리는 사랑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 돌아서도록 합시다. 그분께서는 자주 당신의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으시고, 벌하시며 복수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오직 사랑하는 법만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벌하고자 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부모보다도 더 위대하십니다. 저는 조건 없이 저를 용서해준 아버지에게 결코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느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오해했었고 이후에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극진히 돌보아주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로마 4,7-8) 주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2코린 5,21) 사탄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신다고 믿도록 유혹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은 우리가 다른 피조물보다 못하다고 믿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참으로 소중한 존재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옹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 손 안에 있는 진흙입니다.(창세 1,26)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자유를 얻을 것이라 현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살인, 낙태, 고소, 이혼 등이 만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서 하느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아버지의 무조건적이고 자비로우신 사랑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십니다(요한 6,44 참조).

하늘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사도 4,12). 또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마지막 날에 등장할 그리스도의 적에 대해 썼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가르침을 거부한 이들입니다.(1요한 2,18-19 참조) 이들은 또한 주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셨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기꾼들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에 대한 개념과는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위엄과 큰 힘을 갖추고 오실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성장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으로부터 보고자 했던 그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전 생애는 겸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셨으며 우리가 받아야 할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육으로 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주 예수님 안에서 흥미를 불러일으킬만한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사람들

에게 모욕당하시고 당신의 가르침과 권위를 거부당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중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물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죄와 사탄에게 불잡힌 인류를 구원하고 하느님과 화해를 이루도록 하는 단 하나의 사명만을 위해 살아가는 부드럽고 온화하며 겸손한 이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고통 받기 위해 세상에 들어오신 참으로 복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하늘에 벗어두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순결의 성인 아녜스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은총과 정결의 보석으로 제 영혼을 아름답게 장식해주셨습니다. 저는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신 주님께 속합니다.” 많은 이가 정결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정의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도,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과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콜로 3,11)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바오로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무너뜨리려 할 때에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참된 아버지십니다. 요한 사도는 이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1요한 3,1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윗 왕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다음과 같이 노래 불렀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제가 앓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시편 139, 1-3

마태오복음서가 말하듯,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낮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만일 당신이 지금 길을 찾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분께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 그레고리오 교황님도 정결이라는 참된 부유함을 얻으라고 촉구합니다. 부유함과 사랑받기 원한다면 참된 부유함을 추구하십시오. 참된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하느님 왕국에 들어가고자 애쓰십시오. 진실로 명성을 얻고자 한다면, 천사들이 호위하는 천상대전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우리 모두 일상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돌아서도록 합시다. 그럼으로써 모든 잘못을 없애시고 모든 불안과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시는 하느님의 선(善)이라는 바다에 우리 자신을 던지도록 합시다!

당신의 선하심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신뢰 할 사람들을 알고 계시며, 그들이 당신을 신뢰할 시간에 앞서 그들을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열성적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요한 6,44)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 수 있으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한 희생제물로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요한 6,38-39) 예수님께서는 위엄과 권능과 천상영광을 포기하시고 배척받고 모욕당하시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 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
셨습니다. 이렇게 어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
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
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
니다.

-필리 2,6-11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요한 12,49-50)

하느님의 아들, 예수닪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봉헌되기 위해 아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아빠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서 봉헌되실 당신의 외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이는 전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선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요한 3,16)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가브리엘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참 아드님이라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
월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루카 1,32-33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로 주님께 내려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루카 3,22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순간에도 이를 드러내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마태 11,27).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께서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청하는 필립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대답을 묵상하십시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
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요한 14,9-10

이렇듯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께서 드러내신 당신의 영원하신 아드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나셨습니다. 반대로, 아버지 하느님에 의해 드러나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진리의 빛 안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라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요한 14,1)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을 믿는 청중들을 초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하느님 아버지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업적과 말씀으로 인해 하느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업적과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거룩한 변모 사건 안에서, 구름으로부터 들려온 목소리는 이를 확증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마태 17,5). 라자로가 죽었을 때, 마르타 또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요한 11,27)

육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다

“육화”란 “사람이 되는 행위”(요한 1,14 참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사탄으로 인해 하느님께 받은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아지심을 필요로 하는 구원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이시는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느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만 빼고는 모든 면에서 인간과 같아지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잠(루카 8,23), 음식(마태 4,2;21,8), 물리적인 보호(마태 2,13-15;요한 10,39) 등의 인간적인 요구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요한 15,11), 슬픔(마태 26,37), 분노(마르 3,5)와 같은 감정들도 표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땀을 흘리셨고(루카 22,43-44), 피를 흘리셨습니다(요한 19,34).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인간이라 말씀하셨고(요한 8,40), 부활하신 후에도 인성을 지니고 계셨습니다.(사도 2,22)

하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바로 인류 구원입니다. 바오로 사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야 했습니다.(갈라 4,4)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율법을 완성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놓인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마태 5,17;갈라 4,5) 죄의 용서를 위한 피 흘림은 그분께 필요한 일이었습니다.(히브 9,22)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은 그리스도의 육화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계획을 지적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히브 10,5)” 이는 육화 없이는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을 수 없으며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주 하느님께서는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놀라운 업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 우리는 흄 없고 티 없는 어린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구원되었습니다.(1베드 1,19) 우리가 이 진리를 내팽겨친다면, 육화의 목적은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1,20

성경은 과거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업적을 통해, 당신께서 만드신 세상의 외침(시편 19,1-6)과 당신의 규정(시편 19,7-14)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의 저자는 마지막 때에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히브 1,1-3) 요한복음사가도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 주셨다.”(요한 1,17-18) 이렇듯,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요한 14,9)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드러내심은 또한 하느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의해, 곧 인간의 드러남에 의해 특징지어집니다. 요한복음

사가는 이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요한 1,4-5)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요한 1,9-10)

하느님께서 구약의 시대에 계명과 원칙으로 의로움의 기준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기준이 사람 안에서 계시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인간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것이 아닙니다.(에페 4,13 참조) 사도들 또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합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요한 6,38).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2코린 8,9)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필리 2,6-7).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갈라 4,4-5 참조)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의 육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부한다면, 이는 하느님의 거룩한 계시 전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모두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요한 6,45;이사 54,13;예레 31,33-34).

예수님께서는 죄악에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육화의 기본 목적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사가들은 다음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루카 19,10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복음말씀이 더 있습니다.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태 9,13).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려 왔다.”(마르 10,45) 바오로 사도 또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죄인입니다.”(1티모 1,15) 바오로 사도는 한 사람(아담)의 범죄로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당신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이라 설명합니다.(로마 5,17-18 참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

다.(창세 1,26 참조)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원죄 이후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인류와 피조물 전체가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제 잣대로 재었기 때문에, 혼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속박하는 이 저주를 풀고 잃어버렸던 영광을 되돌려주시려고 결정하셨습니다.(로마 8,20-22)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사제들의 나라”를 이루어 당신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탈출 19,6;1베드 2,5-9;묵시 1,6;5,10) 사람은 땅으로 펴져나가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운명 지워졌고, 이를 통해 끝없는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루카 1,33.49-54.68-75)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시며 인간에게 하셨던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현재,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계시고, 심판을 위해 땅으로 돌아가라는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1코린 15,20-28;묵시 5)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된 우리 구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충만히 실현 될 것입니다. 제때에 드러난 증거로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1티모 2,5-6) 우리는 요한 사도로부터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주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1요한 2,1)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제로서의 역할은 우리와 특별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애롭고 이해심이 충분하시며 힘과 용기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히브 2,17-18 참조)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히브 4,14-16 참조)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육화의 신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말 합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도 4,12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다른 이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31절에서 바오로와 실라스는 간수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 간수와 간수의 집안 모두가 구원받을 것이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

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오.”
-사도 16,30-31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통틀어 당신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 선포 합니다: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 10,9-10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놓여 있는 끈을 끊어버립니다. 로마서 6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움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지만, 하느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로마 6,23) 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께로 데려 오시기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무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로마 5,8)

이사야서 65장에는 하느님의 놀라운 약속이 등장합니다: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는 문의를 받아 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는 만나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례에게 나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나는 반항하는 백성에게 날마다 팔을 벌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 멋대로 좋지 않은 길을 걷는 자들....
-이사 65,1-2

하느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심지어 목이 뻣뻣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도 구원되길 원하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약속은 주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요한 사도에게 적으라고 하신 묵시록 22장 17절에도 다시 한번 주어졌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목마른 사람은 오너라.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 받아라.
-묵시 22,17

이 말씀에서 두드러지는 단어는 “원하는 사람”, 그리고 “생명수를 거저 받아라”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이 말씀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시몬이 예언했듯, 모든 인간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루카 2,31-32) 주님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들 모두의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천사 또한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루카 2,10)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이를 구원하려 오셨음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전체가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당신을 받아드리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요한 3,17)

주 예수님께서는 인정과 자비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미워하고 모욕하며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조차도 용서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강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강도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움 그 자체로 다가왔음이 분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루카 23,43)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하셨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서해주시길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3,34)

우리가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사울로부터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충직한 젊은이였던 사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위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법정에 세우고 처형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사울이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순교자 스테파노가 돌을 맞아 죽임을 당했던 현장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사도 8,1) 스테파노가 순교한 후에, 사울은 예루살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예수님을 메시아라 고백하는 이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 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사도 8,3)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 버리려고 하였습니다.”(갈라 1,13)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 다마스쿠스로 이동 중이던 사울은 아주 흥미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의 말에 의하면, 하느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길을 떠나 정오쯤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
서 큰 빛이 번쩍이며 내 둘레를 비추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리
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
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나와 함께 있던 이들은 빛은 보았
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

야 합니까?’ 하고 내가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장차 네가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모든 일에 관하여 거기에 서 누가 너에게 일러 줄 것이다.’ 나는 그 눈부신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 나와 함께 가던 이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사도 22,6-11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총명한 젊은이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아스에게 사울에 대해 좋은 인상을 심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사도 9,15)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주 예수님께서 구하고자 하시면 누구든, 언제이든 구하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바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죄 많고 무너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 가득한 은총으로 이루는 감동적인 회개를 통해 일상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때로 하느님께서 사울과 같이 무죄한 이들의 피를 흘리는 종교적인 급진주의자들조차도 천국에 불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볼 때, 무죄한 이의 피를 흘리는 이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잘못을 고려해볼 때, 자신이 하느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인간의 눈에 사울은 구원의 여지가 없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있어서 사울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하실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에제 18,32)

요셉이야기

요셉이라는 청년이 친구의 조언으로 나이로비에 있는 빈센티안 기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직업도 없었고 학비를 낼 수도 없었으며, 희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정에 참여한 후에, 요셉은 매일 성체조배를 하며 주님을 경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셉은 직업이나 희망 등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스비가 없었기에, 매일 요셉은 한 시간을 걸어서 기도의 집에 왔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 모든 것이 불투명하게 보이는 순간에도, 요셉은 신부님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구하였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리라 믿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성모님을 위한 석굴을 짓고 있었는데, 요셉은 매일 그 석굴을 청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셉은 겸손을 다해 석굴을 청소하면서 성모찬송가를 부르고 성모님께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고 청했습니다. 요셉은 성모님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대학과 직업 등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요셉은 쉬지 않고 기도의 집을 찾아와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석굴을 청소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저를 찾아와서 사람들이 석굴에서 소리치고 노래부르는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다음의 말씀을 통해 요셉에게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33)

어느 날, 한 남성이 기도의 집을 찾아와 기도를 하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던 요셉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요셉에게 망설이지 않고 질문을 했습니다. “대학에 가길 원하고 있소?” 요셉은 이 남자에게 자신에게 있어서 대학에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꿈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자는 요셉에게 무엇을 공부하고 싶으며, 어떤 대학에 들어갈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학비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낯선 사람은 요셉에게 필요한 모든 학비를 내주었습니다. 학업을 마친 요셉은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이력서를 넣었던 회사는 요셉이 대학에서 전공한 부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회사는 요셉이 전공한 학문과 관련되는 부서를 하나 만들었고 요셉을 그 부서의 매니저로 임명했습니다. 일 년 후에 하느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의 파트너를 주시며 축복해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성당에서 혼인식을 올렸고 현재 남편과 아내로서 거룩한 혼인성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요한의 첫째 서간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는지를 설명하는 요한 사도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1요한 2,1-2)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눈이 멀고 죽을 운명이기에 길 잃고 떨고 있는, 실로 불쌍하고 나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느님께서 하고자 하셨다면, 우리는 곧바로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도 없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꾸물거림의 위험도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를 제대로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 때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이사 53,6)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모든 죄인들이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이를 예수님께로 모아들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들려오는 당신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는 이들에게 주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를 청하길 인내로 기다려주십니다. 하느님의 유일한 바람이 바로 그 어떤 고통과 비용을 치르시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길 원하는데도 잘못을 범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 슬퍼하지도 우리의 불쌍한 영혼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은 명청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자신이 하느님 앞에 무가치한 죄인이라고 느끼십니까? 때로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용서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이는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의 영께서 현존하고 계시다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성심성의를 다해 주 예수님께 다가가기를 원한다면,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바람을 불어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오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심과 죄의식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함께 노력하시며 권고와 확신을 주고 계심을 느낀다면, 이 또한 주 하느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우리가 그분께 다가간다면, 결코 거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이사 53,5). 예수님이께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한밤중에 옷으로 가린 채 당신을 찾아온 니코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듯 당신을 믿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기지도록 하기 위해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 3,14-15 참조)

2.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언자들, 특히 이사야 예언자는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별 받은 자, 하느님께 매 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이사 53,4)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비탄과 아픔에 진실로 관여하실 수 있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비탄과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갯세마니에서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깨어 머무르길 바라시면서 죽을 만큼 괴로워하셨습니다. (마태 26,37-38 참조)

3.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처 입으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이사 53,5). 우리는 베드로서에서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 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1베드 2,24).

피정지도를 중국으로?

중국에 있는 한 공동체로부터 피정지도를 부탁받았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중국으로 가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앉아 함께 기도했습니다. 미카엘 파야렐리 신부님이 중국으로의 선교 여행과 관련된 환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환시에서 광활한 사막에 있는 아주 작은 개미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이 환시의 의미를 깨닫고 해석하면서 우리는 잠언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지혜로워져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감독도 지도자도 없이 여름에 양식을 장만하고 수확 철에 먹이를 모아들인다. 너 게으름뱅이야, 언제까지 누워만 있으려느냐? 언제 나 잠에서 깨어나려느냐?”(잠언 6,6-9)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효과는 미미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계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찾지 않고 열심히 일하도록 부름 받은 하느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2티모 4,2-4) 우리는 성공뿐만이 아니라 충실히 있어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특정 선교지역으로 파견하신다면, 우리는 그 나라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 그 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유배 보낸 그곳에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주님에게 기도하여라. 너희의 평화가 그 성읍의 평화에 달려 있다.”(예레 29,7)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해주셨습니다. 때로 하느님께서는 선교사들에게 언어도 문화도 알지 못하는 곳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이러한 곳에서 기울이는 조그마한 노력이 헛날 커다란 수확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원 후 52년 인도 케랄라에서 있었던 토마스 성인의 작은 선교가 현재는 시로-말라바 교회라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1.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

우리는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 예수님께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마태 1,21)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29) 요한은 자신의 서간에게 주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1요한 2,2)

다리를 심하게 떨었던 남자

어린 아이들을 보면 저절로 다리가 떨렸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솜씨 좋은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았다지만 자신의 다리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 남자는 예수님께 의탁하기로 결심하고 피정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이 남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계시해주셨습니다. “제 잘못을 당신께 자백하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제 허물과 잘못을 당신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시편 32,5). 주님께서는 죄를 숨기려할 때면 육신이 나약하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남자에게 규칙적으로 고해성사를 보았는지 물었고, 그는 그렇게 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남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놓았던 이야기를 꺼내어 놓았습니다. 과거에 이 남자는 자신의 아내와 다툼을 하고 있었고 이 부부의 자녀는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밟게 되었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남자는 규칙적으로 고해성사를 보아왔지만 이 죄만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눈물로 참회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죄를 고백하자마자 다리가 치유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우리를 확신시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

아 나약해져 이를 수 없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하셨습니다. 이는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채워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로마 8,1-4).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용서받았고 의로워졌다는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사람으로 변화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심어주시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사도 2,38 참조) 이 약속은 우리들 각자와 우리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사도 22,16 참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로마 10,13)라는 말씀대로,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죄 많은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시도록 주님을 부르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와 자비를 청한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신앙은 함께 간다는 사실과 회개와 신앙 모두 우리를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다음의 성경 말씀의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요한 1,11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하지만 당신께로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언급하십니다(요한 5,39-40 참조). 하지만 주님께로 오는 이는 모두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얻고 조건 없는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요한 6,37

주님과 함께라면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부르짖는 누구라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줍니다.”(1요한 1,7)

정신이 불안정한 소년

이 소년을 처음 만났던 곳은 ‘불라와요’ 공항이었습니다. 정신이 불안정했던 소년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기도를 청하러 우리에게 왔습니다. 부모는 자신들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불안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문제는 부부에게 자녀가 아들 하나뿐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문제는 아들이 정신불안으로 학교에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문제는 어느 의사도 아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소년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저는 성경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불경한 아버지를 비난한다. 그 아버지 탓에 자신들이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다.”(집회 41,7) 지혜서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자손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 그 사생아들은 아무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 바탕이 튼튼할 수가 없다. 잠시 줄기를 뻗는다 하여도 단단히 서 있지 못하여 바람에 흔들리다가 세찬 바람에 뿌리째 뽑히고 만다. 그 가지들은 자라기도 전에 꺾여 나가고 열매는 쓸모가 없다. 익지 않아 먹지 못하고 달리 쓸 데도 없다. 부정한 잠자리에서 생겨난 자식들은 재판 때에 부모가 저지른 죄악의 증인이 된다.”(지혜 4,3-6). 저는 다음의 성경구절도 읽어주었습니다. “간음의 소생들은 크지 못하고 부정한 잠자리에서 생긴 자식들은 망하고 만다.”(지혜 3,16) 성경구절들로 인해 저는 이 소년의 아버지가 지방에 있는 직장에서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를 결코 직장에 데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젊은 여성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실제로 소년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죄들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로마 6,23)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계략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삶에서 전염되는 수많은 불안과 걱정으로 끊임없이 사람의 영혼을 흐리고, 흐려진 영혼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거주지로만 들어 버립니다. 사탄은 어둠과 어둠의 길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발각되면 패배할 것을 알기에, 사탄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활동합니다. 안젤라 메리치 성녀(†1540)은 사탄이 죄로 인해 무너져 내린 사람을 발톱으로 움켜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희롱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사탄과 관련이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요한 사도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사탄의 자녀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탄이 세상 창조 때부터 인간을 죄짓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사탄을 쳐부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드러나셨기 때문입니다(1요한 3,8). 그분께서는 사람을 사탄의 힘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해 골고타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인류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힘을 끝장내버리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자유로운 의지로 누구를 섬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힘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 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기”(콜로 1,13)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와 권력들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콜로 2,10 참조) 인간의 피와 살을 있는 그대로 취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이서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얹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 주시려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셨습니다.(히브 2,14-15 참조) 사탄과 악한 영들은 죽음을 이기셨으며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권한을 잃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권세와 권력들의 무장을 해제하여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고 개선 행진을 하셨습니다.”(콜로 2,15) 따라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에페 2,6). 사탄의 술수들은 성인들에 의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보스코 성인은 ‘부끄러움’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술책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수많은 젊은이들을 (때로는 영원히) 빼앗아가는 사탄을 경멸했습니다. 요한 보스코 성인은 말합니다. “사탄은 죄를 고백하려 하는 사람의 마음을 수치심으로 가득 채워서 사람들을 낚아채는 일상의 함정을 사용합니다. 사탄이 사람들

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등을 떠밀 때면, 그 사람에게서 모든 부끄러움을 제거해버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고해소에 가게 되었을 때, 사탄은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 안에 수치심을 가득 채워버리고 자신들의 고백으로 인해 사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어 영원히 자신을 경멸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탄은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의 벼랑 끝으로 몰아버립니다. 토마스 모어 성인의 입장에서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무례함, 혹은 더 솔직하게 말해서 부도덕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도덕한 책, 음란한 생각, 동료의 욕설이 섞인 대화를 통해 우리를 유혹하려는 사탄을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마스 모어 성인은 앞서 언급된 유혹들이 자신의 동료를 통해서 다가올 때, 그 동료를 사탄의 제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사실 욕설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비열한 사람들은 사탄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폐허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탄의 제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몸이 아픕니다

케냐에서 한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저에게 “저는 2004년에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처음 5년 동안은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사목활동을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두통과 지병이 끊이지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부님은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서 지병을 고쳐보려 했지만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은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를 청하러 찾아왔던 것입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환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운전자도 타지 않은 굴삭기가 이 신부님을 싣고는 바다를 건너고 또 건너서 알 수 없는 곳에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즉시 저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에페 2,10) 저는 이 신부님이 현재 있어야 하는 곳에, 곧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에게 임지를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신부님은 대답했습니다. “5년 전쯤 제 주교님께서 저더러 스페인으로 가서 영성원장을 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부모님과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기도 싫어 거절했습니다. 저는 영성원장이 되는 것도 싫습니다. 그저 동료 수도자들이 살고 있는 지금 수도원에서 살고 싶어요.” 거의 매주일 신부님은 자신의 부모님을 찾아뵈었고 이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신부님에게 마태오 복음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33) 신부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발령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그 날부터 건강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2. 속박으로부터 구원

사람들은 간음이 한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간음은 배우자에게 장애와 속박을 물려주기 때문에 건강한 혼인생활을 가로막습니다. 혼인을 통해 부부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무지나 속임수의 속박을 마주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삶 안에서 기만을 당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속박은 집착, 소유욕, 억압, 하느님께 대한 반항 등으로 드러납니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 세상에 악마와 악령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사람을 간계에 빼지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에페 6,11-19 참조).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악한 힘이

나 권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악한 힘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하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며 자살충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악한 힘에 속박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시어 우리를 악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로마 10,13)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이 당신 위에 내리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기름부음 받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셨습니다.(루카 4,18-19 참조) 메시아와 관련 있는 이 예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성취되었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표징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로 전해졌습니다.(마르 16,17 참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의 빛이며, 당신을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 8,12 참조)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스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예레 17,5-6)”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몸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면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는 기도모임 시간에도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기도모임에 참여 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 안쪽에서 어떤 힘이 올라와서 밖으로 나오려하는 것을 느꼈고, 이는 그녀로 하여금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키게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여성은 위해 기도하던 중에 우리는 성경말씀을 받았습니다. “뱀에게 물린 마술사와 들짐승에게 가까이 간 자들을 모두 누가 동정하겠느냐? 그와 같이 죄인을 가까이한 자와 그의 죄악에 끼어든 자를 아무도 동정하지 않으리라. 그는 잠시 네 곁에 서 있겠지만 네가 비틀거릴 때는 너를 떠나리라.”(집회 12,13-15) 저는 이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여성은 “아뇨”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자녀는 있습니까?” 여성은 “한 명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까?”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여성은 “그저 실수였어요. 남자친구랑 6개월을 같이 살았는데, 남자친구는 저를 괴롭혔어요.” 이 여성의 삶은 하느님의 말씀이 계시해주신 그대로였습니다. 여성은 이제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고 나서 남자친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당에 가려고만 하면 화를 내었고 때로 폭력도 휘둘렀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는 이 여성의 목을 조르며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날로 이 여성은 남자친구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여성은 임신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그녀에게 다음의 성경구절을 한 달 동안 매일 하루에 50번씩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생각하시어 저를 이끌고 인도하소서.”(시편 31,4) 이 기도를 시작한지 2주 정도 되어서 여

성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악마승배자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육체적 관계를 가졌을 때, 여성은 성경이 말씀 하듯 악마에게 사로잡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탕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면, 탕녀와 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1코린 6,15-17)

3.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원

우리는 죄가 생명과 모든 피조물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느님께 의로움이 되도록 이 모든 악행을 바로잡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1코린 1,30;2코린 5,14)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 6,51) 주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중에 죽은 것으로 간주되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표징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마르 5,41). “젊은이 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루카 7,14). 라자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당신을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 11,25 참조).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위해 죽음을 정복하고 패배시키셨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주님 부활의 증인입니다(사도 2,32;13,30-31;마태 28,9;마르16,9-20;요한 20,1-31;1코린 15,5-8).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로마 6,9;묵시 1,18 참조).

죄와 병

“너희 마음이 하느님을 떠나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돌아서서 열 배로 열심히 그분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신 그분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 주시리라.”(바룩 4,28-29) 한 여인이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찾아와 자신의 남편이 몇 주째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며 의사들이 병의 원인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기도모임의 리더였고 신심 깊은 신자였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매일 빠지지 않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주님께서 제 남편을 별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주님께서 더 많은 십자가를 주시는 것일까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 남편이 이 고통을 받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저는 곧바로 묵시록의 말씀을 계시 받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지만, 그는 자기 불륜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보라, 내가 그를 병상에 던져 버리겠다. 그와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 함께 저지르는 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속으로 던져 버리겠다.”(묵시 2,21-22).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여성

의 남편이 외적으로는 신심 깊은 신앙인일지라도, 여러 여성들과 만남을 가지며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여인의 기도 때문에 여인의 남편에게 영혼을 구하고 죄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성경말씀을 받고 난 후에 우리는 여인의 남편을 찾아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고해성사를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남편은 고해를 한 후에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얘야, 네가 병들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여라. 그분께서 너를 고쳐 주시리라. 잘못을 그만두고 손을 씻으며 온갖 죄악에서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집회 38,9-10)

4.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질병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은 억압받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아픈 이들을 치유해주시며 악마를 내쫓으신 일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고을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 모두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사도 5,16) 마태오복음에서도 우리는 읽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마귀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마태 8,16)

주님께서 제 딸에게 새로운 척추를 주셨습니다

한 어머니가 주님께서 자신의 두 자녀에게 베풀어주신 치유하시는 손길을 체험한 후에 이를 증언하려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두 명 있습니다. 두 딸 모두 척추기형으로 고통 받았고 매일 매일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어요.” 여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캐나에서는 두 딸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 인도로 가게 되었어요. 2010년 12월에 저는 두 딸을 데리고 인도로 건너갔습니다. 제 첫째 딸이 먼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은 예정된 12시간을 넘어서 다음날까지 이어졌고 6시간이 더 지난 후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제 딸이 다음 수술을 받기 전까지 고향에 있는 집에 머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의 휴식을 위해 캐나로 돌아와야 했죠. 그때 제 둘째딸은 척추교정 자켓을 입고 있었습니다. 둘째딸은 다시 인도로 돌아가 수술 받을 예정이었거든요. 이 시련의 때에, 제 친한 친구가 제에게 빈센티안 기도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었고, 저는 제 친구가 저에게 해주었던 말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빈센티안 기도의 집으로 가서 딸에게 새로운 척추를 주시길 주님께 청해봐. 사람이 만든 자동차도 교체할 부품이 있잖아.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어떠시겠어? 우리가 믿음으로 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는 3월부터 토요일 기도모임에 꾸준히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집에 계시던 신부님들 중 한분이 저에게 성경말씀을 주시고는 세달 동안 매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세달 동안 매일 성경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끝낸 후 6월에 저는 내적치유피정에 참석했습니다. 피정 둘째 날이었어요. 치유 시간에 성체현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신부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주님께서 새 척추를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온 몸이 불에 타는 듯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제 딸이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딸은 저와 함께 티카에 있는 빈센티안 기도의 집까지 동행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증언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무릎을 끓고 한마음으로 주님께서 새로운 척추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 딸은 더 이상 척추교정 자켓을 입지 않습니다. 척추가 매일 조금씩 펴지고 있

거든요.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5. 예수께서는 물질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십니다

복음서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정이 많으신지,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한 사건이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가진 것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었습니다(요한 6,1-12 참조). 많은 순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제자들과 같이 돈도, 음식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구원자가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행의 날에 당신을 부르라고 촉구하십니다(시편 50,15 참조).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의 중재로 예수님께서는 물을 술로 바꾸시며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요한 2,10-11 참조). 이것이 주님께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법이었고, 제자들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실 능력이 있으시며, 그분께서는 짐을 짊어가시길 원하십니다. 바오로 사도의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2코린 8,9)라는 고백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500만원을 청했는데 주님께서는 2000만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 곤경에 처해있어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라는 점입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두 번째는 세 아이들의 학비는커녕 식비를 대는 것조차 힘들어요. 세 번째는 직장이 없고 빌린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애들을 데리고 길거리로 나올 수는 없어요.” 저자는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인은 “믿기 때문에 지금 성당에 와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청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로 믿습니다.” 저자는 여인에게 시편 2장 8절의 말씀(‘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땅 끝까지 너의 소유로 주리라’)을 한 달 동안 매일 50번씩 기도로 바치라고 조언해주면 주님께서 지속적인 해결책을 주실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자는 이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500만원을 드리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더 많이 주길 원하시거든요. 500만원은 임시방편일 뿐이지 않습니까. 가서 집주인에게 한 달만 사정을 봐달라고 청하십시오.” 여인은 돌아가서 기도를 했고 3주 후에 놀라운 소식과 함께 다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여인의 말에 의하면, 여인이 무릎을 끊은 채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여인에게 2000만원을 빌렸지만 돈을 갚지 않고 자취를 감추었던 친구가 돌아와 빌렸던 돈을 갚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여인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여인의 친구는 3주 동안 계속해서 꿈에 흰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돈을 갚으라고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자는 여인에게 흰 옷을 입은 남자가 하느님께서 보내신 천사임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주님을 찬미 하여라, 주님의 천사들아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힘센 용사들아”(시편 103,20)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주시려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신부님, 그 뿐만이 아

니에요. 제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께서 저를 불러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독일인 기금으로부터 특별 장학금을 받았고, 사목회의를 통해 그 장학금으로 제 아이들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 흙 도가니 속에서 일곱 번이나 정제된 순은이어라”(시편 12,7).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어서 얻게 되는 해결책들은 임시방편이 아닌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돌아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사도 3,19). 이는 사도들이 행한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모든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섰을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착하신 목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고 보호를 받습니다.(요한 10,10)

그분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서는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품위 있는 정체성을 얻습니다.

그분께서는 임마누엘이라 불리시며, 그 뜻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서는 이들은 언제나, 죽음 이후까지도 그분을 동반자로 느낍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오시는 분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왕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서는 이들은 결코 거절당하지 않고 존중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왕이심에도 당신을 배반한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서는 이들은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 속죄양이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이사 53,7-8 참조) 우리가 지은 죄값을 갚으시고자 주님께서는 학대받고 천대받으시는 순간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요한 14,6): 예수님께 돌아서는 이들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고, 진리를 깨달으며 생명을 충만히 받습니다.(요한 10,10 참조)

그분께서는 평화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서는 이는 모두가 평화를 받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에페 2,14 참조)

그분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서는 이들은 결코 무지와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요한 8,12 참조)

그분께서는 살아계신 말씀, 사람이 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서는 이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깨끗해집니다.(요한 15,3 참조)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서는 이들은 조상들로부터 이어오는 죄의 영향에서 해방됩니다.(1베드 1,18-19)

그분께서는 메시아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서는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지상의 삶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도록 기름부음 받습니다.

그분께서는 생명의 빵이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서는 이들은 결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살아있는 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로 돌아서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모든(육체적, 영적, 감정적)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참된 나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돌아서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육하시고 열매 맷도록 하시며 우리가 삶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실수에 대한 책임을 당신께서 직접 짊어지심으로써 당신께로 돌아서는 이들을 의롭게 해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로 돌아서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십니다.(이사 22,22;마태 16,16-18 참조)

그분께서는 대사제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나약함을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가 그 나약함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히브 4,15-16)

그분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서는 이들은 새로운 존엄을 부여받습니다. 그분께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필로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도구가 되고자 하십니까?

이 책 “예수님께 돌아서야 하는 이유: 내면의 치유로의 초대”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자비로 내면의 치유를 받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에필로그에서 우리는 다양한 내면의 상처들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써 내면의 치유를 위한 도구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1. 단죄 받은 이들을 위로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부당하게 사형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치유해주셨으며 해방시켜주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는 말했습니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마태 27,4). 예수님께 유죄판결을 내렸던 빌라도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며 죄에 대한 책임을 유다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마태 27,24).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백인대장은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마태 27,54).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유죄판결을 받아서 생긴 내면의 상처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이를 본적이 있습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결코 단죄받지 않았음을, 예수님께로 돌아서면 예수님께서 비난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2. 누군가를 대신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들을 위로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속죄양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부당한 강요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가 주는 수치심과 극도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 마음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분께서 모욕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 술독에 빠진 남편, 폭력적인 이웃이라는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가면서 불평을 하는 이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우라고 다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깨로 그들을 이미 짊어 지셨음을 떠올리게 하십시오(이사 53,7-8).

3. 넘어진 이들을 위로합시다.

예수님께서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진 이들에게 말해주십시오. 수치스런 죄악으로 넘어지게

되었다면 이미 우리에 앞서 우리의 스승께서도 넘어지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모욕당하기 전에 그분께서 먼저 모욕당하셨고, 우리가 배반당하기 전에 그분께서 먼저 배반당하셨으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부터 버림받기 전에 그분께서 먼저 버림받으셨음을 전하십시오. 주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이해하는 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4. 극심한 슬픔에 잠긴 이들을 성모님께로 돌아서게 합시다.

성모님께서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아들을 바라보며 심장이 끊겼습니다. 비록 아들을 도울 수 없었으나, 성모님께서는 곁에 계심으로써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심으로써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지탱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이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아들 곁에 서서 끝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끔찍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이로부터 상처받은 이들에게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하라고 권해 주시겠습니까? 성모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오셨고, 예수님과 함께 이집트로 피신하셨으며, 주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려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30년 동안 나자렛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셨습니다. 성모님은 혼인잔치 때도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여정을 떠나 곁에 없을 때에도 성모님께서는 주님 곁에 머무르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어머니를 떠올려보십시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십자가 아래 발치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성모님을 맡기신 주님께로 돌아서라고 말하십시오(요한 19,27 참조).

5. 이웃에게 시몬이 되어주도록 합시다!

자만과 독선은 우리가 내면의 치유를 받는데 있어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를 대다수가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마음이 무너져 내린 이들을 위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세심하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주위에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들을 지고 가는 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주위를 둘러볼 때에라야 우리는 거부, 이기심, 자기연민이라는 내면의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게 됩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의 무게를 나누었던 시몬은 더 이상 예전의 시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겹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웃을 돋겨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홀로 예수님께 돌아서지 말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내면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6. 이웃에게 베로니카가 되어주도록 합시다!

베로니카가 보여준 내면의 치유는 독특합니다. 베로니카는 모두에게 위협받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아주 친절하고 부드러우며 용기 있게 위로해드렸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과 연관되길 원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베로니카는 누구보다 버림받으셨던 분께 대담하게 다가갔습니다. 군중으로부터 한발 나와 서서 베로니카를 닮은 사람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로니카는 군중의 멸시를 자초했지만 동시에 유일한 허락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던 수건에 그분의 얼굴이 영원토록 새겨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모습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간음한 여인이 모든 이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려던 그 순간,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옆에 서계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치유를 가져다주신 예수님의 이 선하심

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들 중 많은 이가 상처 입은 채로 남겨져 있습니다. 고통 받고 있는 이웃을 도와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요한 4,18).

7. 두 번째 넘어진 이웃을 일으켜 세워주도록 합시다!

맥이 풀려서 누구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외로움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악, 복수하고자 하는 감정, 죄책감, 그리고 슬픔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많이 넘어지면 질수록 이들은 자신들이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서도록 격려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계시지만, 자신의 나약함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당신의 강함으로 힘을 불어넣어주십니다(2코린 12,8 참조).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수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다시 넘어진 이웃에게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마태 14,31;이사 40.30-31)

8. 슬퍼 흐느끼는 이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도록 합시다!

내적으로 받는 모든 상처의 뿌리가 하느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시작한다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도구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인들은 자신들과 자신의 자녀들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어 드리게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붙어있어 슬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당신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멀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그토록 흐느껴 울었지만 예수님께 전혀 도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흐느껴 우는 이들에게 죄로부터 멀어져 예수님께로 돌아서라고 말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9. 여러 번의 경고에도 또 다시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훑먼지 가득한 땅에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서 평안과 위로를 찾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를 멀시하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으로 절망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실 대사제가 있으심을(히브 4,14-15) 이야기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내면의 치유를 받도록 합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우리로 사랑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자녀들을 치유해주시는데 있어서 결코 지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당신을 거부하고 당신으로부터 멀리 떨러지려는 이들에게조차 지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10. 가난과 수치심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지탱해주도록 합시다!

대중 앞에서 옷벗김을 당하고 멸시받으며 매를 맞아 수치심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겸손되어 군중 앞에서 옷벗김 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이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면서 하느님의 치유를 가져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누구보다도 가난한 이가 되셨습니다. 나자렛을 떠나 선교를 다니시던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뉘어 쉴 곳이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봉사하던 이들이 내어놓은 값싼 음식을 드셨습니다. 또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신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모든 수치심, 치욕, 멸시, 조롱과 함께 예수님께 돌아서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이 스승으로부터 조건 없는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2코린 8,9).

11. 악한 정신에 구속되어 고통 받는 이들을 위로합시다!

외로움, 불안, 절망, 증오, 욕정, 탐욕, 끊임없는 거짓말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노력하면 할수록 같은 죄에 더 많이 빠져버립니다. 이들에게 돌아서서 의지할 분이 계심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정복하시기 위해 날카로운 못으로 손과 발이 꿰뚫리셨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서는 이들은 악습을 이겨낼 힘을 받습니다. 자신의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이야기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의 눈은 피가 스며들어 흐릿해졌고, 구타로 인해 부은 눈꺼풀과 검푸른 이마로 인해 두 눈은 감겨 있습니다. 그분의 입은 식초와 쓸개즙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분의 심장은 창에 찔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모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주시려고 모든 감각이 고통으로 가득 찬 채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돌아서도록 합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실 수 있으며 악한 영들을 물리칠 권한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 가족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을 위로합시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드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발치에 서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먹이시고 치유해주시고 보호해주신 사람들에게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주님께 쓸개즙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주었고 시중을 들어주었던 이들에게서 돌아온 거부, 자신의 제자에게 당한 배반, 당신을 가장 먼저 공경해야 할 대사제에게서 받은 모욕, 당신의 백성에게 당한 고발... 이 모든 것이 세상 창조 이래로 누구에게도 볼 수 없었던 상처들을 예수님의 몸과 영혼에 새겨 넣었습니다.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고통을 실제로 이겨내신 주 예수님의 유일하신 분입니다.

13.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비탄에 잠긴 이들을 위로합시다!

예수님의 죽은 육신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지고 그분의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육신에 남겨진 악이 행한 흔적을 씻으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불경죄 등의 온갖 거짓 고발로 사형당한 아드님의 육신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끌어안아 보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외아드님의 고통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신 성모님으로부터 배우도록 격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모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그 즉시 우리를 예수님께로 돌려세우시어,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들을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히브 12,2)

14. 소외감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로합시다!

우리들 중 많은 이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자신들의 삶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은 채 다양한 내면의 상처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요한 10,10 참조)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살아 움직이고 우리 존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사도 17,28 참조)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죽

음을 선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봉인한 채 우리 스스로를 위한 무덤을 준비합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들을 부드럽게 다시 주님께로 돌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으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가족, 이웃, 성당, 사목활동, 공동체, 모든 인류로부터 상처입거나 상처를 입힌 이들에게 주 예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그치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서져버린 이 세상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세상 곳곳에서 거행되는 성체성사 안에 살아계심을 선포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는 영광 속에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계시고,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서는 이들은 온전한 치유를 받고 충만한 생명을 얻습니다.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니 너희는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나와서 뛰놀리라.”(말라 3,20)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주 예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에 내용과 순서와 제목을 주신 성령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이 책이 현실에 맞닿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의 일부만이라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 전체에 내적 치유를 가져다주는 복음화의 겸손한 도구를 통해 우리 모두 축복을 받고 치유되어 해방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든 영광과 영예와 흠숭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사제의 축복을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언제나 복을 받고 보호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내적 상처가 보여주는 추가적인 징후들

우리는 이미 2, 3, 4장에서 내면의 상처가 보여주는 징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상처를 받았고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함을 보여줄 의도로 내적 상처가 보여주는 추가적인 징후들을 열거할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상처의 징후들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이는 상처를 받았고 치유가 필요하다는 뜻이므로 그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내적 상처가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행동들:

- 내성적인 성격/완고함/모든 것에 대한 증오나 무관심
- 개인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함/항상 침을 뱉음
- 자기혐오/두려움/불안/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모든 일에 관여함
-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낌/사치스러운 것을 향한 욕망/불신
- 언제나 비판만 함/항상 비밀스럽게 이야기함/비밀을 폭로
- 다른 이를 존중하지 않고 동의하지도 않음/외로움
- 권위를 가진 이들을 두려워함/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하지 못함/피를 보면 우울해짐/시도 때도 없이 죽음을 두려워함
- 집중하지 못함/대화를 나눌 때 몸을 굽는 행동/낮은 자존감
-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만 함/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정당화 함/지나치게 세심함/작은 것에 짜증을 냄
- 잘 웃지 못함/비관주의-항상 무언가 잘못되기를 기대함/모든 것을 성적으로 바라봄
- 통제되지 않는 욕정/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지 못함/하루 종일 한숨만 쉼
- 몸이 항상 뜨겁거나 차갑게 느낌/혼인생활 안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혐오함/무절제한 성욕/그 어느 때라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음
- 꼭 필요한 것에도 돈을 쓰려하지 않음/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함/특정한 소리에 알리지 반응을 보임/잠들지 못하고 새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함/언제나 악몽을 꿈/한밤중에 갑자기 깨
- 맹목적인 모방/어느 것이라도 먼저 보고하는 사람을 믿음/용서를 거절함/고집을 부리며 단식함/콧노래를 쉬지 않고 부름
- 같은 것을 끊임없이 반복함/상처 주는 농담을 잘함
- 모든 것에 부정적인 비판을 가함/항상 슬픔에 잠김/음침함
-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함-같은 죄를 되풀이해서 고백함
-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함-옛날에 지었던 죄를 항상 기억함
- 다른 사람의 성장을 질투함/언제나 슬픈 표정을 짓고 있음
- 식욕으로 인해 배가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먹음

- 어디를 가든 모든 것에서 사탄을 봄/완벽주의
- 자살충동-‘죽을 거야’라는 말을 반복함
- 이상한 소리를 계속해서 냄/다른 사람에게 천한 일을 시키면서 기뻐함
- 많은 것을 시작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끝맺지 못함/계속되는 거짓말
- 병이 날까 두려워함/예의 없는 행동/무지함/어수선함
- 작은 병은 크게 과장함-예를 들면 약간의 두통에도 종양이 생긴 것이라 믿음/걸어가면서 넘어질 것을 두려워함
- 자신을 사랑하지 못함/“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 난 뛰어나니깐”
- 자신도 모르게 자위를 행함/어두운 구름을 좋아함/거짓말/부정직함
- 신뢰하지 못함/독립적이지 못함/실수를 알아채지 못함/무례한 행동/이해력 부족/양심부족
- 변명의 여지없이 나약하거나 무지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관계에 대한 공헌이 없음
- 쉽게 분위기가 변함/시간을 지키지 않음/너무 비평적임/과도하게 행복해 함
- 스스로 혹은 다른 이를 당황하게 하는 행동/소란스러움/관대하지 못함/무책임함/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지나치게 의존함
- 불확실함/끈기 없음/그릇된 판단/질투 섞인 음모/부도덕함/중상-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함/과도한 죄의식
-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함/농담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못함
- 다른 사람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기심/시작을 못함/인종차별/부족중심주의/민족 분리주의
- 사태파악을 못함/만족을 못함/하루 종일 손에서 폰을 놓지 않음
- 지나친 민족주의/매너가 없음/존중의식 결여/에티켓 부재
- 냉담한 반응/게임에만 몰두/설명할 수 없는 행동/열등감/술을 마시거나 화가나면 물건을 부숨/다른 사람의 몸을 학대함
- 작은 것에도 쉽게 울음을 터뜨림/완고함/모든 사람을 의심함
- 다른 이를 비판함/쉽게 화를 냄/과도한 성적 욕망/무기력
- 과도한 부끄러움/학업에 열중하지 못함/논쟁을 즐김/너무 빨리 먹음/타인의 인정을 갈구함/부모에게 벼룩없이 굶
- 자신의 방식만 고집함/쉬지 않고 이야기함/과식
- 대중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두려워함/친구를 잃을까 두려워함/억눌린 감정
- 실망과 절망/술과 담배에 중독됨
- 항상 하품을 하고 졸려함/다른 사람을 신체적 또는 성적으로 학대함
- 우월감/모든 형태의 권위를 증오함/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음
- 반항적인 태도/계획을 마지막 순간에, 또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바꿔버림
- 해어진 연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불평함
- 과장하고 불평하고 소문을 만들어냄
- 의상에 대해 관심을 받고자 함/신체를 많이 노출하는 옷을 즐겨입음
- 대화의 주제를 계속 전환함
- 커다란 공동체에 속해 있음에도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함
-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무관심한 삶
- 욕실에서 노래부름/저속한 농담을 던지고 심하게 큰 소리로 웃음
- 재밌는 농담에도 전혀 웃지 않는 사람

- 항상 거울을 쳐다봄-자신의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함
- 울지 못함(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하지만 방해를 받기 때문에)/백일몽을 꿈/시험을 두려워함
- 작은 일에도 긴장을 해서 손톱을 깨물거나 이야기 할 때 몸을 떠
- 피를 보고 두려움에 떨거나 의식을 잃음
-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기 위해 자주 문 뒤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숨음 /남자, 여자, 경찰, 사제, 의사 등 사람을 싫어함
- 감정을 배출하지 못함(항상 읽거나 담배를 피고 차나 커피를 마심)/그 어떤 오락거리에도 기뻐하지 않음/우월감(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음)/지극히 개인적인 일에도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함
- 의도적이지 않을 때도 상처 주는 단어들을 사용해 이야기 함
-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할까봐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두려워함
- 누군가 세상을 떠났거나 고통 받는 것을 보게 되어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모든 일에 간섭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음
- 어떤 음식에도 기뻐하지 않고 손도 대지 않음
- 분명히 들었음에도 못들은 척 함
- 무절제한 삶-어느 곳에 있든 어질러놓음
- 지나친 신심-너무 긴 시간 기도하고 이를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이라 확신함
- 여자나 남자, 어린이 등 타인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함
- 다른 사람의 소유물, 심지어 공공기물도 파손함

주의: 이 행동들은 내적 상처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요인 때문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안토니 파란키말리 [다른 이름- 쉬부 세바스티안] **박사** 신부는 1978년 5월 20일에 태어났으며, 인도에 있는 빈센트회에 속한 사제이다. 그는 2004년 12월 28일에 사제서품을 받았으며, 뮤바이[Mumbai]에 있는 Tabor Divine 피정센터에서 첫 소임을 시작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케냐[Kenya]로 가서 다양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 첫 번째로 빈센트회 신학부 학생들의 학장, 다음으로는 레빙顿[Lavington]에 있는 빈센트회 기도의 집 책임자 그리고 2010년부터 티카[Thika]에 있는 빈센트회 피정센터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케냐[Kenya] dptj 8년의 사목후 로마로 가서 성 안셀모[Angelicum University]대학에서 영성신학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뉴저지[New Jersey]에 있는 하느님 자비의 기도의 집에서 부 관리책임자 그리고 영국[UK] 달링톤[Darlington]에 있는 가르멜 디바인[Carmel Divine] 피정센터의 책임자로서 일하였다.

최근에 그는 엔테베[Entebbe]에 있는 빈센트회 피정집 책임자이며 장상이다. 그리고 우간다[Uganda]에 있는 키수비[Kisubi]대학의 시간강사로서 일하고 있다. 그는 또한 르완다[Rwanda], 키갈리[Kigali]에 있는 새로운 디바인 피정센터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는 몇권의 영적서적의 저자이다. "You are not Rejected[그부 당하지 않은 그대]" 영어, 불어 독어 스와힐리어, 한국어, 키카암바, 칸야완다. "Why Turn to JESUS[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이유]" 영어, 한국어. "Christ is All[그리스도는 모든 것]" 영어, 루간다, 불어에서 베스트 셀러. "All Glory to Jesus[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영어로 된 찬송가. 그는 3가지 음악 앨범을 출시하였다. 즉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느님께, 묵상과 함께 드리는 자비의 묵주기도[키외힐리], 묵상과 함께 드리는 묵주기도[영어]. 그는 최근에 새로운 책을 집필하고 있다. "겸손에 관한 모든 것: 성녀 파우스티나 코왈스키[St. Faustina Kowalska]의 생생한 영성."

그는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국, 호주, 유럽, 중국, 한국, UAE, 바레인, 싱가포르 및 대부분의 아프리카 대륙을 포함한 5개 대륙에 광범위하게 여행을 하였다.

